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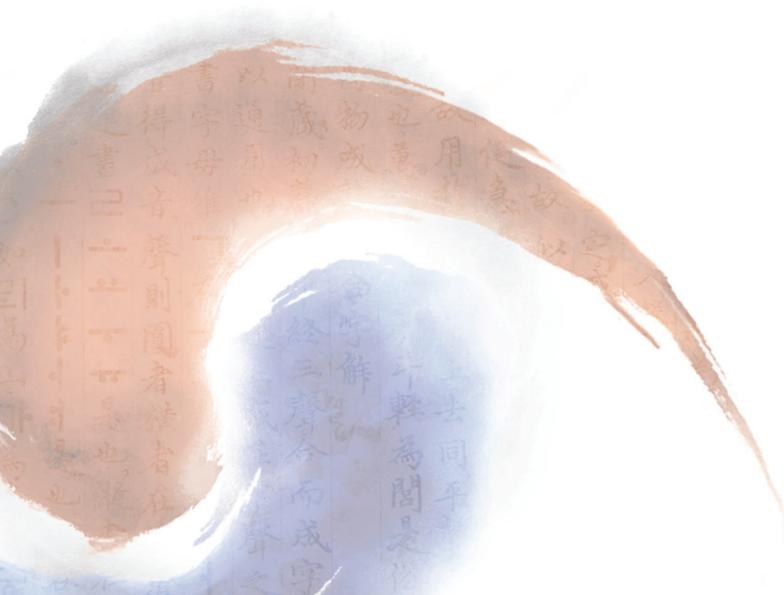
11-1300000-000143-10



정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9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발 간 사

Congratulations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남기듯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헌신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 복무요원들을 떠올려 봅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현장 인력이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부족한 현실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역이 아니라는 일부 부정적 편견과 싸워가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국 6만여 사회복무요원 여러분께 병무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전합니다.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는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희생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의 복무 중 실제로 체험한 사례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벤 스위트랜드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등불을 켜면 결국 자신의 길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묵묵히 우리 사회를 밝혀주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도 지금의 희생과 헌신이 곧 자신의 앞날을 밝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당당하게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도 여러분의 젊음이 사회복지무를 통해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책자 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사회복지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건강하게 병역 이행을 마치고 든든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병무청장 



심 사 평

Congratulations

몸과 마음이 한창 젊은 시기라도 국가에 헌신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각고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복무요원들은 많은 바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롯이 남을 것이다.

2019년 체험수기에 응모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와, 체험을 바탕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가능성을 심사의 주안점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 응모작이 복무기간을 자기 성장의 한 과정으로 체득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경험 사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미흡한 소수의 작품도 있어 '옥에 티' 라고 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미션」은, 늦은 나이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음에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로 복무에 임한 내용이다.



진취적이고 혈육지정의 마음으로 보람을 느낀다는 자세가 돋보인다.
「풀꽃도 꽃이다」는, 특수학교에 복무하며 지체부자유아동과 학습한
체험을, 어색하지 않게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다.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는 길」은, 낮선 동네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불우아동들과 교감한 과정을 대화와 지문으로 자연스럽게 묘사했다.

복무관리 부문의 「나의 소명, 나의 Dream」은, 직업군인출신이 해외
파병의 경험을 직무에 맞춰 새롭게 공부하고, 부적합복무자들을
계도시킨 사례가 감동적이다.

심사위원 **이 광 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최 성 배 (한국문인협회 이사)



목 차

Contents

사회복무요원

최우수상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미션' 박주승 | 남지드림지역아동센터 10

우수상 풀꽃도 꽃이다 - 어느덧 나의 자랑이 된 아이들 16
박광훈 | 광주 선명학교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는길 백준영 | 해피엘지역아동센터 25

장려상 동행 이동현 |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31

나는 다시 내가 되었습니다. 강경석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36

누군가의 '등불'로 산다는 건 조수연 |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42

입 선 어디서 이런 이쁜 총각이 왔으까잉 김영웅 | 패밀리요양원 48

꿈나라, 별나라 권대솔 | 제주시교육지원청 귀일중학교 53

마음을 통(通)하다 박재완 | 봉개지역아동센터 63

오늘의 감동이 내일의 희망으로 전병연 | 늘편한요양원 70

광주역 근무일지 김지우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76

삶의 의미를 찾는 마법 김도현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82

'항상 그 곳에 있어주는 사람' 노신영 | 김해은혜학교 89

밝은 세상에 내딛는 작은 첫발 박준홍 |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95

지울 수 없는 아픔 홍윤성 |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101

완생(完生)을 향한 길 : 성숙한 나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여정
배재성 | 북음양로원 106

Red 강동윤 | 안산소방서 112

내가 만드는 금지 높은 역사 공현호 | 부산시립북천박물관 118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면, 당신은 절대 무지개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김성현 | 경남농아인지원센터 124

꿈의 발판이 되어준 사회복무 김재호 | 속초노인복지센터 129

비전을 향한 디딤돌 안준 | 울산과학기술원 134

동행, 함께 성장하는 우리 김건중 | 동방중학교 139

소음에서 행복을 찾은 이야기 노선재 | 춘천동원학교 145

입 선	새싹교실의 새싹 한 줄기	한경빈 신성종합사회복지관	150
	특별한 자리	김하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156
	창신화랑경(創新花郎境 : 새롭게 만들어가는 화랑의 세계)	손호영 경주시청	161
	웰컴 투 효자4동	이중우 전주완산구청 효자4동	168
	다르면 다를수록	박현우 밀알복지관	173
	편견에서 새로운 이해	윤운상 전주사랑의집	181
	69,000m 마라톤	정형두 새힘지역아동센터	187

복무관리담당

장 려 상	나의 召命, 나의 Dream.	임경식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194
--------------	------------------	---------------------	-----

입 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박민규 경기북부병무지청 복무지도관	198
	내 사회복무친구들을 소개합니다(사친소)	윤형준 대구달성소방서 복무관리담당	203
	같이 걸을래?		208
	최은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복무관리담당		

모범복무사례

- 기도 막힌 어린이 사회복무요원이 구해
 - 지적장애인 보살핌 사회복무요원
 - 화재속 숨은 영웅 사회복무요원
 - 지하철 몰카범 제압한 사회복무요원
 - 생명나눔 실천한 사회복무요원
 - 마라톤 도중 쓰러진 시민 생명 구한 사회복무요원
 - 지하철내 승객 안전지킴이 사회복무요원
 - 선로 뛰어든 남성 구한 사회복무요원
 - 시민 대피시키고, 화재진압까지
 - 경찰 도와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 | | |
|----------------------|-----|
| 김제훈 창원시 상남동동행정복지센터 | 214 |
| 이한빈 뽀얏타운 | 215 |
| 조영흠 천안치암초등학교 | 216 |
| 최정우, 곽명섭 광운대역 | 217 |
| 윤용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 218 |
| 배병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219 |
| 류동은 한국철도공사수도권운동본부 | 220 |
| 오윤상 서울교통공사 | 221 |
| 구교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 222 |
| 김기수, 정의연 서울양천경찰서 | 223 |

정기
행사로
피어나라

2019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사회복무요원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ww.mma.go.kr

최우수상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미션’

박 주 승 | 남지드림지역아동센터

이야기에 앞서

사회복무요원인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미션은 무엇일까? 4주간의 군 사훈련을 받으며 기록한 메모장의 가장 첫줄에 적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까지 경영학을 전공하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던 분야에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로운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였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에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딪히다 보니 어느덧 주변의 친구들과 동기들은 모두 전역을 한 후였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늦은 시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9명의 아동들과 지난 1년을 보내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꼬박 1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이 글은 그간 답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한 가짜 선생님에서 진짜 선생님이 되어가는, 또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어떻게 채어나갈 지에 대한 다짐의 글이기도 합니다.

작은 차이가 만드는 큰 변화

아이들과 인사조차 나누기 어색해 하던 제가 복무하는 곳은 작은 농촌마을의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서워하던 아이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업무입니다.

처음 센터에 출근 후 약 2주 동안 업무에 대해 배우고 아이들과 생활하며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책상은 사무실에 있고, 아이들은 항상 거실의 작은 소파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한 센터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 없이 맹목적으로 기본 업무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진단받은 허리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과감히 아이들이 모이는 낮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바로 옆에 앉는 상황이 어색한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디가냐고 선생님이랑 얘기하자며 아이들을 조르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함께하니 이제는 자연스레 저의 무릎을 베개 삼아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가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여 매일 무릎에 상처를 하나씩 만들어 오는 아이, 군것질을 하였는지 옷에 온갖 양념이 묻어있는 아이, 무슨 일인지 표정이 썩 좋지 못한 아이 등. 아이들의 변화와 그날의 기분들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동의 높이에

맞는 이 소파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시콜콜한 대화와 함께 온기를 나누다 보면, 사회복지무요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2학년인 한 아이가 평소와 달리 축 처진 어깨와 인사도 없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단 걸 알아채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머뭇거리던 그 작은 입에서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는 예상치도 못한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아이는 남몰래 아픔을 꼭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없어, 선부른 한마디가 더 큰 아픔이 될까봐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때론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꼭 안긴 채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단어로 딱 정의할 수 없는 몽클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하였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조금은 느리게 흘러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이 아이가 속상하고 힘이 들 때 그저 조용히 어깨를 토닥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곁에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아픔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비바람을 막아줄 수는 없어도 함께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무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Dream은 Dream이고, Free는 Dance다!

어느 날 영어 숙제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제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를 제게 자랑하기 위해서 “선생님 Dream이 뭘까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척 “Dream! 우리 센터 이름에도 들어가잖아. 무슨 뜻이야?”라고 되물었습니다. 자신보다 몇 뼘이나 더 큰 선생님이 정답을 모른다니 신이 난 듯 “꿈이잖아요. 그것도 몰라

요?”라고 저를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그럼 ○○이 꿈은 뭐야?”라고 또 물었습니다. 전부터 정말 궁금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거창한 꿈을 갖고 있을까. 변호사? 경찰? 의사? 아니면 요즘 뜨는 유튜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선생님 꿈은 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 제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매일 밤마다 꾸는 꿈은 바뀌잖아요.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봐도 말해 줄 수 없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한 저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 듯 아이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애써 감추고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 그럼 Free는 뭘까?” 경영학과 경제학을 원서로 공부한 제게 Free는 무료의 의미가 더욱 강하였습니다. ‘자유’라는 답을 내놓으면 무료라는 의미도 있음을 알려줄 의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의 입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다렸단 듯이 “○○아 자유라는 의미도 있는데 공짜라는 의미도 있어! 이걸 몰랐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음을 들리기 싫었던지 대답 없이 살짝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선생님, Free는 Dance예요!”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곤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춤을 추자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주변의 친구들도 정체를 몰라도 춤을 춰줍니다. 다소 우스꽝스럽고 귀여운 춤을 추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제게 보여주고 싶었나봅니다. 춤을 출 때 행복하고, 그것이 곧 자유로운 것임을.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한 꿈과 멋진 이야기를 기대한 제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춤을 추고 싶을 때는 마음껏 춤 출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과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거창한 꿈을 기대하는 사회를 향해 꿈은 꿈이라고 소신껏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워나가는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인식

4주간의 군사훈련,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등 사회복지무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면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복지무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공익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요원들은 그마저도 아닌 ‘야’, ‘어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을 당시 강사님께서서는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무원에 대해 좀 더 나은 평가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과 함께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더 나은 평가와 대우는 올바른 태도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저 맹목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닌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옳은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일반 가정빌라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빌라 내의 주민 분들을 매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마주칠 때마다 아이에게 그렇듯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사회복지무원 현장에 적합한 글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작이 저에게는 인사였습니다. 이 작은 인사는 쌓이고 쌓여 제게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라는 따뜻한 한마디로 되돌아 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머니께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느라 고생이 많다며 비타민 음료를 제 손에 쥐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일반 빌라에 위치하다 보니, 항상 주변에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쓰레기를 치우려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쓰레기는 쌓여가고, 특히 비가 온 날은 담배꽁초로 인한 악취도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아이들이 비교적 늦게 오는 화요일 오후를 쓰레기 줍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곳에 재활용 용기를 쓰레기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매주 봉투를 손에 쥐고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하자 금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 중 몇몇이 저를 돕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를 보면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본 이웃 할머니께서는 “군인 아저씨 덕분에 빌라가 깨끗해졌네!”하며 칭찬해주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봉사를 실천하자 저를 바라보는 주변 분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단순히 설거지와 센터 내부만 청소하는 학생이 아닌, 사회를 위해 힘쓰는 사회복지요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어진 기본 업무를 벗어나,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니 저에 대한 시선도 변화하였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직업정신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고생 많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제게 주어진 미션들을 찾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회복지요원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수상



풀꽃도 꽃이다

박 광 훈 | 광주 선명학교

어느덧 나의 자량이 된 아이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의 만남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거야?”

7월의 무더운 피약별이 심상치 않다. 이마에 비 오듯 쏟아지는 땀줄기를 닦으며 힘들게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가파른 오르막길,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 밑의 어느 작은 학교. 이것이 내가 처음 우리 학교에 와서 받은 첫인상이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곳의 사회복지무원 담당 선생님이 나를 맞이해 주신다. 선생님은 마침 학생지원인력이 필요한 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한 번 그 반의 담임선생님을 만나보겠는지 나에게 물어보셨다.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한 내가 그래서 도착한 반은 초등 1-1. 담임선생님께

서는 나를 처음 맞이하시며 반갑게 환영해주셨고 이어서 자기 반 아이들을 소개해주셨다.

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반에는 남자 아이 4명과 여자 아이 1명이 있었다. 일단 선생님은 반 한 쪽에 앉아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씀해주신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참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자리에 일어나더니 가만히 교실 뒤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바지가 뭔가 심상치 않다.

‘아뽀!’

딱 봐도 아이의 바지가 축축해 보이는 것이 분명 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싼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 근처에 다가가 코끝을 찌르는 꼬릿한 향기를 맡아보니 나의 추측은 확신이 되었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애써 아이를 다독이는 담임선생님의 난처한 마음을 이 아이는 과연 알기는 할까? 오줌을 싼 아이치고는 너무도 당당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 이 친구는 전에도 자주 바지에 오줌을 싸서 지금은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화장실 변기에 5분 이상 앉아 있도록 하는 아이라고 선생님은 말하신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반에 들어와 있으니 반가움의 표시로 오줌을 싼 것일까? 첫 신고식 치고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선물에 나는 적잖이 당황한다. 급히 담임선생님은 어디선가 비닐장갑과 젖은 아이의 속옷과 바지를 담을 비닐봉지를 꺼내 오셨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아이를 교실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와 속옷을 벗겨 씻기는 것을 도와준다.

‘아니, 출근 첫 날부터 이게 웬 봉변이람?’

이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인상을 남겼고 아침부터 유난스럽게 태양빛이 강렬히 내리쬐었던 이유는 아마 우리의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이 날의 첫 만남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가슴으로 이해하는 스위치

이 학교에 온 지도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처음 이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낯섶도 지금은 어느 순간 익숙한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 간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7월이었다. 그 해 여름엔 TV에서 연일 최고기온을 돌파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가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없었다. 결국 그렇게 맹렬히 불타던 더위는 마침내 111년 만에 한반도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는 TV 뉴스가 나오게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세마저 한 풀 꺾여 새벽 공기도 제법 쌀쌀해졌다.

하루는 학교의 아이들을 모두 하교시키고 사회복지무요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다. 다른 요원들은 일찍 조퇴를 했거나 도서실에서 책을 보고 있어서 마침 요원실 안에는 나 혼자 있게 된다. 그 때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요원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다름 아닌 이 학교의 사회복지무요원 담당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사회복지무요원 선생님들,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 보러 왔어요.”

그리고 분위기는 이내 담당 선생님과 나의 일대일 면담 상황처럼 흘러간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며 큰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 보셨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신다.

“우리 사회복지무요원 선생님은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혹시 특수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 한 질문을 받아 당황한 모습을 애써 숨기려 노력했다. 그 모습을 알아차리셨는지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 간다.

“사실,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장애를 가진 특수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들을 지켜보고 경험해보면 시간이 지나도 결국 어려

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간 고개를 끄덕이고 점점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길거리를 걷거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다니다 보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직접 보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장애 아동들이 매우 적어서 그럴까요?”

순간 깊은 생각에 빠진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정말 많이 우리 곁에서 함께 지내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쉽게 밖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보호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지원인력이 있지 않고서는 아이의 안전문제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이 아이들이 집에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특수학교로 등교할 때뿐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가슴 한 편이 뜨거워진다.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 나오는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로지 이 친구들을 위해 옆에서 함께 활동해 준다는 것은 어쩌면 이 친구들에게는 자기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같이 살아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먹먹함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처음 이 곳에 와서 직접 장애 아동들과 부딪히며 아이들의 학습

을 옆에서 보조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잘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때 선생님께서부터 들었던 이 진솔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내 스스로도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했던 것 같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머리로 충분히 이해했던 부분을 이제는 가슴으로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 때 선생님과 나눴던 10분 남짓의 대화는 결과적으로 내 안을 뜨거운 울림으로 가득 채웠고 그 멍 멍했던 울림은 결국 내 안에 아이들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스위치’를 켜 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이런 생각을 계속 떠올리며 복무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들의 인생의 한 부분을 매우 멋지게 장식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말이다.

“선생님! 선생님! 빨리 이리 좀 와보세요..!”

어느 날 하루는 아이들 오전 수업이 모두 다 끝나고 난 뒤, 우리 반 아이들을 어린이집 차량에 태워 보내고 잠시 사회복지무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던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고 이내 누군가 우리 요원실 문을 급히 열고 들어오며 정적에 금이 간다. 급하게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이 이 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무원 동생이다.

“형, 혹시 쉬고 계셔서 죄송한데 잠깐 옆에 체력단련실로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동생의 목소리나 얼굴에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네, 당연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것이.....학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서요!”

순간 그 말을 꺼내는 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급히 체력단련실로 달려

갔다. 우리 학교에는 ‘체력단련실’이란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곳은 체육 수업시간에 각 반 학생들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러닝머신과 각종 운동 기구들이 마련된 공간이다. 체력단련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한 여자 아이가 누워 있고 그 옆을 해당 반 담임 선생님께서 지키고 계셨다.

“선생님! 선생님! 빨리 이리 좀 와보세요..!”

담임선생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신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담임선생님은 체력단련실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수업 도중에 갑자기 여자 아이가 자기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였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 아동의 경우 보통의 학교를 다니는 일반 아동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자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자 그 반을 담당하고 있던 사회복지무원 동생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다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찾으러 요원실로 왔던 것이다.

“선생님, 혹시 이 친구 언제부터 이러던가요? 다른 증세는 없었나요?”

나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질문들을 쏟아낸다. 그러면서 아이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고 아이 머리를 폭신하게 받쳐 줄 수 있는 매트를 찾아 머리 밑에 놓는다. 다행히 아이는 딱 끼는 옷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자 아이 옆에 놓여 있는, 작은 아령같이 부딪혀서 다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을 멀리 치워 아이가 다칠 위험을 없앤다. 다행히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주저앉고 나서 큰 증세는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니 아이도 점점 정신을 차리는 듯하다. “애가 이제 괜찮아 졌나 봐요 선생님. 쉬고 있는데 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일단 보건 선생님께 빨리 전화를 드려 아이를 보건실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하시고 이로써 이 여자 아이 문제는 잠시 일단락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이곳에서 복무를 할 때만큼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생겼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보다 시야를 넓혀 다른 장애 아동 친구들까지도 훨씬 더 세심한 시각으로 관찰하며 옆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다.

요 농, 요 농, 요 이쁜 농!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일까? 새벽부터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대찬 바람소리와 함께 깊은 아침잠에 빠져 있던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린다. 이 날은 조금 더 무거워진 몸을 가누며 밖에 나갈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한 손에는 검정색 우산 하나를 쥐고 현관문 밖을 나선다.

학교에 도착한 스쿨버스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 둘 씩 내린다. 아이들 손을 잡고 아직도 매섭게 쏟아지는 비를 피해 교실로 무사히 도착한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우릴 맞이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반 담임선생님의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항상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담임선생님의 그 표정, 눈짓 그리고 말투. 이 모두가 ‘오늘 하루도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리라’ 약속하시는 선생님의 마음 속 다짐은 아니었을까.

시간은 흘러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아직도 그 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무렵, 우리 반 한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처음엔 내가 어르고 달래도 보았지만 이 친구는 몸집은 조막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작은 체구에서 온 몸을 쥐어짜 듯 소리를 질러대는지 도저히 잠잠해 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그랬던 탓일까? 아이는 교실 바닥에 드러누워서 점점 교실이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목청을 키운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우리 반의 다른 아이들이 손으로 귀를 막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꾸만 화장실로 도망치려고 교실을 불안하게 돌아다닌다. 결국 담임선생님께서 아이의 진정되지 않는 울음을 달래기 위해 나서신다. 하지만 한동안 아이와 담임 선생님의 팽팽한 기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선생님께서도 오늘 유난히 아이의 고집이 더 완강하다는 것을 직감하신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판단하신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을 먼저 진정시킨 다음에 이 친구와 함께 학교 안을 한 바퀴 돌아도 다녀보고 사탕도 쥐가며 울음이 잠잠해 질 때 까지 갖은 노력을 시도하신다.

시계는 곧 점심시간을 가리킬 시간이 되었다. 아이의 울음은 그제야 간신히 그친다. 아이를 진정시키느라 담임선생님께서도 진땀을 빼신 듯 하다. 그리고 선생님 입에서 흘러나온 이 한 마디.

“요 녀름, 요 녀름, 요 이쁜 녀름!”

순간 이 한 마디와 함께 멧쩍게 환히 웃어버리시는 담임선생님을 보고 나서 나 스스로도 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이 듬뿍 묻어나는 표현인지 감탄하고 만다. 사실 이 표현은 고 천상병 시인의 한 시집 제목을 따라 한 것이라고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말씀 해주신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때로는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기에 그럴 때 마다 더 강하게 아이를 사랑하고 말겠다는, 이 역설적이지만 강렬한 마음가짐의 표현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옆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어야 함을 내게 알려주는 하나의 위대한 본보기가 되었다.

풀꽃도 꽃이다

나는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 하나가 계속 떠올랐다. 바로 조정래 작가가 쓰신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이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뿐이다. 그것 말고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일반 아동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인 것이다. 오히려 변한 것은 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다르게 바라보려 했던 우리 어른들의 자세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바르게 인사할 줄 알고, 참고 줄을 서서 기다릴 줄 알며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먹을 것을 나눠 먹을 줄 알면 그 때 마다 담임선생님께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다른 반 선생님들께 은근히 자랑도 한다. 그렇게 이 친구들은 어느새 나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풀꽃도 꽃이다.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꽃’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며 매일을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에 둘러싸여 복무를 하고 있다.

우수상



복숭아나무 곁으로 가는길

백준영 | 해피엘지역아동센터

● 들어가며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모를 것이다. 어제 전철역에서 오랜 친구와 마주칠 줄도 짐작 못한 일이고, 또 시시각각 휴대폰을 타고 들어오는 여기저기 소식도 상상 못한 일들이다. 하다못해 오늘 출근길에 흐드러지게 핀 맨드라미에 시선을 빼앗겨 버스 놓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어느 구도자가 읊조렸듯 과연 사람의 일이란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입김의 향기처럼 '알 수 없다'라 하기에 충분하다. 돌이켜보면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근무지로 배정받은 것이 우연이라면 우연으로, 인연이라면 인연으로 여겨진다.

구내(區內)의 수많은 곳 중에 왜 이름도 생소한 동네의 시설로 가게 되었을까? 의미를 부여하려 해도 다시금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 근무지와 인연의 만남을 단지 우연 두 글자로 이야기할 밖에. 다만 조금은 특별한 인연 또한 그 속에 자리하고 있다.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릴 적 자기

소개서 한 귀퉁이에 쓰던 나의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며 함께 호흡하기를 좋아했기에 - 비록 진로 설정의 핸들은 위 희망과 다른 쪽으로 틀어버렸지만 - 근무지 지정이 딱 흡족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별똥별처럼 쏟아지는 민원을 받으며, 학술대회에서 한여름 아스팔트마냥 이글거리는 비판을 들으며, 배치를 받을 때의 신경은 예민하고 표정은 굳어 있던 차였다. 뭐랄까, 인적 드문 골목에 동하니 앉아 있는 가게 주인 같다고나 해야 할까.

적당히 요령껏 근무하려는, 심드렁한 모양으로 첫 출근길에 접어들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사람의 일이란 자욱한 안개와도 같다는 것을. 아동센터로 가는 길이 복숭아나무 곁으로 걸어가는 길일 줄은 당시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 첫 출근과 첫 질문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소회를 써내려가는 이 시점에 꽤 묵직한 추억의 가방을 열어보니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들어 있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푸근히 적혀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나희덕 시인이 초년에 지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작품이다. 낯선 대상에 대해 느끼는 시인의 선입견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까닭 모를 불안감이라고 해야 하나.

나의 첫 출근에 떠오른 술한 감정들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앞서 이야기했듯 당시 나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피폐해있었다. 아이들을 만나게 되리란 기대감은 이미 복지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덧칠돼 있었다. 센터 내에서 벌어질 천만 사건들(?)을 피해의식이라는 도화지에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건드리기만 해 보아라, 별에게만 침이 있나, 내 햇바닥에도 하나 있다, 이런 못된 심성이 눈앞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센터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버겁게 느껴진 이유가 단지 체중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시설 관계자분들과의 짧은 면담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아동 학습에 투입(복무 시작 후 얼마간은 투입으로 인식했다. 지금은 만남으로 인식하지만 적어도 당시에는…….)되었다. ‘적당히, 요령껏’이라는 구호가 교실까지 따라 들어왔다. 처음 만난 이 시키면 아저씨를 아이들은 꼭 들녘의 허수아비 보듯 했다. 나도 허수아비이고 싶었다. 소집이 해제되는 그 날까지 허수아비이고 싶었다.

그 순간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가 곁으로 다가와 두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세요?” 꿀밤이었다. 꿀밤도 보통 매우 꿀밤이 아니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은 나만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되레 아이들 쪽에서 그 말이 나오니 한동안 명할 수밖에 없었다. 별거벗은 임금님의 클라이맥스처럼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건 왜요?” /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얼마 안 있으면 또 가시거든요.” 저 말 한 마디 속에 그간 아이가 겪었을 헤어짐에 대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농축돼 있었다. 아니, 응축돼 있었다. ‘(……) 그 나무는 아마 /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떠안아야 할 상처는 내게 큰 그늘이 될 것으로 보였다. 되도록 피하고 싶었다. 멀리 멀리 지나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이 들어오자 단단히 수리해둔 내 마음의 성벽에 금이 찍 가기 시작했다. 하이테거가 말했던가. 어차피 우리는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내게 주어진, 예상도 못했던 2년여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사회복무. 이것을 훌륭히 완수하리라 확신은 못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는 해 주어야 도리 아니겠나 싶었다. 나는 이 인연의 끈을 보다 세계 붙잡고 아이들과 발맞추어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 수천의 빛깔 : 오해에서 이해로

마음먹은 대로 즐기게 실행에 옮겨 길이 나고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작심삼일이면 썩 괜찮은 성과라는 것이 내 평소의 소견이다. 삼일이 뭐가. 삼십 분도 계속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보통사람의 속성이고 나 또한 보통사람 아닌가. 충충한 아이의 눈을 보며 다짐했던 사회복지무요원로서의 자기 헌신성은 출근이 거듭될수록 어찌 시뻐해졌다.

확실히 첫날에 비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면 첫날 충격적인 질문을 받은 이후 줄곧 녹색등 상태였다. 문제는 조화에 있었다. 아이들과의 양상בל을 이루기 어려웠다. 제 시각에 센터 등원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학습 하라고 했더니 문제집 귀퉁이나 찢고 있고. 게다가 그들의 달아나는 숨씨란 지진 해일조차도 맥을 못 칠 수준이었다.

아이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데서 오는 답답함은 어느새, 또다시 나를 뚫한 가게 주인 모양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단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시는 그림 같은 점심, 나는 울적한 기분으로 한 단출한 카페에 들어가 홀로 앉았다. 유리창 너머 빗물에 자꾸만 고개를 숙이는 꽃잎들이 보였다. 저마다 다른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고운 빛깔과 매끈한 표면이라는 공통점만 빼면 그야말로 제각각이었다. 문득, 이따금 추억하던 시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한 구절이 다시금 입에서 솔솔 새어나왔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혹시 그간 내가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희망 기준만 들이민 건 아닐까. 성품도, 기질도, 심지어는 식습관까지도 제각각인 아이들을 깎아놓은 알밤 진열하듯 대했던 게 아닐까. 그에 놀란 아이들이 방어적 차원에서 청개구리 소리를

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솟구쳤다.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만으로 ‘너 복숭아나무지? 내 그럴 줄 알았다.’와 같은 편견 그득한 태도로 일관해온 나였던 셈이다. 센터로 돌아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그간의 일들을 비교적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되짚어보았다. 빛속에서 보내온 꽃잎들의 메시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연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이 녹아든 시의 탁월함 덕분인가.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아이들을 채우려는 시도가 있었던 날, 센터의 웃음소리가 한층 더 선명해짐을 느꼈다.

“선생님,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주세요. 지금 그대로를 보듬어주세요.” 근무지에서 꼭 선생님이로 불러주시는 - 학생, 청년, 회원님, 주임님……. 무수한 호칭 속에 지내왔건만 선생님이라 불리면 아직도 어색하지만 - 센터장님의 이야기. 그게 쉬운가 하고 시큰둥하게 들었던 위 이야기가 꿈 하고 마음의 밑동을 울려왔다.

나오며

다시 시로 돌아가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참 오래도 걸렸다. 복숭아나무 결으로 가는 시인의 길만큼이나 내가 아이들에게 가는 길도 그리 기록하지는 않았다. 도롱뇽 알 구하기도 여의치 않은 이 시대에 아이들의 마음을 구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출근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 서서 마음을 비우자, 그래야 그 속에 아이들을 왜곡 없이 채울 수 있다, 하고 수차례 다짐했다. 말하기보단 들어주고, 지시하기보단 공감해주자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아이들을 공감하는 데에는 매일 아침 묶는 구두끈처럼 바짝 조인 긴장감도 필요했다. 물론 앞서 나온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혹 예전의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진 나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렇게 소금누룩을 열 번 정도 만들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 나 자신, 이제는 아이들과의 경계선 없는 만남을 지속하고 있던 느낌이 든다.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아이들과의 호흡의 장場인 복숭아나무 그늘, 아니, 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을 근무 두 단어로 표현하기에 깨끔한 감은 있다.)하다니.

계획에도 없었고, 상상에도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며 아이들과 다시없을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직분이 만들어진 취지에도 맞고 또한 순리라고 믿는다.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에 큰 지침을 내려준 소중한 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오후 한 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돌계단, 첫 출근에 더할 나위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올랐던 그 계단에서 아이들의 경쾌한 발걸음이 들려온다. 그 발걸음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로 나를 울고 웃게 해주려나. 훗날 내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지금과는 또 다른 무엇으로 살아갈 때, 이따금 이 발걸음 소리를 추억의 가방 속에서 꺼내보고 싶을 것이다.



동행

이 동 현 |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나의 하루

나는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다. 처음 사회복지요원 체험수기 공모 소식을 들었을 때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 곳에 크게 내세울 만한 공을 세운 적도 없을뿐더러, 글 쓰는 데는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이 내 생각을 바꾸게 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센터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이라 하면 하나같이 측은한 마음으로 격려를 건네곤 한다. 겪어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물론 나 또한 이 센터에서 1년 하고도 5개월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기 전에는 그들과 비슷한 생각이 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이 조금 아플 뿐이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만큼 나를 아껴주셨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어떻게든 보답해 드리고 싶었다. 체대 입시 시절 다친 허리를 잡고도 삼수는 안 된다는 의지로 무리한 운동을 지속해서 일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허리로는 육체적인 도움을 드리긴 힘들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손자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 정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었다.

또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나의 하루를 소개함을 통해 사회복지요원뿐만 아니라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 해서 감히 몇 자 적어보려 한다.

센터의 붐비는 아침

이른 아침 센터의 정적을 깨며 울리는 전화, 곧 도착합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지하주차장으로 어르신들을 맞으러 간다. 늘 똑같은 미소, 똑같은 말로 아침 인사를 건네면 어르신들은 항상 반가운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신다. 센터에 올라와서도 이어지는 어제와 같은 아침.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이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어제와 같지만 새롭게 시작된다.

센터의 아침은 신문을 읽는 어르신의 목소리, 허리가 아파 앓는 어르신의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마당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모여 센터를 붐비게 만든다.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붐비던 아침이 잠시 멈춘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둥글게 둘러앉거나, 어르신들 자리에 앉아서 진행한다. 이 시간 나의 업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다.

오늘은 실버체조 시간. 어깨가 아파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동작을 따라 하고자 하는 모습, 본인의 건강한 신체로는 이 정도 쯤이야 가볍게 소화한다고 자랑하듯 큰 동작으로 따라 하시는 모습 그

리고 땀까지 흘려가며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는다. 둥글게 둘러앉아 앞의 강사님을 열심히 따라 하시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 보면 귀엽게 보이기까지 한다.

사진을 다 찍고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어르신 옆에 앉는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신다. 눈을 보고 웃어드리면 말없이 웃음으로 되받아 주신다. 곧 100세를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손이지만 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처럼 너무나 따뜻하다. 조용히 손을 내드리고 있자면, 내 손을 더듬거리는 주름진 손등이 보인다. 세월에 주름진 그 손이, 그 웃음이 나에게 ‘내, 이 머리로 너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 손으로, 이 가슴으로 너를 기억하겠노라.’ 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괜히 몽클해져 주름진 손을 더 짹 잡아드렸다.

센터의 여유로운 오후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점심시간에도 우리 할머니들의 ‘손주 사랑’은 계속된다. 지나가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점심은 먹었는지 물어보신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느껴져 늘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힘차게 대답해드린다.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시는 표정이다.

요즘엔 날이 풀려 기분 좋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근처 개천으로 산책을 나간다. 평소에 늘 지나가던 곳이지만 한 번도 주의 깊게 본적 없는 길을 어르신들과 걸음을 맞춰 걸으니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고, 풀이 보이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였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 가만히 햇빛을 맞으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옆에 계신 어르신도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 센터에서 과묵하시고 잘 웃지도 않던 어르신은 얼굴에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 날아가는 새들에게 장난을 치며 신나하신다. 젊었을 적

성악을 전공하신 어르신은 그 시절 실력 어디 안 갔다며 목소리로 아름다운 선율을 그리신다.

센터 앞 5분 거리에 개천에서 산책을 하시며 어린아이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르신들은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손잡고 500m도 안 되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옆에 앉아 밝게 웃으며 손을 잡아드리는 것처럼 작은 관심으로도 행복하게 헤드릴 수 있었다. 사실, 마음속으론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외출의 아쉬움과 작은 다짐을 가지고 센터로 돌아오면, 늘 밖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활동적인 여자 어르신의 질문들이 나를 반긴다. “어디 댕겨왔어?”, “저번에 나갔던데 간 거야?” 질문들엔 본인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 서운함이 섞여있는 듯하다. 준비된 간식을 드리며 별거 없었다는 듯이 저번에 어르신이란 다녀온데 다녀왔다고 대답해 드린다. 그러면 또 본인 간식을 나에게 건네신다. 서운한 가운데 손자 먹을 거는 챙기셔야 하나보다. 할머니들의 ‘손주 먹이기’ 작전은 내가 배가 터져 쓰러질 때까지 이어지는 듯하다.

추억의 음악시간

간식까지 먹고 나면,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음악시간이라 피아노를 준비하고 소고, 리듬 스틱, 핸드 벨 등 학창시절 교실에서도 보기 힘든 악기를 꺼내 놓는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이 악기들을 다룰 수 있을까 했었다. 하지만, 내 의심을 비웃듯 어르신들은 서툴지만 ‘짚레꽃’, ‘번지 없는 주막’ 등 다양한 노래를 연주하셨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상적인 대화도 거의 불가능하신 한 남자 어르신이 노래를 들으시며 옛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을 흘리셨다. 놀라운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몸이 불편해도, 당장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

지 기억이 안 나도 그 시절 노래 몇 마디에 눈물이 나는 똑같은 어르신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구성된 트로트 가락이 오늘 따라 더욱 슬프게 들렸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어르신들과 웃고 떠들며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면 어르신들 덕분에 내가 좋았던 기억이 더 많다. 어르신들 덕분에 길을 걸으며 주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배웠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럴 때면, 처음 이곳에 오기 전 치매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른다.

앞서 말했듯이, 다들 치매 어르신이라 하면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등 좋지 않은 모습만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겪은 어르신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본인 감정에 더 솔직하셔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었다. 그 순수하고 인자한 웃음을 보면 따라 웃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화가 많은 어르신도 계시지만, 그것 또한 치매라는 병 때문에 그런 것이지 평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이 글을 읽는 이도 조금이라도 치매 어르신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이해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회복지무원으로서 어르신들 요양과 사무 보조를 업무로 이곳에 배정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치매 어르신들과 생활이 적응하기 힘들고 낯설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손자처럼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아침 출근길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설레면서도 편안하다. 어르신들의 일생에 비하면 짧은 2년이지만, 함께 있는 동안 나로 인해 참 행복한 2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지만 큰 바람을 가지고 매일 아침 20여 분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센터로 간다.



나는 다시 내가 되었습니다.

강 경 석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정말 잘하고 싶었다. 내가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라는 가족과 친구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부대에서 정말 열심히 생활했다. 추운 겨울 훈련소에서도 후반기 교육에서도 감투를 쓰고 훈련과 주특기 공부에 노력을 다했다. 훈련병과 교육생 시절 모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여러 상장을 들고 축망받는 신병이 되어 철원에 있는 부대로 전입을 갔다. 그리고 상병으로 진급하던 달, 난 사회복지무요원이 되어 다시 사회로 나왔다.

저는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던 포병 학교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해 표창을 받고 싶은 마음에 다친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대에 전입 가서는 나쁜 첫 인상을 보일까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친 팔을 부여잡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통증을 참아오다 첫 휴가 당시 민간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루빨리 부대원들에게 인정

받고 싶어 더욱 무리하였고, 3주 정도 깃스를 하면 나올 것이라는 팔은 5개월이 후 인대와 연골에 손상이 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팔은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재활과 요양을 위해 군 병원에 입원한 두 달 동안 정신적으로 약해졌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체중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퇴원 후 군 생활이 더 이상은 힘들다는 의사를 행정정보관님에게 말씀드리고 중대장님 대대장님 연대장님 차례로 면담 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힘든 기억이 많지만,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아파해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던 분들은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시며, 전역 후 회복이 잘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요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걸음을 기다리던 시간

전역 후 다시 한 차례 수술을 받고 사회복지요원 소집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러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요원이 되어 병역의무의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의 근무지는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교육을 받을 당시 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친구에게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같이 일하게 될 분들은 좋은 분들인지 걱정이 돼 푸른 하늘도 우중충하게 보이고 제 시야에서 모든 배경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저의 담당 주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담당 주사님의 소개로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분들과 첫인사를 하였습니다.

직원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대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고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수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마음에 자리났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요원이 되었습니다. 근무지에서 사회복지요원은 혼자라, 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상대로 진행하는 행사를 도와 김장을 하고 노인정으로 야채 배달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쌀과 라면 상자를 나르기도 하고 홍수나 침수를 대비해 양수기를 점검하고 반출하기도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에는 통지서를 배부하고 훈련 참석 수령증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꽃이 담긴 화분을 나르며 심기도 하고 어린이들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옥상에서 일일 텃밭 체험을 진행하며 상추 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일 체험 선생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방위, 청소 및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님이 저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주로 그 업무들을 보조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이나 장마, 폭설 기간을 제외하면 청소 민원 처리 업무가 제일 많았습니다. 부평구에서 제일 변화가인 구역이 관내이기 때문에 청소 민원이 많은 편인데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쓰레기더미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도로 청소는 미화원분들이 하시지만, 민원 해결이 급한 경우는 청소 장비를 챙겨 담당 주사님과 도로 청소를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만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러웠던 도로나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쌓이던 지역이 깨끗하게 관리될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보조하다 보니 미화원분들과 재개발구역 이주 쓰레기를 정비하기도 하고 무단투기 된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더미들을 트럭에 싣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버리는 조대작업이라는 것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청소 민원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보니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정비를 하는 미화원분의 노고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청소 업무가 고되긴 하지만, 저의 노력으로 부평5동이 조금이나마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행정복지센터 건물 옆에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에 매일 파지를 리어카 한가득 싣고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의 리어카 문제로 민원이 하루가 멀다고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인도에 파지와 리어카를 보관하셨는데 좁아진 인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것입니다. 등하교 시간이면 좁아진 인도 탓에 도로를 통행하는 아이들과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인도가 좁아지니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할머니에게 리어카를 옮겨 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 할머니의 리어카는 그 위치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와 담당 주사님은 민원 해결을 위해 할머니에게 여러 번 찾아가 자리를 옮겨 달라,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파지를 모으는 건 할머니의 생업이고, 연세도 적은 편이 아니셔서 강제로 리어카를 옮기면 할머니가 받으실 충격이 염려되어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도 중요했기 때문에 리어카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당 주사님과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나갈 준비를 하던 중 담당 주사님은 급한 업무가 생기셨습니다. 주사님께서 급한 업무를 해결하러 나가시며 혼자 할머니를 설득해보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위험한 도로에서 아이들과 할머니가 혹시나 다칠까 걱정이 되어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왔습

니다.”라고 인사한 후 설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파지 정리를 도우며 “할머니! 오늘은 박스 많이 모으셨네요.”라고 하며 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씩 건네며 할머니와 대화를 시작했고 할머니는 늘 건너편 슈퍼마켓에서 파지를 받아오셨고 가까이 리어카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리어카를 두신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자칫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박스와 리어카로 좁아진 도로 위에서 차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할머니도 일하실 때 위험해지시고요.

파지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가시면 할머니도 아이들도 다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주민들도 위험한 도로에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이동하시기로 하셨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리어카를 근처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급한 일을 마치신 담당 주사님은 리어카가 옮겨진 소식을 듣고 제게 고생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주민, 할머니 모두에게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할머니와 마주치면 웃으며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파지 많이 모으셨어요?”

미소를 주고 미소를 받았습니다.

저의 친절한 말투나 배려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들의 기쁜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와 내 오늘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도우면 돌아오는 미소와

감사의 표현은 저를 활기차게 하였고 자신 있게 먼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팩스나 복사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약자와 외국인들을 도왔습니다. 더 나아가 홀로 타지에서 이사 와 쓰레기봉투 판매처를 모르시는 어르신을 댁 근처 슈퍼마켓까지 모시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 저와 주민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용기는 회색빛이었던 제 시야를 푸르게 만들어줍니다.

전역하고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기 전, 저는 아무것도 할 수도 하지도 않았고, 복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어렵고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더라도 다시 묻고, 다시 노력해서 마무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의 노력으로 사회복지요원의 전체적인 인식과 처우가 개선된다면, 사회복지요원들은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다시 너를 찾았니?”라고 묻는다면 “예! 다시 나를 찾았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하며 다시 일어나는 방법과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등불’로 산다는 건

조수연 |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루 평균 이용객 10만 명. 따라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연간 3천만 명의 이용객을 자랑하는 이곳은 우리나라 철도의 중심 서울역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이유는 매일 100편이 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가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서 저는 “저기요!” “아저씨” “학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상황에 따라 자녀를 보기 위해 상경한 할아버지의 손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좋은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의 손을 놓쳐 버린 아이에게는 든든한 사촌 형으로 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서울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저는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센터에서 복무 중인 조수연입니다.

복무기관, ‘철도경찰’과의 첫 만남

2018년 2월 14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던 중, “핑동” “핑

등” 하는 초인종 소리가 수차례 들렸습니다. “택배 왔나?”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더니, 우체국 집배원이 작은 편지봉투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병무청. 내용은 사회복지요원 소집통지서였습니다.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직관(직접관람)하기. 가방 하나 메고 무작정 평창으로 떠났습니다.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봅슬레이 경기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웠던 봅슬레이 관람.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기억하고 싶어 대형 반다비 인형부터 수호랑&반다비 인형 선물세트, 컬링 쿠션까지 기념품을 한가득 구매했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겨우 진부역에 도착했고, 서울행 KTX를 탑승하려 발걸음을 재촉하는 찰나 “잠시만 이리 와주시겠어요?”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문도 모른 채 “네”라고 대답했고, 어느덧 보안검색대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해를 구하고 제 짐을 보안검색대에 통과시켰습니다. ‘하필 수많은 사람 중 나일까?’ ‘내 모습이 험상궂게 생겼나?’ 나를 의심 인물로 생각해 검사한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나만 검사해요?”

그러자 철도보안검색은 무작위로 시행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대답이 들려왔고, 저는 짐을 챙기며 “인형밖에 없는데 뭘 검사한다고 그래요”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철도경찰이라, 철도경찰...’.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항의해야지’라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추억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던 힘이 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 하던 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철도경찰인지 모르고 서울센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쳐다보는 수많은 눈동자. 눈동자 속 누군가와 깊게 눈을 맞췄고,

저는 들고 있던 사회복지무요원을 안내문을 툽! 떨어트렸습니다. 진부역에서 봤던 철도경찰이 서울센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다름 아닌 ‘보안검색’

다행히 그 철도경찰은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슬쩍 떠보니 진부역에서는 잠시 지원 근무를 나갔었다고 하네요. 속으로 ‘참 다행이다’를 외치며 떨어트린 문서를 주웠고, 첫 출근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부여받은 업무는 ‘보안검색’. 진부역에서 항의했던 제가 보안검색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역의 보안검색은 진부역에서 겪었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보안검색은 불특정다수의 철도 이용객 중 무작위로 선별해 이뤄졌는데요. 보안검색을 자주 겪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흔쾌히 보안검색에 응해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보안검색은 비행기 탑승할 때만으로 굳어진 인식 탓에, 보안검색을 요청하면 예민하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보안검색 해요?”라고 말이죠.

보안검색에 대한 불만은 항상 사회복지무요원에게로 왔습니다. 사회복지무요원 만만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보안검색을 요청할 때 어르신들은 “사회복지무요원이 뭘 안다고 그래!”라고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고, 중년 부부는 “너네 뭐하다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왔어? 어디가 안좋아?”라고 사생활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며 보안검색에 대한 불평과 민원을 응대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는 속담을 곱씹으며 친절히 보안검색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설명과 함께 이해했지만, 일부는 욕설과 함께 “민원을 넣겠다”며 자리를 박차기도 했습니다.

보안검색을 받았을 때는 저런 목소리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역지사지로 직접 보안검색을 해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철도안전을 위

해서 필요하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힘들었던 보안 검색. 철도안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마음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순조롭게 진행되던 보안검색은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해 전문인력으로 변경된 후, 서울역 순찰지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서울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이용객들의 민원이나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과 민원을 받지만, 아직도 마음속 깊이 큰 울림을 주는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에 온 어르신. 서울역의 웅장한 모습에 넋 놓은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모습에 “혹시 누구 찾으세요?”라고 말하며 다가갔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제 손을 덜컥 잡더니, 아들 녀석을 만나기로 했다며 아들이 어디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며 아들을 꼭 만나야 한답니다.

혹시나 해서 어르신의 스마트폰으로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아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다급하게 어르신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서울역”이라고 했더니, 아들은 당황하며 어르신의 병명을 말해줬는데요. 어르신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습니다.

난감한 상황. 어르신은 “아들은 어딴냐”고 찾고, 아들은 회사라 서울역으로 갈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며 아들을 기다렸고, 급히 서울역으로 온 아들은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양했음에도 끝끝내 손에 쥐어준 작은 음료수 하나. ‘사회복무는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사회복무를 하며 가장 뿌듯했던 때는 지난달 5월 어린이날 연휴

를 앞둔 금요일. 마치 슈퍼히어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여행 온 아이가 그만 부모님 손을 놓고 말았던 것. 서울역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헬레벌떡 센터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수소문하며 찾았습니다. 30분 넘게 찾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항철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설마 공항철도까지 내려갔겠어?”라고 생각하며 공항철도까지 수색한 결과,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훌쩍훌쩍 울며 부모님을 찾았던 아이.

일단 아이를 달래는 게 급선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이윽고 부모님이 공항철도로 뛰어왔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누군가의 어벤저스 캐릭터 모양의 가방을 보고 따라갔던 것. 그 아이가 다시 제 손을 잡고 무사히 부모님 앞까지 왔을 때, 자신이 이른바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누군가의 ‘등불’

사실 저는 사회복지무를 시작하기 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성격에 내가 먹어야 하는 파이만 신경 썼고, 내 밥그릇을 건들면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배려와 나눔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만 가득했습니다. 또 매우 사나웠습니다. 귀찮은 일을 시킬 때면 성질부터 냈었습니다. 보안검색을 당했을 때처럼 말이죠.

서울역에서 보안검색을 위해 여행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았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8개월 후 정든 서울역을 떠납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시간 동안 보안검색부터 서울역 순찰까지, 서울역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역에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

구나...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말이죠.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됐을 때, 또 길 잃은 아이를 무사히 부모님에게 전달했을 때, 깨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업무를 전달받았습니다. 무사히 소집해제를 할 때까지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 어두운 길에 꼭 필요한 등불처럼 넓은 서울역에서 사회복지무요원의 친절한 안내가 이들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저를 보고 “저기요!”라고 부르겠지요. 그러면 전 밝은 표정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답합니다. 어둠 속 환한 등불처럼.



으디서 이런 이쁜 총각이 왔으까잉

김 영 응 | 패밀리요양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한 어르신, 그 어르신께 저는 매번 새로운 사람입니다. “으디서 이런 이쁜 총각이 왔으까잉”

항상 같은 질문에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같은 인사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저의 복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에서 울던 청년

어려서부터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리 통증, 혼한 성장통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평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 발은 군대를 갈 수 있는 평발, 다른 한쪽은 군대를 갈 수 없는 평발로 인해 4급 사회복지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사회복지원은 경쟁률이 꽤 높았고 눈치작전으로 특수학교, 아동센터 등 복무 요건이 좋아 보이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역시 그런 곳은 모두 경쟁률이 높아 탈락하였고 그해 1년을 기다려야 했기에 전공 관련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군필자와 미필의 차이로 정규직 일자리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제는 가장 지원을 많이 안 할 것 같은 곳, 교통편도 안 좋고 근무가 힘들 것 같은 곳, 집에서 비교적 근거리 중 찾다 보니 요양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두 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는 합격하였습니다. 패밀리 요양원으로 복무 결정이 된 후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었던 대도시 서울에서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접고 고향인 광주에서의 생활, 게다가 요양원이라니…….

인생의 무덤 같은 암흑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광주가 가까워질수록 더 슬펐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첫 대면

저희 요양원은 72분의 어르신과 50여 명의 직원, 3명의 사회복지원이 복무 중인 큰 규모의 요양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 강도 또한 어르신마다 다 다릅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어르신처럼 멀쩡하시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신 날만 치매 증상이 보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안될 만큼 치매가 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매일 같은 단어를 반복하시는 어르신, 틈만 나면 소리를 지르시는 어르신, 저를 자신의 손자로 알고 계시는 어르신,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달라고 하는 어르신, 사람을 보면 욱부터 하시는 어르신 등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젊으신 분이 우리 아빠랑 나이가 같으신 51세이시고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103세 어르신입니다.

복무 첫날부터 내가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곳에 떨어진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가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집안 분위기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곳 요양원의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손길의 따스함

저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업무는 목욕 보조였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수요일은 제외한 매일 아침 목욕을 하는데 이때 제 역할은 목욕이 끝난 어르신들의 머리를 말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머리도 말려 드려 본 적이 없는 저에게 무려 72분이나 되는 어르신들의 머리를 말려드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웃으며 한 분 한 분 인사를 건네며 태연한 척했지만, 꺼림칙한 마음에 내 손이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에 닿을까 봐 손을 사용하지 않고 빗으로만 빗겨드리며 머리를 말려드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르신들은 매번 제 손을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어르신들의 머리를 말려 드리고 받은 감사의 인사와 손길은 처음에 느꼈던 불편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고 점차 어르신들에 대한 제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서부터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던 어르신들 개개인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 분 한 분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72분의 성함을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드리며 인사하고, 항상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후에는 큰 리액션과 함께 대답하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고집부리시며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성대모사를 하여 똑같이 따라 하면 신기한 듯이 저를 쳐다보며 멈추기도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친근감이 생긴 어르신께는 젊은 시절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친절하게 자신의 고향에서 시작하여 결혼과 가정사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어느 소설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젊은 시절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리운 나의 고향……. 하시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향이 그리 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 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어르신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셨고 바다를 향해하며 물고기를 잡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시며 평소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가까워진 이후로 직원 선생님들께 요양원 체질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일이 재밌고 수월해질 무렵, 4박 5일의 복무 기본교육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가 보니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접했기에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주 동안 직무교육을 받고 복귀하니 이번에도 제가 없는 동안 한 분이 소천 하셔서 안 계셨습니다. 치매가 심한 편이었고 자나 깨나 아들 이름을 부르며 매일 자식 걱정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인사도하고 말씀도 나눴던 어르신이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생전에 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어르신께 말 한마디 더 해드릴

걸이라는 후회와 함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봤었던 이문구가 순간 떠올랐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 또한 시간이 지나 되돌아 봤을 때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다짐하며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기에 ‘가치’ 있는 곳

그저 늙어서 병든 치매 노인네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으로, 친구로,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살아내셨던 분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오늘도 당신들의 남은 삶을 당신들의 방식으로 견디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요양원에서 만난 제가 단지 사회복지요원만이 아닌 그분들의 마지막 가족이고 친구 일수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를 통해 인생의 성공은 돈이나 권력, 명예에만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20대를 살고 있지만 나의 30대 40대 그리고 노년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으디서 이런 이쁜 총각이 왔으까잉” 오늘도 매번 새로운 이쁜 총각은 어르신들의 값없이 주시는 웃음과 따뜻한 정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인생의 무덤과 같이 암담할 것만 같았던 사회복지 생활은 요양원에서의 소소한 행복 속에 내 인생의 눈부신 시간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꿈나라, 별나라

권 대 솔 | 제주시교육지원청 귀일중학교

제주 귀일중학교 사회복무요원 시각장애인 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며

솔샘

‘훈련소만 수료하고 보자 패스트 샴푸 매일 쓰고(머리가 빨리 자라난다고 함) 옷도 사고 벚꽃이 지기 전까지 여자친구를 만들 테야’

벌써 1년도 더 되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면 식상하겠지만 정말로 1년도 더 되었다는 게 신기하다. 작년 4월 초에 훈련소를 수료하고 나서 날이다. 수료식이 있는 날 군복도 벗지 않은 채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귀일중학교였다. 화장품 가게도 아닌, 미용실도 아닌, 친한 친구의 집도 아닌 바로 앞으로 나의 근무지였다. 무슨 이유였을까, 수료하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들떠있었나 여하튼 행정실에 들어갈 때 나의 표정은 당당했었다. 똑똑. 안녕하십니까. 방안에는 다

여섯 되는 직원분들과 한 학생이 있었다. 다들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뭔가 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그 학생은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는 정도였으니. 그리고 보니 그날은 금요일,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월요일부터 여기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지무원입니다. 수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이른 첫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날이 시작되었다. 나의 업무는 시각장애인 학생 도우미이다. 우리 학교에는 한 명의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다. 이름은 ○○○, 2학년 평범한 학생이다. 일반 학생들과 조금 다르다. 그저 앞이 잘 안 보일 뿐. 업무라고 보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한 분야로서 전문적이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월요일이 되는 날 전달받은 대로 잘 출근하였다. 등갓길이 아직도 생생하다. 뽀뽀 깎은 머리의 한 어른이 자기들과는 다르게 사복을 입고 정문을 거닐다니(난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것이다) 솔직히 아주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회복지무원들도 그랬을 것이다. 당연히 처음엔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 자리는 2학년 1반의 어느 구석의 책상이었다. 내 옆에는 ○○이의 자리였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새로 오신다던 도우미 쌤이구나~ 용훈쌤(선임) 동생이세요?’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빗발처럼 질문들이 쏟아지던 찰나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나와 눈이 마주치고 웃어주신다. 얼마 만인가 이렇게 다시 시끌벅적한 교실에 들어오는 것이. 학교에서의 하루를 담임선생님과 함께 조희로 시작하는 것이. 라고 생각에 젖어있을 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괜찮으시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러웠다. 뻘한 전개였지만 솔직히 준비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인사말과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등 아이들이 궁금할 이야

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앞으로 자주 보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
게 될 텐데 나는 이름이 대술이니까 편하게 술쌤이라고 불러줘’

‘...네! 술쌤.’

어디서 누가 대답한 소리였을까. 아무도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고 있
는데. 그 소리가 내가 앉아있던 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났다는 걸 깨달
았을 때는 나도 대답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 고마워 ○○아.’

귀일중에서 ○○이와의 학교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개교기념일

4월 8일은 우리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교내 백
일장 문화 행사가 열렸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많은 시간 동안 백일장 날 글짓기를 해봤기에, 물론 아예 귀찮아서
제출 안 한 적도 있겠지만, 그날도 그냥 별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다. 점
심을 먹고 나서 행사가 시작되는 5교시 때였다. 덩동덩동땡동땡동. 종이
울리자 일제히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갔다.

교실에는 나와 ○○이를 포함한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있었다. ‘○○아
개네 무사 나간 덴?’ ‘아 재네는 그림 그리러 운동장에 나가요.’ 가방에
점자 컴퓨터 한소네를 집어넣고 필통을 꺼내며 얘기하였다. 그러다 문득,
나 때는 담임선생님이 앞에 계신 교실 책상에서 고개를 숙여 묵묵히 글을
끄적였었는데... 참 지루했었는데..... 우리 학교는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자유시간 같았다. 5교시부터 7교시까지 아이들은 각자 글짓기, 시 쓰기,
학교와 관련된 풍경화 그리기 등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었다.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3층 교실 밖 복도에서
운동장을 보며 나는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누워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아이들,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학교의 모습을 한 폭에 담는 아이들, 둥그렇게 둘러앉아 각자 만든 시를 낭송하는 아이들은 마치 시민광장과 같았다. 내 눈에 비친 풍경화였다. 그 모습들 그 자체로 나에게는 백일장 문화행사였다. 우리도 질 수 없을세라. 나와 ○○이는 시 쓰기를 하였다. 대부분은 ○○이가 혼자 생각해와서 막힘없이 잘 써나갔다. 중간중간 내가 종결어미를 변화시켜준다거나 맞춤법을 고쳐준다거나 조미료를 첨가할 뿐이었다.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댄 그 결과! 아직도 기억이 남는 한 구절이 있다.

‘자유롭게 나는 새를 따라 수평선 너머로 가면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보물 제주, 제주는 내 마음속에 남아 영원하리.’

○○이가 얼마나 제주에 살면서 그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주에 대한 애정과 그의 삶의 에너지를 단숨에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이와 지낸 지 일주일 채 안 되었지만, 그 아이에게서 느끼는 것이 많다. ○○이는 옆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정말이지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었다. 반찬들의 위치만 알려주면 스스로 밥을 먹었다. 화장실이 몇 걸음 앞에 있음을 알려주면 스스로 볼일을 보고 나왔다. 교과서를 보지 못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꾸준히 예습하고 수업한 내용을 복습한다면 전교 20등 안에도 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보이지 않음에도 노력한다면 할 수 있음을 나에게 보여줬다.

수학여행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3박 4일 동안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있었다. 수학여행을 가기 몇 주 전부터 나의 복무담당 선생님이 나에게 수학여행을 ○○이와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나의 대답은 Yes였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이는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될 거고, 크게 실망할 것이다. 만약 내가 아니라 다른 복지기관의 외부 선생님이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이가 불편해했다. ○○이와 나는 항상 통해있었다. ○○이의 어머니의 역할도 한몫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 편이었다. 그리고 현명하셨다. 자칫 나를 어색해하셔서 나의 복무담당 선생님을 거쳐 나와 연락을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건데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거리낌 없으셨다. 오히려 ○○이가 원하는 것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나와 먼저 의견을 나누셨다.

우리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웬걸, ○○이에게 중이염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 중이염은 귀에 기압이 높아지면 치명적이라고 들었는데... 하지만 내가 내심 걱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듯이 ○○이는 귀에 헤드셋을 덮고 물을 자주 마시게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의연했다. 승무원의 도움과 ○○이의 노련함으로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수학여행 일정은 순조로웠다. 무난한 동선과 맛있는 식사 그리고 넓고 멋있는 호텔 방까지 거의 모든 학생이 만족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의 기대주는 놀이공원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도 기대를 많이 했다. 다른 박물관이나 체험관에서는 나와 ○○이 단둘이서만 다니게 되는 시간이 많았는데 놀이공원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 ○○이는 더욱 즐거워 보였다. 점심을 먹고 이제 무슨 놀이기구를 탈까 하다가 다 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이 바로 T-express 롤러코스터였다. 그런데 ○○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었다. ○○이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렸을 적 시력이 남아있을 때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다는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롤러코스터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다. 어머니도 롤러코스터는 타기 힘들 수 있다고 반신반의 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주고받고 있었다.

‘ 쌤! 저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지금 안타면 후회할 거 같아요.’

○○이가 말했다. ○○이 말이 맞았다. 나도 ○○이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뭐든지 도전해보고 싶었다. ‘기? 하긴 롤리코스터 타고 뭐 설마 죽기라도 하겠, 난 그런 거 텔레비전에서도 못봤져. 우리 무서우면 같이 소리라도 꺽꺽 질러볼게이.’나는 태연한 척 말했다. 하지만 내심 불안한 건 사실. 정말 심장에 무리라도 가는 게 아닌가 겁이 불쑥 나긴 했다. 한 시간이 넘는 긴 줄을 기다린 끝에 롤리코스터에 앉아 안전바를 확인하고 드디어 출발. 아 하늘이 파랗구나. 옆을 보았다. 살짝 겁먹은 듯한 ○○, 그래 너도 겁은 먹는구나. 드디어 하강…! 하자마자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웬걸 처음에만 무서워하더니 나중에는 제대로 즐기더라……. 후유증으로 멍해 있는 나와 다르게 ○○이는 한 번 더 타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난 겁이 많다) 얘기를 주고받았다. 정신 차릴 겨를 없이 다음은 호러메이프로 향했다. 호러메이프는 쉽게 말하면 공포 담력체험이다. 언제 귀신들이 나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한 줄로 걸어 탈출해야 한다. 너도 여기서 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옆에서 튀어나오는 귀신분장의 사람들 때문에 내 앞에 가던 ○○이의 어깨 뒤에 소라게 마냥 숨어버렸다. 그런데 맏소사 ○○이가 실실 웃고 있는 게 아니던가?

‘쌤 저는 귀신이 보이질 않아서 하나도 무섭지가 않네요’

참 어이가 없더라. 그 와중에 귀신들 때문에 나는 계속 깜짝 놀라고, 그런 내 모습에 ○○이는 좋아 죽더라.

재밌고 기가 막힌 하루 끝에 우리는 잘 준비를 마치고 같이 침대에 누웠다. 서로의 가족 얘기도 하며 좋아하는 가수들 쿤, 잔나비 등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 갑자기 나는 장난기가 올라 ○○이의 옆구리를 간지럽혔다. 이윽고 작은 몸싸움이 시작됐다. 옆치락 뒤치락, 내가 항복할 때까지 웃음이 계속되었다. ‘나도 남동생이 있으면

○○이처럼 같이 놀면서 참 좋을 거 같아’. 내 생각도 잠시 조그마한 정적이 흐르고 나서 ○○이가 말했다.

‘쌤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즐거워요.’

짧은 두 마디가 마음을 울렸다. 처음 수학여행을 가기로 한 것도 솔직히 ○○이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나의 욕심도 많았다. 남들에게 자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테니. 지금 한 아이가 나로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고마움에 표시했다. 단순한 업무적으로 책임을 다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다름, 행복으로 실천하는 동행

날이 꽤 춥다. 학생들이 동복을 입고 다닌다. 담당 복무 선생님께서 나에게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이란 게 있다고 말해주셨다. 처음 듣자마자 나는 흥미를 보였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기도 했고 평소에 발달장애인 분야에 관심 있었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에 틈틈이 고민하는 도중 나보고 뭘 하고 있냐는 ○○이의 질문에 표어를 짓고 있다고 했다. 이때 ○○이가 생각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내린 요지는 이러했다.

장애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물론 비장애인들과 다르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 대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처럼.

나는 시야를 좀 더 넓혀 우리 사회복지무요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복지무요원은 어쩌다 몇몇 이들에게 어디가 아파서 온 사람들, 남들 고생하는데, 혼자 편하게 군대 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유가 있어 온 것이고 각자 나름의 역할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

고 싶다. 또한, 현역들과 우리 사회복지무원들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각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누가 편했냐 따질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름은 이해했을 때 우리는 서로가 행복할 것이다.

위의 문구는 작년 12월, 제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추진했던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에 제출했던 표어다. 운이 좋아 그때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미 시상식도 하였고 그냥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저 표어를 생각하기까지 사회복지무원 기간이, 다시 말해 ○○이와 지냈던 시간이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정말 사회복지무원으로 지내지 못했더라면, ○○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말이다.

꿈나라, 별나라

어느덧 벚꽃이 폼을 때 왔던 나는 다시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모두 보고 나서 5월을 맞이하였다. 5월은 학교에서도 일정이 꽤 많은 달이다. ○○이도 3학년이 되고 나서 첫 중간고사를 잘 마무리하였다. 시험도 끝난지라 아이들도 많이 들떠있었다. 나와 ○○이는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었다. ‘애들아 이거 15일까지 적어서 모아줘’. 어느 날 학생자치회에서 선생님들께 롤링페이퍼를 적으라며 큰 종이를 던져두고 갔다. 알고 보니 곧 스승의날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날은 중요한 행사이다. 전 교사와 행정실 선생님들까지 불러들여 전교생들과 함께 스승의날을 축하한다. 스승의날 당일에 우리는 작년처럼 체육관에 모여 미리 카네이션 전달 연습도 하고 준비를 했다. ‘술쌤도 저기 가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앉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자리를 가리키며 우리 반 애들이 말한다. 내가 무슨... 그럼에도 작년 A4용지에 아이들이 적어준 롤링페이퍼 하나를 받았는데도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

던 기억이 난다. 스승의날 행사가 시작되고 호명하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 앞으로 나가서 상을 받는다. 이번에 자치회에서 특별히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상을 주는 참신한 시간을 기획했다. ‘○○○선생님, 얼굴은 20대 상. ○○○선생님, 더는 없다 요요현상.’ 재치있는 상 이름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권대술 선생님……. 우리 곁에 항상.’ 나에게도 상을 줄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 했기 때문에 많이 당황해서 주뻗주뻗 나가는 모습. 그래도 기분은 좋아서 미소가 흘러넘치는 나의 입가. 마지막에 카네이션을 달아 줄 때는 눈가에 눈물이 팡……. 뒷얘기를 들어보니 학생자치회에서 그리고 자치회담당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나도 받아야 할 상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간 ○○이를 위해 보여줬던 당당한 모습과 쉽지는 않은 일을 하면서 항상 밝은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가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모습,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꾸준히 운동장을 돌고, 록 밴드 동아리에 가서 연습하고, 체육대회 이인삼각에 출전하고, 학교에 작은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신청하는 등 그런 모습들이 다른 학생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는 끈기. 이것들만큼은 내가 ○○이한테 배우고 싶은 점이다. ‘선생님 드릴 게 있어요’ 스승의날 행사가 끝나고 ○○이가 말했다. 그것은 편지였다. 한눈에 봐도 과하지 않게 꾸밈없는 ○○이의 모습 그대로 편지가 동봉되어있었다. 다음은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안녕하세요 저 ○○이에요. 선생님과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어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학여행이 한 몫 한 것

같네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사랑이라는 두 글자 단어의 진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를 함께 다니며 있었던 모든 시간이 소중한데요. 가끔 수학여행이 아니라 단둘만의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에 나오는 가사 중 ‘바다 건너 꿈에서만 그리던 별보다 따뜻하다는’ 꿈나라로 같이 한 번 다녀오지 않으실래요? 선생님의 대답을 기대하며 편지를 마칠게요. 건강하게 남은 1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보내요. 쌤 사랑해요.

편지를 본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꿈나라로 얼마든지 가자, 나도 사랑한다 ○○아’



마음을 통(通)하다

박 재 완 | 봉개지역아동센터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의 가치

① 사회복지무원으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다

지금은 벌써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를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 판정이 나왔을 때의 감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때의 기분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쌍둥이 동생도 장교로 멋지게 군 생활을 마쳤으며, 저 역시도 장교를 꿈꿨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멍 해진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저는 2018년 2월부터 사회복지무원으로서 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25명의 새로운 친구'를 만나다.

훈련소에서 까까머리로 나와 바로 그 다음날, 송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회복지무원들이 4명이 있었고, 업무분담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게 된 역할은 복지관 안에 '장애인직업재활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실'은 정신지체장애인분들이 아침9시부터 5시까지 생활하시고 단순조립과 같은 작업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제가 처음 장애인직업재활실에 들어오자, 갑자기 장애인이용자분들의 환호성을 들려왔습니다. '잘생겼다!', '누구세요', '선생님이에요?' 등 화끈한 리액션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에 매우 당황스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만나자마자 저보고 잘생겼다고 해주시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제게는 참 듣기 어려운 말인데 말이죠. 이렇게 저는 하루만에 25명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선생님?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는 장애인직업재활실의 선생님이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곳에 계신 25명의 성인 장애인이용자분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25명의 이용자분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나이가 다양했습니다. 일단 그들은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고 중증정신지체 장애인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재활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재활실의 문화에 조금씩 적응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용자분들과 제가 친하게 지낼 수 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용자 분들 중에는 저와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쑥스러워 하는 분도 계셨고 아는 척 안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우선 그 분들의 이름을 빠르게 외웠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드렸습니다. ‘○○씨~ 오늘 기분좋아요?’, ‘○○씨~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저와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이용자분들은 저를 늘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큰 사고 없이 지냈습니다.

● 들의 선생님보다는 ‘친구’가 되기까지

그분들과 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볼링게임, 댄스교실, 요리활동 등 이용자분들과 저는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초기에는 저는 제가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오해였고 오만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들과 생활을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분들이 하기 힘든 작업활동을 도와드리고, 싸움이 일어날 때 화해를 유도하면서 선생님역할을 수행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그 분들도 제 이런 모습에 고맙다며 커피를 타주시기도 하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빛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대강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직업재활실이라는 공간에서 저는 그들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저와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서로 ‘통(通)’하게 됩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평상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였으니, 제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 이제는 피아노교실로!

직업재활실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신체등급판정 사유인 ‘목디스크’ 증

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들기에는 무리가 와서 직업 재활실 관리업무를 그만두고, 결국 기관4층에 있는 피아노교실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울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활발했습니다.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일 관리하고 학습시키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늘 하시던 ‘쉬운일은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칠 때,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마주보고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맑은 미소가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어 하루하루가 행복해져갔습니다. 간단한 청소를 할 때도 아이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웃고 뛰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업무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이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업재활실과 피아노실에서의 업무 둘 다 제게는 남들은 모르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었고, 일상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요원으로서 복무를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준 것보다 제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음을 이제야 체감합니다.

갑작스런 제주로의 이사와 근무지변경

: 봉개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다

송림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저희 가족은 제주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제주도에 소재한 ‘봉개지역아동센터’에서 약

8개월 동안 남은 복무를 제주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주소지 이전으로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지만, 제주병무청 공무원 분들의 도움으로 문제없이 제주에서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봉개지역아동센터에서 성실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운 좋게도 봉개지역아동센터는 분위기도 저랑 잘 맞고 같이 근무하시는 센터장님과 복지사 선생님들이 친절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두 번째 생활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동들과 친해지기

저는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는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순수함이 녹아있습니다. 특별한 얘기를 아이들과 나누는 것은 아니어도 저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도 제주도의 공기처럼 맑았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이제는 '선생님, 선생님'하며 잘 따라주니 기특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센터의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응, 선생님이라 공부할까

봉개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기초수급자가정, 다문화가정, 한 부모/재혼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의 환경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잠깐 보면 모르지만, 오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마음의 상처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가 적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러한 문제를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5월말에 센터장님께서 중학교1학년인 남자아이를 1:1로 가르쳐줄 수 있냐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의 사회복지무원 복무를 멋지게 장식할 보람된 일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와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가정의 환경변화와 넉넉지 않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는 기초학습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서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영어는 abcd부터 가르쳐주었고, 수학은 덧셈뺄셈부터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봉개아동센터에서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가르치고 싶어서 퇴근을 미루고, 아이와 저녁8시까지 센터에 남아서 과외를 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책상에 앉아있기도 버거워했지만 이제 조금씩 자기의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또 막상 공부시켜보니 아이는 공부를 그냥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입에서 책 앞에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공부 못 하겠어요’ 이러한 좌절감이 섞인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 강사도 아니고, 아이에겐 27살 먹은 동네 형입니다. 공부란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압니다. 적어도 아이가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게끔 아이를 도우려합니다.

끝으로

드디어 저도 소집해제의 해가 왔습니다. 막상 제가 1년 반 동안 사회복무요원을 해보니,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군 생활하시는 현역 군인분들이 존경스러워 집니다. 얼마나 추우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더우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징징덜 때도 참 많습니다. 실내에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조금 성가신 일 좀 처리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저에 비하면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용감한 병사님들에게 고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복무하면서 때로는 욕심쟁이처럼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희생할 때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지금 지치고 힘든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무사히 소집해제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군인, 사회복무요원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자부심을 느끼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



오늘의 감동이 내일의 희망으로

전 병 연 | 늘편한요양원

오늘의 감동이 내일의 희망으로

<복무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복무 첫날 걱정은 사라졌다.>

<인지·기억 기능 장애를 가진 어르신과 대화하고 보람을 느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행복하고,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었다.>

<사회복무를 통하여 느낀 감동이 희망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요양원으로 소집통보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기 전에, 컴퓨터에 관심이 있던 나는 이를 활용하고 싶었다. 용인의 “늘편한요양원”에 소집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사회복무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라는 것과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만 알 수 있었다.

보람찬 사회복무를 하고 싶었다. “요양원에서 사회복무를 어떻게 해

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척추질환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서, 복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복지 첫날 걱정은 깨끗이 사라졌다.

📖 노트북을 이용한 치매노인과 대화

첫 출근을 한 날, 요양원에는 여섯 분의 어르신이 계셨다. 모두 할머니들이고, 이곳에서 24시간 생활하는 분들이다. 어르신마다 인지기능 수준이 달랐다. 정상에 가깝게 인지하는 분도 있었고, 인지·기억 기능 장애가 있는 어르신도 있었다. “인지·기억 기능 장애”란 “치매”다. 요양원의 대표님이 치매는 “사랑병”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요양원에서 복무하기 전에 치매노인은 나에게 두려운 대상이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인지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어르신들과 먼저 대화했다. 나는 어르신들과 대화 이끄는 능력이 있다. 내 부모님, 친구들의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 편이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어려움 없이 대화했다.

요양원 대표님의 권유로 오후에는 인지·기억 기능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과 대화할 수 없었다. 말이 전달되지 않았다. 어르신들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평소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 이를 활용해 보기로 했다.

노트북의 텍스트 프로그램에 글씨 크기를 140으로 맞추고, 하려는 말을 간단히 적어서 어르신에게 보여드렸다. 어르신들은 현대 기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매우 느리고 반복해서 보지만, 글도 잘 읽었다. 어르신들의 고향이 어딘지를 물었다. 자녀가 몇 명인지, 학교를 다니셨는지 물었다. 어르신마다 치매수준이 달라서, 질문을 달리하며 대화했다.

백세가 넘는 어르신과 대화할 때, 이 어르신은 나에게 관심이 많았다.

내 직업이 무엇인지,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리고 이 대화가 계속 반복됐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15번 정도 반복하자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어르신 당신의 젊었을 적의 새로운 이야기도 나왔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지만, 내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웃으며 좋아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나는 왜 치매를 “사랑병”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퇴근하면서 “늘편한요양원으로 잘 왔다”고 생각했다. 인지·기억 기능 장애에 어르신과의 대화는 돌이켜 볼수록 보람을 느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행복하고,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회복지무를 계속하면, 보람찬 사회복지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왜 이렇게 인정이 많으셔?”

첫 주 동안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어떤 어르신 한 분과는 전혀 대화할 수 없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지·기억 기능 장애가 있는 다른 어르신들과 매일 대화를 하는 나로서는 왜 이분과 대화를 할 수 없는지 고민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이 어르신의 식사 보조를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내게 말했다.

“왜 이렇게 인정이 많으셔?”

순간 매우 놀랐다. 인지·기억 기능 장애를 가진 어르신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말이 없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재빨리 고향이 어딘지 물어봤다. 어르신이 고향을 말했다. 평소엔 대화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한 것이다. 대표님도 놀라서 나에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나는 보잘것없는 지식을 충동원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 지식이란, “늘편한요양원”에 와서 얻은 것이다. 이곳 대표님이 “한국

치매협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어서, 치매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앞에서 “인지·기억 기능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치매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복무 첫 주에 치매의 종류와 원인, 치료 또는 완화 방법 등에 대하여 공부했다.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서 주로 “명사”를 잊어버리는 치매가 있다. 이는 개념은 남아있지만, 단어를 잊어버린 것이다. “왜 이렇게 인정이 많으셔?”라고 물은 어르신도 이러한 치매였다.

“아들”은 佛語로 fils라 한다. fils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아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어르신은 당신께서 관용적으로 쓰던 “문장”은 남아있지만, 각 단어는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그동안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어르신이 쓰는 관용적 문장을 유도하며 대화했다. 지금도 대화가 가능하고 나를 좋아하신다.

형제·자매·자녀들의 끝없는 슬픔

이렇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사회복지무를 하더라도, 이곳에 어르신을 맡기신 형제·자매·자녀분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끝없는 슬픔을 느낀다. 이곳은 가족들이 자주 방문한다. 어르신께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직접 대화하는 것을 보여드린다. 자녀분들의 나이는 60대에서 70대이고, 이분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다.

한 어르신의 자매 분은 내가 어르신과 노트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자, 그 자리에서 거의 눈물을 쏟기 직전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눈물이 났다. 자매 분이 하는 말을 어르신이 알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노트북으로 옮겨 적었다. 어르신은 매우 느리지만 반복해서 읽어서 대화가 가능했다. 대화가 오갈 때마다 자매 분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

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어르신은 자제 분은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께서 좋아하는 간식을 사온다. 자제 분은 어르신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같이 앉아 있다가 가신다. 자제 분이 가시면 어르신은 자제 분이 준 간식을 먹고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모아 둔다. 다른 쓰레기는 내가 치워도 어르신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한다. 나중에 이를 자제 분께 알려드리자 자제 분께서 슬픔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자제 분은 어르신께서 당신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제 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다른 어르신의 자녀분도 어르신과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여 포기하고 있었다. 자녀분이 방문했을 때, 어르신과 대화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어르신의 젊었을 때 일들을 자녀분에게 알려드렸다. 자녀분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며 신기해 하셨다.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자녀분이 그 다음 방문 때, 어르신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써 오셨다. 어르신이 자녀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우셨다. 우는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오늘의 감동이 내일의 희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족들과 대화한 후, 이분들이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를 신뢰하셨다.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 고통 때문에 가족은 치매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평소에 인지·기억 기능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5월 10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치매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치매사위드, DFS 행사”가 열렸다. DFS란 “Dementia Friendly Society”의 약자

로 “치매 친화 사회”를 뜻하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노인인구 비중 13.1%에서 2060년 40.1%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노인인구 중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로,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되었다.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 자녀분들은 어르신의 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매는 대부분 치료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인지·기억 기능 장애를 가진 어르신의 어떤 부분이 비교적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한 것뿐이다. 이미 장애가 발생한 부분으로 대화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과 대화를 자주 하면, 평상시의 인지·기억 기능 장애가 일부 완화된다. 치매가 심하여 매일 잠을 자던 어르신이 잠깐이지만 스스로 깨어나서 체조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르신들의 인지·기억 기능 장애가 완화된 것을 볼 때마다 근무하는 보람을 느낀다. 오늘의 감동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무를 통하여 감동을 느끼고, 퇴근 후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복무를 마치면 어떤 희망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이처럼 소박하고 행복한 경험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광주역 근무일지

김 지 우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① 첫 출근

2월 18일 오전 6시, 첫 근무 날이다.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광주역으로 출발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버스 안에서 본 창밖은 내게 냉랭한 바람만 보여주었다. 광주역 광장에 8시에 도착하여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어보았다.

“오늘부터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라는 물음에 “광주역 역무실로 오시면 되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긴장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흡연구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담배 한 개비가 태워지며 다시 여러 생각을 한다. ‘잘 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다치면 안되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담배가 줄어드는 만큼 시간도 줄어들고 있었다. 그렇게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광주역 역무실 문앞에 서서 다시 생각했다. ‘일단 부딪치고 보자!’ 8시40분 내 첫 출근 시간이었다.

아직도 기억하는 첫 한마디 “오늘부터 사회복지무원 근무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진짜 바보같이 보일법한 한마디였다. 담당관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며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데도 긴장감과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금은 소집해제를 한 내 선임이 출근을 해 내 앞에 앉았다. 꽤나 훈훈한 외모에 사회복지무원 제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게 첫 인상이었다. 대기 시간 동안 나는 선임과 서로 자기소개와 잡다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 하는 중에 C조 과장님께서 오셔서 선임한테 말씀하셨다. 가서 인수인계를 잘 하라는 말과 함께 곧 시간이니 열라 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그리고 선임은 나를 데리고 타는 곳 출입문으로 향하면서 설명했다.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출발시각 10분 전에 방송과 함께 타는 곳 출입문을 열고 도착열차는 도착방송과 동시에 열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9시12분, 나와 선임은 9시22분 열차 탑승방송을 내보내는 동시에 문을 열고 손님들이 올바른 열차를 타러 가는지 지켜봤다.

그리고 열차 출발시간이 다 되었을 쯤 선임은 한 마디 덧붙였다. 열차가 출발하면 확인하고 출입구 앞에 있는 안내 간판의 번호를 바꾸면 된다고 한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다. 지레 겁먹은 내가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열차를 보내고 다시 대기하고 시간 맞춰 문을 열면서 다음 두 번째 일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열차 시간표가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는 15시01분 출발열차와 14시55분 도착열차의 시간이 겹치는 시간대였다. 15시01분은 용산행 열차로 5번 홈에서 탑승하고 14시55분 열차는 3번 홈에서 손님이 내리신다. 15시01분 열차에 손님이 탑승하는 도중에 도착하는 열차라 많은 손님들이 착각하시고 다른 홈으로 올라가는 경우 가 빈번하여서 나와 선임은 지하도 3번홈의 에스컬레이터를 막아서고 안내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이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런 손님이 있으려나 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착각을 하시고 올라가는 경우를 보고 이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15시01분 열차를 출발시키고 나와 선임은 다시 대기하며 다음 열차시간을 확인했다. 그렇게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집에 가는길에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좋은 근무지에 배정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월21일 평소 같이 근무하던 중 B조 팀장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광주역에서 근무하니 필요한 지식에 대해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신다. 지도를 보여주시더니 전국에 배치되어있는 철도나 역의 위치를 보여주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광주역이 돌아가는지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역무실 밖으로 나가셔서 다른 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열차의 순번과 경로를 정하는 로컬관제실, 광주역의 모든 시설과 전기를 담당하는 시설처와 전기처, 열차의 수리 및 점검을 위한 차량 사업소 같이 난생 처음 보는 광주역의 자세한 풍경이 나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지금도 교육해 주신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그 다음날인 2월22일 금요일, 금요일은 다른 날보다 이용하는 고객수가 많은 날이다. 그렇기에 나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이 유실물로 들어왔다.

선임은 내게 유실물 처리 절차를 하나씩 알려 주기 시작했다. 먼저 유실물을 역 운역 시스템에 등록해 어떤 열차의 어디서 발견했는지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이 1순위라고 한다. 그 다음 유실물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상황마다 다르다고한다. 먼저 코레일 회원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연락처를 조회 할 수 있다. 코레일

회원이 아닌 경우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신고와 함께 광주역 역역수실 연락처를 알려주면 신용카드 회사 쪽에서 유실물 주인에게 연락을 주라고 한다. 조금 복잡한 방식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다. 이렇게 연락이 닿은 경우 유실물 주인이 있는 가장 가까운 역으로 유실물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역 운영 시스템에서 이관처리와 함께 보내는 역에 연락해 어떤 유실물이 가는지 알려야한다고 한다. 그렇게 설명과 함께 다시과정을 곱씹으며 생각했다.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역의 시스템은 치밀하고 정확하며 서비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유실물을 처리하고 다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과장님께서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하신 손님이 계시다며 가서 안내해 주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휠체어 리프트는 열차의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리프트로 올려 열차에 싣거나 내리는 일이다. 처음 리프트를 봤을 때는 정말 중형 냉장고 한 대가 놓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고 무거웠다. 열차의 장애인 칸에 입구를 맞추고 휠체어를 엘리베이터처럼 옮기는 방식이었다. 나름의 경험과 요령이 필요한 일이라 지금도 어렵지만 꽤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다시 하루하루 근무를 해나가다가 2월27일 2월의 마지막을 하루 앞둔 날 B조 팀장님께서 박스들을 가리키며 챙겨서 따라오라고 하셨다. 박스들을 챙기고 따라간 곳은 송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셔틀열차 홈이었다. 팀장님께서서는 매달 말일 쯤 잡지를 새로 가는 작업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제한시간은 많아야 15분이라 하셨다. 당황했었다. 3명에서 70석 가까이 되는 좌석에 일일이 잡지를 꽂아야한다니. 정말 정신없이 기계처럼 꽂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이니 다행이네’ 정말 모든 생각을 멈추고 일에만 집중하니 15분 내로 모든 잡지를 교체했다. 아직도 생각하면 힘든 것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3월 어느 날, 근무하던 중에 담당관님이 오셔서 종이 한 장과 함께 전광판에 글자를 적는 일을 주셨다. 난 선임을 따라가 방송 제어실에 있는 전광판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꽤 흥미있는 작업이었다. 내가 작성한대로 전광판에 글씨가 나오고 색과 효과도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전광판 작업을 마치고 표출되는 상태를 확인해 사진을 찍어 담당관님께 보내고 바로 다음 일이 들어왔다. 광주역은 회의실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가장 큰 무등산실, 중소 규모 정도의 서석대실과 입석대실이 있는데 회의실 임대가 잡히면 시작 1시간 전에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회의실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나도 광주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서비스라 꽤 놀랐다. 이런 서비스도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서비스가 많은 역이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4월23일 날씨가 조금 우중충한 날 광주역에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위해 찾아왔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기차표를 끊어주는 체험을 하고 나는 그 기차표에 광주역이 새겨진 2개의 도장 중 하나를 찍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어떤 도장을 찍어 줄지를 물어보고 찍어주니 순수하게 좋아하는 아이들 모습에 귀여웠다. 어린 사촌동생이 있다보니 수월하게 일을 해줄 수 있어 꽤 보람찬 일이었다.

160만원 사건

내가 기억하는 일 중 가장 큰 사건일 것이다. 근무하는 중에 어떤 손님이 역무실로 와서 내게 입구 쪽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는 말을 했다. 처음에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주웠다고 가져다주면 될 일을 왜 역무실까지 와서 말하는 건지라는 생각과 함께 지갑을 주우러 입구 쪽으로 갔을 때 나는 그 손님의 심정을 이해했다.

장지갑이 활짝 펼쳐져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보이는 노란색

종이 봉치를 보았을 때는 순간 내 눈이 잘못된 것이길 빌 정도였다. 그렇게 놀란 마음과 함께 지갑을 가지고 역무실에 왔지만 점심시간이라 나 혼자 근무를 설 때였다. 마침 계시던 담당관님께 가져가 지갑을 주었는데 지갑 내용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지갑을 드렸다. 담당관님도 놀라시며 일단 돈을 세어서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 결과 정확히 160만4천원, 지갑에 있기에는 너무나 큰 현금이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코레일 회원도 아니시고 신용 카드도 없었다. 신분증 한 개와 몇 장의 명함뿐이었다. 나와 담당관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함에 적혀져 있는 연락처에 연락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갑 주인의 사위라는 분께 연락이 닿아 겨우겨우 연락할 수 있었다.

잠시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시더니 지갑을 찾으러 왔다고 하셨다. 담당관님은 지갑을 전해 드리면서 물어보셨다. 이 많은 현금을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어쩌면 보이스피싱에 당해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있던 중에 잃어버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그 큰돈은 할아버지의 수술비였던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사례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난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 뿐 딱히 사례를 바란 것도 아니니 말이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면서도 보람찬 일이라 기억한다.



삶의 의미를 찾는 마법

김도현 |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누구에게나 살면서 처음은 늘 존재한다. 처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설레는 감정과 낯선 것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불안 서로 상존하기 어려운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사회복지무도 처음에는 그랬다. 학업을 하던 중 본인선택을 하여 사회복지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업에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학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의 의지보다는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커서 ‘처음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업무의 어려움은 없을까? 사람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한 사회복지무... 어느덧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한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주간에 프로그램도 수강하고 당구, 탁구, 바둑,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일자리 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총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수업도 듣고 점심도 먹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놀고 일종의 어르신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여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 봉사활동 경험도 있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본 경험은 적다. 또한 책 속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제 현장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와 같이 어르신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과 봉사를 통해 잠깐 겪은 것은 다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 크게 느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안은 기우였음을 복무를 시작하고 서서히 적응하면서 알게 되었다. 복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통해 막연한 불안과 학업에 지쳐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는 마법과 같은 순간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르신께 배우는 사회복지

우리 복지관에는 현재 6명의 사회복지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같이 복무하고 있는 요원들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아마 노인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이라면 한번쯤은 스마트폰,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재 3층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3층에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젊은이가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나도 하루에 적으면 한 분, 많으면 여섯 분 정도의 어르신들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점을 늘 해결주고 있는 중이다. 물론 처음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었다. “젊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여?”, “와이파이가 안돼, 어제까지는 잘만 되었는데”, “상대방이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었는데 전화가 안올려”, “전화번호부 저장은 어떻게 해?”, “카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 수 있다는데 어떻게 만들어?”, “이 화면이 안 없어져, 글자크기 좀 크게 해줘”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접했었다. 복무 초기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내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셔서 묻고, 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하니 지치고 귀찮았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었다. “미안혀, 귀찮게해서, 나도 잘 하고 싶은데, 몸이 예전같이 마음대로 안따라주네...”, “스마트폰은 계속 사용하는데도 손에 익지를 않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등.

그분들의 젊었을 적과는 다르게 눈도 침침해졌고 새로운 신식 용어 이해를 하기도 시간도 많이 소요 되서 새로운 기술인 스마트폰을 익히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어르신들도 무조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민 해보고 직접 해보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서 주변의 잘 다루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차 싶었다. 그래도 사회 복지를 전공했다는 사람이 헛배웠다는 생각에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해보지 않고 그저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급급했으며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르신들이 묻는 문제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결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다. 나에게서는 쉬울 수 있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나의 이기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경험이었다.

우리도 처음 낯선 것을 접하게 되는 일들을 늘 경험하고 있다. 사회 복무 역시 나에게서는 처음 접하는 활동이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처럼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싶은 어르신이나 사회복지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새로운 접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과거의 나와는 다르게 뜻대로 되지 않는 점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분명 존재한다. 어르신도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 오늘도 어르신들에게는 어렵지만 나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스마트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작은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 살만한 세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 아닐까? 사회복지무를 하면서 전공 책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점을 몸소 느끼고 있다.

열정에 불 지피기

나는 노인복지관에서 복무를 하기 전 어르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몸이 아파 힘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내가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였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도 어르신의 모습일 수 있지만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 주도적인 모습도 노인복지관에 와서 느끼게 되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웃음치료, 노래교실, 난타, 서예교실, 한자, 컴퓨터, 오카리나, 합창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날에 지팡이를 짚으시고 시간에 맞춰 부지런히 나오신다. 눈이 침침해졌어도 돋보기를 쓰고 새로운 거 하나라도 더 보시려고 하는 모습, 손에 힘이 부족하여 글자를 뺄뺄뺄 써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도 가지고 있으시다.

또 작년 10월에는 어르신들이 부채, 접시, 에코백, 텀블러에 새긴 캘리

그라피, 자수, 파스텔 스케치 수업을 들으면서 만든 작품 전시회 준비를 도왔던 적이 있었다. 수업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으셨다. 열악한 환경과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에도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능동적인 모습들을 나는 복무를 하면서 어르신들 속에서 발견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따로 없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루지 못했었던 것을 해보자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취득하고 싶었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여 흐지부지 되었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직업상담사 자격 2개를 복무를 하면서 취득했으며 현재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중이다.

19년도 2학기에는 군-e러닝을 활용하여 6학점을 취득할 계획이다. 복무를 하는 2년을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사소함이 주는 큰 행복

“안녕하세요. 익산노인복지관에서 전화드렸어요. ○○○ 어르신이죠?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내가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다. 뜬금없이 전화 이야기를 해서 뭔가 싫을 것이다. 사회복지부를 하면서 학교생활 때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안부 전화도 그 중 하나다.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확인 전화를 하는 업무가 있다. 복지관의 안부전화 업무도 사회복지부 요원들이 돕고 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끼리 나눠서 전화를 하고 있다. 아무래

도 여러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통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손주처럼 이야기를 가볍게 들어주고 있다.

어르신 대부분은 항상 전화를 마칠 즈음에 “고맙습니다.”, “적적 했는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처음에 안부확인 전화를 그저 일로써 접근을 했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거는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오히려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야기를 할 사람이 곁에 없어 하기 어려운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어찌면 안부 전화를 거는 것이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역할이 작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이라 느꼈던 활동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뿌듯하다.

일체유심조 :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원효대사가 유학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은 유명한 말이다.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이 말과 깊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3개월 복무를 하다 보니 나는 이 유명한 말을 사회복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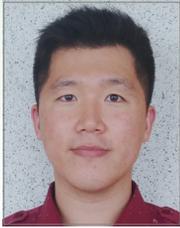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은 기관의 특성상 사람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람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민원인들에게 이리저리 차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보내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힘든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사회복지무를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며 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시기로 삼을 것이다. 또한 처음에 사회복지무는 그저 ‘시간만 적당히 때우다가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주었으나 여러 어르신들과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보고 느끼다보니 2년이라는 시간을 단순하게 흘러 보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해야 할지 고민하며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통해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 나도 복무를 하다보면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위에서 이야기했던 삶의 자양분을 얻는 경험도 했다.

사람은 주위의 이야기에 쉽게 동요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흔들리면서 배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반성하며 돌이키면서 어제보다 나아진 나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사회복지무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지지해주며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견딜 힘을 얻고 있다.



‘항상 그 곳에 있어주는 사람’

노 신 영 | 김해은혜학교

- 아이들의 작지만 경이로운 변화를 보는 것,
내 배움의 특권! -

입대하다

나는 꽤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했다. 입대 나이 제한에 맞춰 겨우 박사 졸업장은 따냈지만 그 안에 취직하진 못했다. 졸업 후 훈련소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는 차라리 어설픈 곳에 자리를 얻어 일을 하느니 최대한 빨리 끝내고 경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2년간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었다.

김해은혜학교. 소집 전에 통지서에 적힌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다. 첫 눈에 학교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도심에서 차로 십 여분 논길을

달려 도착한, 별판위에 홀로 우뚝 선 건물 하나. 도심에서 운전해 나와야 했던 그 거리만큼이나 마음에서도 먼 곳에 그들의 사회가 존재함을 학교를 둘러싼 넓은 별판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어쩌서 내가 그 동안 살면서 내 주변에 장애인 지인이 한 명도 없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다. 군대처럼 사회에서 분리 된 곳으로 가는 점이 군대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내가 가졌던 첫인상이었다.

아이들을 만나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1반에 배치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 아이들은 귀엽기만 할 것이고 몸집이 작으니 일이 쉬울 것이라 생각한 내 예상은 개학 첫 날부터 빗나갔다. 처음 만난 날 아이들은 내게 가공할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아이는 교실 바닥에 오줌을 싸버렸고 치우고 옷을 갈아입히자 한 번 더 싸버렸다. 놀래서 정신없이 닦고 치우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쉬지 않고 교실 안을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며 물건을 어질고 책을 찢고 다녔다. 나는 하필이면 내가 가장 힘든 반에 배치되었다고 확신했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이라는 아이를 주로 맡아주면 된다고 하셨다. ○○이는 교실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였다. 마치 갓 걸음마를 떼 아기처럼 어떤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고 간단한 지시의 이해와 수행도 어려웠다. 교실 안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집어 뜯고 입에 넣어 씹었다. 급식소를 갈 때나 수업 시간 등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는 휠체어에 앉혀야 하는데 안 앉으려고 해 처음엔 나와 담임선생님 두 명으로는 역부족이라 옆 반 선생님까지 동원하여, 어른 세 명이 진땀 빼며 앉혔다. 내 하루 업무는 그렇게 저항하는 ○○이를 휠체어에 앉히는 일로 시작해서, 밥을 떠먹여주고 양치를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일이었다.

그렇게 몇 개월, 현역병들의 군대생활도 처음에 힘들지만 이등병이 일병이 되고 병장이 되듯,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아이들을 보는 일도 반복하고 익숙해지며 점차 적응이 되었다. 휠체어에 앉히는 데에 요령이 생겼고 밥 떠먹이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양치시키는 기술도 늘었다. 이대로 소집해제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통학버스 사건

그러던 어느 날 이였다. 우리 반 아이인 ○○이가 하교 시간 버스를 타지 않기 시작했다. 평소 거리낌 없이 타던 버스를 절대 타지 않겠다고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러냐고 다그쳐도 답은 없고, 평소 좋아하는 초콜릿을 주며 타도록 유도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문제는 2주째 이어졌고 나중엔 교실에서부터 몸부림쳐서 아이를 안아 들고 버스까지 가야했다. 점차 더 힘이 들고 지쳐갈 수록 내 마음속에도 짜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속 되었고 더 심해지기만 했다.

담임선생님은 달랐다. 분명 아이가 그렇게 행동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며 유심히 관찰하셨다. 그리고 3주째, 스쿨버스 입구에 조그맣게 붙여져 있던 해골모양과 호박 모양 할로윈 스티커를 떼어 내셨다. 그 다음 날, 아이는 마법에 걸린 듯 버스에 스스로 걸어 올라갔다. 버스 입구에 아이들을 위해 장식으로 붙인 스티커를 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가 겁을 먹었던 것이다. 스티커가 없어지자 아이는 처음엔 불안해하면서도 혼자 걸어 올라갔고 며칠 후에는 예전처럼 씩씩하게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목격하면서 나는 문제 앞에서 아이를 혼내거나 먹는 것으로 유혹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생각해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아쉬웠다. 그때, 나는 학교를 단지 낮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원 정도로 생각

하고 있었던 내 자세에 대해 반성을 했다. 담임선생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오고 있었음을 매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버스 탑승 소동에 대처하는 담임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또 크고 작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특수학교 교실을 관찰하면서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위대함을 느꼈다.

내가 대하는 어린 아이 한 명이 사실 이해하기에는 얼마나 깊은 세계 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소집 후 갔던 교육청의 연수에서 강사는 우리에게 ‘One caring adult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라도, 그 아이의 잘못에 다그치기만 하지 않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며 소통 해주는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는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 ‘항상 그 곳에 서 있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달라고 강사는 당부했다.

○○이의 버스탑승소동은 내게 지금의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가 소집 해제일을 기다리며 견뎌야 하는 생활 대신, 내 손에서 공교육이 전달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보람찬 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전공자도 아닌 내게 그런 교육을 해낼 능력은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어설프게 알고 아이를 다그치거나 먹을 것을 주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하는 나의 모든 조그만 행동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담임선생님께 물어보고 상담하기 시작했다.

🎯 목표가 생긴다.

여러 가지를 묻다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특수교육에는 IEP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개별화 교육,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극명히 차이 나는 특수학교 교실에는 당연 교육의 목표 또한 아이마다 다 다르게 잡혀 있다는 것. 학교의 어떤 아이들은 직업 교육을 받고 취직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하는 게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교육이지만, 어떤 아이들에겐 20살까지 집안에 수발을 드는 사람이 없이 혼자 생활 할 수 있도록 자립하게 하는 것이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이며, 또 어떤 아이들에겐 어떤 방식으로든 대소변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표현 하나 만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12년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 이라는 것. 아이에게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교육 과정이 정하는 통합적인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전담하도록 주어진 ○○이에게 나와 같이 있는 1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이내 찾아낸 답은 착석 교육이었다. “앉아주세요”라는 말에 자리에 앉을 줄 아는 한 가지만 가능해진다면 ○○이는 매일 아침 강제로 휠체어를 앉혀질 필요가 없어지고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수도 있으며 아침 산책이나 소풍 등 학교 활동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참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조언을 구하니 ○○이가 앉아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

교육 시작 첫 째 날, 5분 착석 교육을 함께 하였다. 말이 착석이지 아이는 앉아 있지 않으려 온 힘으로 몸부림을 쳤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려는 나와 5분간의 끊임없는 몸싸움이었다. 그 다음 날도 나의 “앉아주

세요”라는 말과 함께 다시 의자 위의 몸싸움이 반복됐고 무한한 체력을 가진 아이는 10분간 쉬지 않고 몸부림을 쳤다. 1년 계획으로 잡았으니 그 정도는 실망스럽지도 않았다.

그런데 1주일 만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1주일째 되던 날 아이는 10초 정도 지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바로 다음날 10초는 10분이 되었고 그 다음날 10분은 1시간이 되었다. 2주 만에 ○○이는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4주차에 ○○이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아이가 되었다. 13 주차인 지금 ○○이의 휠체어는 교실 한 구석에 두 달 넘게 쓰이지 않은 채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나를 배우게 한 사회복무

교육기본법은 18조에서 국가가 장애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해 그러한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 학생에게 그런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하기 위해 나는 우리 교실에 보조교사로 배치되었다.

이제는 확신한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 대신 내게 주어진 일이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과 한 주 한 주 분명하게 발전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드는 경이로움은 나를 변화시키고 더 공부 할 수 있게 해주는 특권이라는 것을.



밝은 세상에 내딛는 작은 첫발

박 준 흥 |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어둠속에 버려진 아이

한껏 뭉친 지우개 가루가 뒤에서 날아온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귀를 스친다. 옛날 같으면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하지만 아이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는다. 이미 여러 번 울어봤고, 울 때마다 그들은 더 심해질 뿐 절대로 그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적응을 어려워하는 이 아이는 이런 순간이 낯설지 않았다. 이전에는 한 친구에게 “You’re crazy.”라는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심한 욕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은 외국에서까지 적용되지는 않았고, 졸지에 나는 별것도 아닌 것에 우는 이상한 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매우 혼란스러웠다. 친구들은 표정은 점점 웃음에서 무표정으로 바뀌었다. 이때마다 항상 ‘한국에 돌아가면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아이는 그곳에서도 나는 무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항상 지니고

다니던 외로운 아이는 사회복지무요원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통해 희망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밝은 청년이 되었다.

깜깜한 새벽

나는 어린 시절의 일부를 호주에서 보냈다.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년간 이었는데, 국제학교가 아닌 전교에 아시아인이 3명 밖에 없는 일반사립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이었다. 어린 나이에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때 경험했던 외로움이나 고독은 쉽게 떨쳐내기 어려웠다.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니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있었다. 호주에서 배웠던 확고한 자기표현과 자신감은 한국에서는 단순한 ‘나대는 아이’였을 뿐이었다. 결국 한국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로 혼자가 되었다. 이때 생긴 무기력함은 나를 고등학교 때까지 괴롭혔고, 굉장히 외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내가 목표로 잡았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나는 지난 시절의 무기력함을 단번에 날려줄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더 이상 무리에서 벗어난 ‘이방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뜻깊은 경험을 하는 ‘청춘’의 시기, 20대를 보내고 싶었다.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신입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쓴 잔을 삼켜야 했다. 대학교 역시도 중·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 다가왔고, 나는 결국 기숙사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밥을 거르는 것은 습관이 되었으며, 룸메이트에게조차도 말 한마디를 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를 찾고자 나갔던 대학 생활에서 나는 또다시 나만의 공간에서 몸을 웅크렸다. 기회가 닿아 나는 이 절망에서 도망치듯이 사회복지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복무무원으로서 처음으로 근무지에 배치되었을 때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대충대충, 농땡이는 나의 또 다른 이름이었으며 책임감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주어진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힘에 부치고 나에게만 너무나도 많은 일이 주어지는 것 같았다.

또한 직원들이 시키는 일이 나의 역할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따지며 사회복지무원 규정을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였다. 이용인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봐도 대답은 회피하는 일이 잦았다. 이렇다보니 점점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일이 없었다.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무원들과도 최대한 교류를 피했다. 친해지려는 이유가 결국 직원들처럼 나에게 일을 더 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는 이전의 내 인생처럼 자신 스스로를 고립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나는 예전처럼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이 침대에 몸을 맡겼다. 핸드폰 화면만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잠드는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되었다. 나는, 망가져 있었다.

어둠속이라도 별들을 벗 삼아

이런 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난 사회복지무원들은 나를 께안아주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친해지면 상처받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나임에도 그들은 꾸준히 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었다. 그들은 그렇게 나와 꾸준히 시간을 보내고, 일도 함께하며 나도 점

점 마음을 열게 되었다. 하루는 다 같이 회식을 하며 근무지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솔직히 회식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고, ‘여기서 뭐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한 사회복지무요원은 자신의 게임만 하던 과거를 진솔하게 해주었다.

목표 없이 그저 온종일 컴퓨터 앞에 밝은 빛만 쳐다보며 게임을 했었다고 한다. 하루에 10시간은 그에게는 기본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무요원 생활 중에 우연히 읽게 된 책을 계기로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현재 이 사회복지무요원은 변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느꼈던 경험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이나 인간관계 같은 뜻깊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어렸을 때의 해외생활부터 시작한 내 과거 이야기를 울음 섞인 목소리로 토해냈다. 형들은 말없이 햇빛과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위로해주었고, 나는 확실히 위로를 받았다. 인생을 고독 속에서 살던 나에게 형들은 바깥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점점 같이 일하는 형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한 형은 체육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오게 되었는데,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함께 지내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 이 형은 몸이 허약한 나를 위해 근무지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었고, 식단까지 관리해주었다. 너무나 고마운데 무엇을 해줄지 몰라 고민하는 나에게 형은 당연하다는 듯이 “넌 영어를 진짜 잘하잖아. 형한테 영어를 가르쳐줄래?” 이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나는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됐던 기억이 없었다. 도움은 커녕 말도 하지 않다 보니 나에게도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형의 그 말은 나를 이 사회의 필요한 사람 중 하나라고 인정해주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한 나는 그날로부터 남에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점점 표정이 밝아져 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를 발견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밝은 부분을 내 눈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나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올라오는 아침노을

마음이 열리고 나서 나는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은 점점 더 여유로워져갔고, 곧 직원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루는 우리 근무지에서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 접수 기간이 되어서 거의 2천건 가까이 되는 접수를 받아야 했다. 긴 시간 동안 오시는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안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사람까지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니 항상 이용인들의 수많은 민원, 요청에 지칠 법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생각났다. 이후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들의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이용인들이 건네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내게는 작게만 느껴졌던 이유에 의미를 새기고 이를 원동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뿌듯함과 성취감이라는 새로운 감정과 마주쳤다. 이전에는 나의 노력이 큰 보상으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보상이 오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를 내고 실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직원들을 보고 나서 눈을 돌리니, 내 주위에 많은 뿌듯함과 성취감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수많은 보상을 받고 있었던 셈이었다.

하루는 나이가 있으신 한 민원인께서 나에게 갑자기 사회복지무요원의 의무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셨다. 공부와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착실히 하라는 말을 한 시간 동안 듣고 나니 상당히 지쳤다.

나의 표정을 본 한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한 사람의 말이 너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는 그분이 살아온 시간 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오기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없는 말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나는 말 그대로 크게 충격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나이 22살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과연 반세기 이상을 겪어 오신 분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한껏 세게 치고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되니 나 역시도 책임감과 친절함을 무기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변화는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아침은 온다

나는 사회복지무원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방구석에서 뛰쳐나와 넓고 밝은 세계를 맛보았다. 이전보다 달라진 나를 보며 사람들은 놀라워하고는 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놀란다. 근무가 끝나면 근무지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하고, 집에서는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에 합격했고, 토익스피킹 시험과 토플시험을 꾸준히 공부중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에 도전 중이다.

전시회나 박람회, 소모임에 관심이 커져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졌다. 화합과 교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도망치듯이 시작하게 된 사회복지무원이지만, 이 값진 시간을 통해 나의 ‘젊음’에서 따뜻하고 힘찬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청춘들이여, 당신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흑백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늘 높이 당신의 ‘뱃’을 들고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자신만의 색으로 색칠해 나가길 바란다. 밝고 화려한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울 수 없는 아픔

홍 윤 성 |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심장마비가 온 어르신에게 심폐소생술 시행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일이다. 사회복지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러했다.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성격이 급했던 나에게 사회복지무는 시의 적절하게 삶의 과속방지턱이 되어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사회복지무를 단순 체험이 아닌 경험으로써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로 삼고 싶었다. 그것을 위해 내 자신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킥복싱 대회에 출전하였다가 왼쪽 눈을 크게 다쳐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만큼 체력이 좋아 여러 작업을 수월히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갖

고 있어 서류작업에 능통했다. 이런 점들은 분명 사회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나만의 근무 철칙을 세웠다.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복무 기간 동안 이런 철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내가 복무하는 노인 복지 회관은 규모가 상당히 하고 진행되는 수업과 프로그램이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특히 무료급식 봉사가 있는 날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날이면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그중 안전에 관련된 사고들은 늘 간담을 서늘게 했다. 내가 근무하는 기관의 담당 주사님은 이곳에서 17년간을 근무하셨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으로 여러 문제와 안전사고를 태연하게 해결하셨다. 옆에서 이런 문제 해결이나 신중함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고는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날은 담당 주사님이 연가 중이었고, 같이 근무하던 사회복지요원은 교육으로 자리에 없었다. 사무실에는 나와 직원 한분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수업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하던 중, 컴퓨터 수업 도중에 한 어르신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당장에 컴퓨터 수업 교실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해 보니 어르신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나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동안의 복무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려 노력했고, 이내 신중함을 되찾았다. 일단 옆에 있는 직원 분에게 1층 중앙에 있는 심폐제세동기를 빨리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벨트를 풀고 양말을 벗겼다. 또한 옆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발과 손을 주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상의를 벗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 응급구조대와 직접 통화했다.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를 정확히 전달했다.

사회복무 기간 동안 훈련소,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3차례에 걸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심폐소생술을 학습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지만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치었다. 어르신 가슴팍의 서늘한 체온은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졌고, 혹시라도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돌아가시더라도 하면 나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혹은 심장마비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인데 내가 잘못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그렇다면 법적책임을 져야하는지 같은 생각도 들었다.

어르신의 흉곽 가슴연골은 앞으로 돌출된 형태였다. 이런 형태는 내가 학습한 심폐소생술 모형의 흉곽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인의 경우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뼈가 약해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때 보다 약한 힘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갈비뼈가 심각하게 부러져 내부 장기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 여러 제약과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어르신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다.

점차 어르신의 맥박과 호흡이 일정해지고 의식이 회복될 기미가 보였다. 직원 분이 심폐제세동기를 가져온 후 나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전화상으로 119 응급구조대원의 지시 하에 학습한 대로 심폐제세동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했다. 심폐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 이상을 감지하고 제세동 필요성을 알렸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작동했다. 작동 후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응급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르신을 구급차에 싣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 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의 전부였다. 이후에는 어르신들의 상태가 괜찮아 지기만을 기도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담당 주사님은 연가중임에도 연락을 받고 급히 노인복지회관으로 오셨다가, 어르신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하셨다. 어르신은 당일 자정 병원 중환자실에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이후에 많은 얘기를 들었다. 어르신이 이미 예전부터 심장에 지병을 앓고 계셨으며 불과 며칠 전에도 심정지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갔었다는 얘기,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기관의 담당 주사님을 통하여 나의 응급처치에 감사인사를 전한 얘기, 응급구조대원의 지시에 신중히 조치를 취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 이 얘기들은 나의 책임을 덜어 줌과 동시에 오히려 나를 높여 주었다. 이 말들로 자기 위안하여 책임을 느낄 새도 없이 훌훌 털고 일어나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 일은 여전히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혹여 책임이 나에게 물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망설였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숙지하려 했던 노력에는 실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위선이었으며 누구보다 내 자신에 의해 낱알이 벗겨졌다. 실제 근무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상황을 맞닥뜨리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나의 심폐소생술은 시늬만으로 그칠 뻔하였다.

이 사고는 사회복지에 관한 나의 생각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군복무에 비하여 굉장히 수월하며 사명감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사회통념 속에 갇혀있다. 나 역시 사회복지에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 사회복지에 삶의 과속방지턱 정도로 생각했고, 적당하게 천천히 쉬어갈 수 있는 기

회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무를 시작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복무 기간 동안 여러 사건사고를 마주했고 종종 나의 한계를 절감했고 여러 고충들로 인해 낙담했다. 특히 이 사고가 그러했다.

사회복무는 과속방지턱이 아닌 다른 방향의 셋길이었다. 그 셋길은 여러 난관들로 가득한 고행 길이었다. 잘 할 수 없었음에 자책하되 좌절하지 말아야 했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했다. 이것은 분명 힘든 길이며 막중한 사명감을 필요로 했다. 신체적 요건들로 군복무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사회에서는 건장한 성인남성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충족감을 느꼈고 이것이 사명감의 바탕이 되었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과 그것에서 오는 성취감이 나를 지치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길의 과정에서 나는 어르신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얻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무요원들이 여러 상황들로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복무에 대한 끝없는 성찰과 고뇌 끝에 얻어지는 훈장과도 같다. 이 아픔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계속해서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주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쓰라리게 되살아나 나아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무요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타개하는 길임을 나는 안다.



완생(完生)을 향한 길

배 재 성 | 복음양로원

성숙한 나를 위한, 사회복지무원이라는 여정

아이들의 선생님, 어르신들의 손자로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생활을 조금 하다가 사회복지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아이들과 잠시 이별하고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과 조금은 대조적일 수 있는, 인생의 완성을 구성할 발자국을 남기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년 12월, 저는 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특수학교와 노인복지 시설 중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수학생에 대한 경험은 교직에 있으면서 꾸준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때 아니면 평생 못 해볼 것 같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집이랑

멀지 않아서 노인복지시설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제가 선택한 곳으로 근무지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배선생님, 동료선생님들의 격려를 받고 2년 후를 기약하며 훈련소를 무사히 다녀 오고 본격적인 저의 복무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0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얀 거짓말

사회복무요원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근무를 시작하면서 곧 소집해제 하는 선임한테 이것저것 한창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식사하실 때 반찬을 잘게 썰어드려야 해.”, “어르신들이 대답을 잘 안하시더라도 말뱃을 해드리면 속으로 좋아하셔.” 그리고 제가 배정받은 생활실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 이시는 이분은 치매, 약간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생활이 상당히 불편 하신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우리아들 ○○이 맞나?”, “우리아들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임은 검지를 척 들면서 천장을 가리키며 곧 올 거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선임한테 아드님이 정말 옥상정원에 계 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임은 자기도 그냥 선임한테 알게 된 방 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행동을 보았을 때는 길보기에 조금 안 좋 은 것 같아보였지만 여기서 2년을 근무한 선임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요양원의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은 다 같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원과 건물옥상에 한창 꽃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하면서도 푸근한 때를 골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물 옥상과 마당 산책로에 있는 꽃들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르신도 이번에 나와 계셔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상태가 더 심해지신건지 묵묵부답 그냥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마저 일을 했습니다.

다. 정원에 화단 작업을 마저 다하고 나서 꿀 같은 휴식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득 그 어르신이 생각나서 어르신이 계시는 생활실에 가서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드님을 찾으시면서 이번에는 제가 당신의 아드님이신 줄 알고 이것저것 근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옆에서 보고 계시던 요양보호사님은 “아이고, □□어르신 아드님 찾아오셨네요.”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드님인척 어르신의 말씀에 맞장구를 쳐 드리며 말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식사시간이 되어 식사수발을 해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 선임이 알려준 천장을 가리키는 행동과 방금 한 아드님인척 말뼉을 해드리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저는 직무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께서 활동을 한 가지 하셨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이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익명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다 싶어 궁금증을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례차례 익명의 사연과 질문들을 읽고 답변을 해주시다가 드디어 저의 질문차례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선생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상태라서 더 공감이 간다고 하시면서, 그렇게라도 안심시켜 드리면 어르신들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은 말기 암 환자에게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복무생활 중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들이 자녀분들과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자녀분들만큼의 충분한 정서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던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백숙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는 면회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르신과 면회객 가족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엄마 내 이름이 뭐고?”, “.....”, “엄마 내 어렸을 때 엄마가 내보고 이름보다 막둥이라고 많이 불렀었던 거 기억나나?”, “몰라.” 등등.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대화가 오가는 모자간의 면회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뭉클했습니다. 분명 저 할머니께서도 젊었을 적에는 저의 어머니처럼 아들이랑 자연스럽게 말하고,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얼마동안은 그러한 상황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없을까 애타게 발품 팔아가면서 여기저기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가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착한 종착지가 결국 여기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러한 잔인한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상상해보다가 퇴근시간이 되었고, 집에 가니 부모님께서 마침 복날이니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고 하셔서 백숙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부모님이 식당에서 서로 큰소리로 다투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여 있던 저는 어찌할 줄 몰라 했고 화가 난 어머니께서 먼저 일어 나서서 그냥 혼자 나가셨고, 저랑 아버지만 덩그러니 식당에 남아 사람들의 나머지 시선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숙과 그 뒤에 나오는 닭죽을 억지로 옥여넣듯이 다 먹고 나서 저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나가셔서 집에 가신 게 아니라 식당 앞에서 저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 근무지에서 있었던 어르신과 자녀분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서로가 누가 누군지

당연하게 잘 알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다투지만,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그 어르신처럼 치매가 혹시 걸리게 되면 나를 알아보시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다툼도 할 필요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먼 미래의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엄마 내 이름 뭐고?”,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재성이 아니냐.” 부모님께 제가 누군지 묻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부모님이 다투고 난 뒤의 이런 상황을 기억이라도 하라는 듯 눈물로 만든 조각칼이 제 두 볼에 그 순간을 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각칼이 저의 숨구멍도 좁혔는지 끄꼭거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하신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시고는 일단 다툼은 잠시 중단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다투시나보다.’ 하고 말 상황 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따라 요양원에서의 어르신과 자녀분의 대화가 저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더 크게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모든 부모님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종착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저의 부모님이 겪게 되실 마지막 생활은 어떨지, 혹은 어떠하면 좋을지 가끔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저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다.’, ‘삶의 마지막 여정으로써 저런 모습도 나쁘지 않겠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아침밥, 늘 채워져 있던 화장실의 수건들, 포근한 잠자리 같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저의 행동을 성찰해보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집이랑 가까워서 스스로 선택한 근무지에서 이렇게 저, 부모님, 가족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돌이켜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아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부모님의 당당한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완생(完生)을 향한 길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응은 보통 비슷합니다. “아...” 그 짧은 한마디에 그 사람의 복잡한 생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사회복무요원 생활은 저로 하여금 이런 복잡함을 풀어낼 자신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은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이 나름의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내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뜻 깊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주름진 겉모습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지만 지금보다 빛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한때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이자 부모였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어느 지점보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르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삶의 대단원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송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드라마 ‘미생(未生)’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버티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다 보면 어찌면 완생에 이른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완생이라는 것은 목표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어르신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완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생이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저와 같이 생활하시면서 아름다운 완생을 향해 나아가시고, 저는 어르신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완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d

강 동 윤 | 안산소방서

안녕?

안전!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사회복지무원 강동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무를 하는 동안 이렇게 체험 수기를 작성 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사회복지무원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글로써 누군가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뿌듯하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게 될 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넌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저는 인사를 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많은 사회복지무원들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소방관

님들의 일을 보조하는 요원, 소방관으로 견학을 오는 학생들을 인솔해주는 요원 등등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는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구급업무 즉, 구급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구급업무를? 이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님들의 일을 옆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출동신고를 받고 가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방법이 무엇인지 듣고 필요한 물품들을 현장에 들고 가는 일, 환자가 거동이 불가하여 옮길 때 같이 들어주는 일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① 일은 재미있니?

처음에 설레기만 했습니다. 살면서 구급차에 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데 환자가 아닌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니 영광스러웠습니다. 먼저 소방서에 배치를 받고 4주간 소방서에서 구급물품과 현장에서 해야 할 업무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잠시 갖고 있던 의료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출근이 재미있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일을 배울까?’ 그저 설레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공부와 훈련을 하다 보니 제게도 구급차를 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심장은 더욱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구급대원님들께서 출동 나가기 전 가져야 할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된다.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하라.”

가슴 깊이 말씀을 새기고 저는 그렇게 첫 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① 첫 출동은 어땠어?

저의 첫 출동은 ‘자살 신고’ 이었습니다. 지령서를 받고 읽으며 출동

을 준비하는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간 훈련을 잘 받았기에 그 시간들을 용기로 생각하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출동을 가면서 챙겨야 할 물품들을 챙기고 훈련받았던 시간들을 복기하며 마음을 다지고 환자를 만났습니다. 환자의 첫 모습과 첫 현장은 역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으며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간의 일이라 생각보다 힘이 더 들었습니다. 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있었으며 연기흡입을 조금 한 상태이기에 서둘러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송을 마친 후 구급차를 정비하며 센터에 돌아왔습니다. 제 몸에는 현장의 냄새가 배어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개탄이 타는 냄새를 맡았으며 이는 곧 제 소방서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냄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출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네. 그런데 무섭지는 않았어?

설레고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일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CPR, 자살신고,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 들어보기만 했던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신없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감정에게 이야기를 들을 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센터로 돌아오고 나면 여유와 휴식은 제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실수를 한 것 같고, 꿈에 나오기도 하고 처음 겪는 일들의 잔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 실수는 없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너는 정말 잘 하고 있다. 덕분에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구급대원님들 덕분에 금세 잊고, 정신을 차리며 저는 또 다시 출동을 나갔습니다. 이 잔상들은 결국 제 경험과 지식

이 되었고 제 힘이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극복이 되었지만 매년 현장은 위험하고 예민한 곳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뭘,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조금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하하)

하하, 멋있는데?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었던 일은 뭐야?

음 제 생애 가장 기억의 남는 순간 중 하나가 소방서에서 생긴 일입니다.

11월경 여느 때와 같이 출동을 나가다보니 금세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짜장면을 시켜서 먹기로 했습니다. 짜장면 먹을 생각에 입맛을 다지며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신나게 비닐을 뜯으며 마음속의 노래에 맞춰서 짜장면을 비비고 한입 먹으려던 찰나 출동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신속하게 다녀오자.”는 구급대원님들의 말씀과 함께 출동을 나갔습니다. 길에 도착 후 환자를 찾고 있는 와중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시민이 환자에게 CPR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와 구급대원님들은 재빠르게 달려가 CPR을 시작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AED)에서 이제까지 봤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다른 신호와 리듬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맥박이 미세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며 저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짜장면은 불었지만 불은 짜장면을 먹으며 현장에서 희망을 봤다는 것에 마음도 희망으로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구급대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가 살았으며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은 뒤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님들처럼 제가 현장에서 크게 한 일은 없지만 왜인지 모를 뿌듯함과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 제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고 뿌듯한 순간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방서에서 표창하는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며 소집해제만 바라며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을 소방서에서 의미 있고 뿌듯하며 자랑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다니, 저는 어쩌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세상에 감사하며 저를 소방서에 배치시켜주신 병무청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라는 것도 처음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축하해. 인생에서 잊을 수 없겠구나. 마지막 질문으로 왜 제목이 ‘RED’야?

음 저는 사회복지무요원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옷부터 붉은색이며 사회복지무원 마크도 양손으로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횃불은 ‘타오르다’, ‘빛을 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인은 나라 지키는 일을 하며 사회복지무요원은 사회를 위해 일한다.’

붉은색의 유니폼은 땀이 묻어도, 피가 묻어도, 환자와 민원인의 흔적이 묻어도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은 사실 잘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젊음을 가장 의미 있게 태우며 빛을 내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붉게 물든 우리의 땀과 노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색이, 우리의 유니폼이, 횃불의 색이 붉은 색이기에 제목을 ‘RED’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매 순간을 누구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저 하라. 그것이 전부다.’

제 좌우명입니다. 제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시간이 제 좌우명과 정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감사합니다. 소방서에 계신 모든 소방관님들과 구급대원님들에게도, 저를 도와주시는 주변 많은 분들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은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참 감사하며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76개의 출동을 나갔으며 276개의 상황 속에서 276개의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냈던 시간을 이렇게 글로 쓰니 앞으로 남은 사회복지무원생활도 더 열심히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금지 높은 역사

공 현 호 | 부산시립북천박물관

● 무뎌지고 녹슬어가다

‘북천박물관’ 같은 동네에 있음에도 초등학교 견학 이후, 한 번도 가 볼 생각을 하지 않은 우리집 뒷산의 작은 박물관이다. 나는 가까우면서도 나의 관심 밖에 있던 작은 박물관에서 2년 동안의 사회복무요원을 시작하였다.

북천박물관에서의 나의 업무는 각층의 안내소에 앉아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인솔하고 안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말이 인솔과 안내를 하는 일이지, 산 중턱의 작은 박물관을 굳이 찾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곳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도 4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배치되었기에, 선임들은 나를 상하관계와 굳기 없이 동료처럼 편하게 대해주었다.

그런 편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시간이 흘러갔고, 언제부터인가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 아깝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복무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잉여로운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나에게 작은 변화를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다.

01 관람객의 일침에 정신을 차리다

어느 때와 같이 복무를 하던, 어느 날 한 관람객이 나에게 한 유물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나는 역사에 관련된 학과도 아니었고, 문과도 아니라 역사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었기에 나는 그에게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관람객들이 역사에 관한 질문을 하면 나의 대답은 대부분 ‘모른다.’였고, 그들은 항상 의문을 가진 채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이 관람객은 나에게 처음으로 의문을 가져주었다. ‘박물관을 안내하는 사람이 왜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 복무를 하러 온 것이라 전문적 지식이 없다.”

“역사를 깊이 배우지 않아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

“유물에 관한 설명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 해주었던 안내멘트들 보다 청산유수같이 변명들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분은 나의 바쁜 변명들을 듣고 나에게 뼈아픈 일침을 두었다.

“그럼 당신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지금 당장 다른 누가 오더라도 나를 대신 할 수 있다면 여기서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한마디에 나는 반박할 수 없었고, 나는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였다.

배움으로부터 긍지를 찾다

관람객의 일침을 들은 그날 이후, 박물관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가 복무하고 있는 복천 박물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루 9시간을 박물관에 있는 근무 환경 덕분에 박물관에 관한 지식을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역사를 모르면 내가 밟은 이 땅이 유적인지 동산인지 모른다.’는 학예사의 말처럼, 박물관에 대해 알아갈수록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소개하는 중요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의 일침을 두었던 관람객의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한 질문이었다. 박물관의 내용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사실에 내가 해왔던 대응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박물관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게 된 이후 나에겐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박물관을 찾아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유물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이전과는 달리 나는 관람객들의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었고, 자신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알게 된 사람들은 지금껏 내가 들어온 인사 중 가장 즐겁고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해주었다. 지금까지 무의미하다고 여긴 시간의 흐름이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세상의 따뜻함으로 물드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선순환은 나를 더더욱 밝고 부드럽게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고, 단체로 감사인사를 하던 귀여운 어린이들, 목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음료를 건네주시던 아주머니, 변변찮은 설명에도 감사인사를 하며 이름을 물어보고 가시던 할아버지, 한 페이지에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감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중 2019년 3월에 오셨던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 내가 배운 금지를 널리 퍼트리다

복천박물관은 항구와 공항이 있는 부산에 위치해 있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한다. 이중 1/2 이상이 일본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의 영향 때문인지 부산에 방문한 일본인들은 박물관에 많이 방문한다. 나는 사회복지무원 중 유일하게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을 상대하게 되었고, 나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좋은 인상을 남겨가길 소망하며 그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친절하게 해결해주었다. 이 박물관에서 수많은 일본인들을 상대하고 수많은 대화를 하였지만 3월에 방문한 그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그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3월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대기실로 주사님의 연락이 왔다. ‘한 일본인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찾는다.’라는 주사님의 말씀에 나는 휴식시간을 뒤로하고 일본인의 안내에 나섰고, 여느 때와 같이 나는 박물관을 방문한 일본인에게 이 박물관의 역사와 유물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다. 하지만 그는 간략한 설명 속에서 유물의 출토지와 형태, 역사적 의미와 같은 한국인조차 하지 않는 심도 깊은 질문들을 하였다. 그의 질문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질문들이었고, 이러한 질의응답이 오갈수록 나는 이곳을 찾아온 신기한 일본인에게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박물관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끝낸 후 나는 그 일본인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정말 특별한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역사 유튜버였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는 왜곡된 역사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만을 보고배운 사람들은 왜곡된 역사적 지식을

사실인 듯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곳에 방문한 일본인들 중 신라와 가야,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등한시 여기거나 신라와 가야의 철기문화가 일본에서 전파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려 했지만 그들과의 역사적 괴리가 더 크게 생겨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일간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일본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의 국가에 올바른 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요원 복무 중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복무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를 안내하며 그와의 대화를 이어나갔고, 우리는 그의 다음 목적지인 서면에 다다라서야 서로에게 아쉬운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헤어질 때 그가 자신의 영상에 조력자로 소개한다며 찍어간 나의 사진과 이름은 지금쯤 그의 채널에서 평생을 다해도 다 듣지 못할 일본인들의 수많은 욕을 듣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미안하게도 그들이 할 욕의 수만큼 나는 내가 한 그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북천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부산에는 역사적으로 볼만한 문화재가 별로 없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물론 화려한 문화재들이 있는 경주나 공주, 서울에 비교하면 부산의 문화재는 부족하게 보일지 모른다.

거대한 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할 때 마다 나는 그들에게 꼭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조차 부러워하는 장소라고, 투박하고 녹슨 철밖에 없는 이 장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아름다운 문화가 숨 쉬던 곳이라고 말이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내 앞에 보이는 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나에겐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다.”

지금 나는 복천박물관의 안내자로서, 역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역사의 한 조각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녹슨 철이 1500년 전 가야인의 기술의 정수임을 알 수 있도록, 눈앞의 아름다운 방울이 우리나라의 보물임을 알 수 있도록, 화려했던 우리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내가 복천박물관에서 얻은 것들을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는 명언이 있듯 복천박물관이라는 작은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역사 속 화려했던 한 페이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되고 싶다. 이러한 나의 작은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5천년이라는 궁지 높은 역사에 작은 보탬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나는 복천박물관의 사회복무요원으로써 사람들을 맞이한다.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면, 당신은 절대 무지개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김 성 현 | 경남농아인지원센터

일기 예보 : 흐리고 비

사관학교 입학에 준비하던 내가 청각 장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장교 생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4급 판정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군 입대를 미루며 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다.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인 24살에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경남 농아인 협회에 배정을 받았다. 처음 농아인 협회에 배정을 받았을 때, 우선 농아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검색을 해보았다.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다른 복지 센터처럼 대부분의 사회복지무원들이 꺼리는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근무지 주소를 검색해보았는데, 집에서 꽤 먼 거리에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당장의 첫 출근부터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 통근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가 걸리는

데,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통근 버스가 내리는 정류장과 사무실도 버스 정류장으로 5개정도의 거리로 가깝지 않은데다, 인도가 없어 차가 다니는 도로의 끝에 붙어 걸어가야 한다.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힘든 복무 생활이 될 것이라며 푸념했다.

처음에는 청각 장애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나인데 내가 농아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돌발적 난청으로 한쪽 귀 청력을 잃었기에 언제든지 남은 한쪽 귀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남은 한쪽 귀도 들리지 않으면 나도 농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한쪽 귀라도 들리는 내 상황에 감사하게 되었다. 대부분 선천적으로, 또는 어린 나이에 후천적으로 양쪽 귀가 다 들리지 않는 농아인 분들은 언어능력의 습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이 말을 하지 못하신다. 나는 온전한 한쪽 귀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 귀만 들리지 않는 내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나의 장애만을 크게 생각하고 농아인분들의 청각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빛 속 우산

평소 근무지에서는 간단한 서류 작업과 청소, 손님 응대 등이 주요 업무이다. 크게 바쁘지도 않고, 힘든 일도 없다. 가끔 체육 행사나 외근을 가게 되면 조금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진다. 필요한 물품들 빠지지 않게 챙겨서 차에 실어 옮기고, 캠코더 녹화와 사진 촬영을 하고, 행사 진행을 돕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고, 가끔은 숙박도 해야 하는 외근도 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근무지에서의 일과는 또 다른 보람이 있다. 직원 분들과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함께 해낼 때다. 내가 있기에 조금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성취감을 느낀다. 또한 체

육 행사나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작해야 보조 업무만 할 뿐인데 괜스레 뿌듯하다. 사회 복지사 분들이나 장애인 서비스 센터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보람은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남은 8개월의 기간 동안도 몇 개의 외근과 행사가 있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소집해제까지 참여할 것이다.

복무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이었던 배차 간격이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하는 통근문제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우리 사무실이 있는 경남 사회복지센터에는 내가 근무 중인 센터 외에도 많은 사회복지단체가 있다. 몇 달 출근을 하며 다른 사무실 선생님들께 인사를 건넸다. 그랬더니 얼굴을 기억하셨는지 출근 하시는 길에 차를 갖길에 세우시고 태워주셨다. 건물 내 거의 모든 직원 분들이 내가 버스에서 내려 걷는 모습을 보시면 꼭 태워주신다. 오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눈다. 업무 관련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다보니 다른 센터 일도 조금씩은 알 것 같다. 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에 통근도 한결 편리하고, 오가는 대화에 마음도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매번 다들 그냥 가는 길이라 태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 예기치 못한 비에 어쩔 줄 모를 때, 같이 우산을 쓰자고 해주는 고마운 친구처럼 느껴졌다.

내일 날씨 : 갠 뒤 차차 맑음

앞서 말했듯 언제든지 나도 양쪽 귀가 다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데, 양쪽 귀가 다 들리지 않아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수화와 필담을 통해 대화해야 하는 농아인 분들을 보며 깨달은 점이 있다. 설령 나에게 양쪽 귀가 다 들리지 않는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헤쳐 갈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근무하면서 많은 농아인 분들을 보았는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장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당장 내가 근무하는 농아인 협회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농아이신 분들이 있으시다. 또, 근무하는 센터에서 다양한 행사나 강의를 주최하면 오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다. 강의하시는 내용을 촬영하다 보니 거의 빠지지 않고 듣게 된다. 장애를 극복한 과정과 그 결과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듣다 보면 매번 놀라게 된다. 각국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수화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목사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다. 체육대회에서 비 장애인분들보다도 체육 행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주어진 상황과 능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떠올리며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절망적인 삶의 작은 부분들에만 몰두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복무 생활 덕에 개선된 생활 습관도 참 많다. 첫째로 수면습관이 많이 개선되었다. 복무 전에는 늘 새벽 3시 근처가 되어 늦은 시간에 잠이 들고, 불면증에 시달려 3~4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런데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조금 더 일찍,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게 되어서 불면증이 많이 완화됐다.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개선점도 있다.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귀찮아서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근무 중에 자주 하니 익숙해져서 필요할 때 바로 하게 됐다. 또한,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도 없어졌다. 힘들기 전에, 힘들 것 같아서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힘들 것 같기만 했던 복무가 막상 겪어보니 예상보다 덜 힘들었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됐던 경험 덕에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내년에 소집해제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바뀐 생활 습관은 꼭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지개를 보며...

늘 고난은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운명에 불만을 품고 살 것인지, 어떻게든 역경을 딛고 할 수 있는 일을 해 낼 것인지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사춘기에 찾아온 이유 없는 청각 장애는 나를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지내게끔 했다. 대학교 입시는 예비번호 1번을 남겨두고 탈락했다. 조금 힘든 통근이나 잦은 외근도 복무 초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었다. 굴곡 없는 인생은 없다지만 나는 내 인생이 유독 시련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남 농아인 협회에서 근무하며 만난 경남 각 지부의 농아인 분들 중 대다수가 나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순탄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한 분 한 분 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열심히 살고 계신다.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오듯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갑작스레 찾아와 우리의 인생에서 먹구름을 걷어내기도 한다.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면, 당신은 절대 무지개를 볼 수 없을 것이다.’는 찰리 채플린이 한 말처럼, 당장의 역경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 행복한 순간마저 놓치게 될지 모른다.

내년 1월말 소집해제이기 때문에 어느새 복무가 7개월 남짓이 남았다. 하지만 D-DAY를 하나하나 세지 않으려 한다. 남은 복무일수가 그져 어쩔 수 없는 병역의무 때문에 했던, 빨리 끝나기만을 손꼽아 헤아리는 나날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쉽고 순탄하기만 한 업무가 있진 않지만, 의미가 있는 날들인 만큼 남은 복무도 당장 주어진 하루 일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꿈의 발판이 되어준 사회복지

김 재 호 | 속초노인복지센터

어떤 신체등급을 받더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었던 2014년 개학식 다음날, 어느 순간 머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며 입파선 쪽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피로가 쌓여서 몸살이 왔나, 생각했는데 감기증세도 같이 동반하며 열이 떨어지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조금 큰 △△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우선 독감인 것 같다고 하며 저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었고 복용하고 나서는 괜찮아 지나 싶었는데 오히려 열이 40도까지 치솟으며 얼굴은 붉게 변하고 열화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하여 ○○병원으로 긴급이송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수액만 맞았을 뿐, MRI 검사와 각종 세부 검사를 해보았지만 열이 잡히지 않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 □□병원으로 긴급이송 되었고 집중치료실에서 소아병동 교수들이 모여 저의 상태를

검사하여 간신히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방법을 찾아 ‘소아 중앙 혈액과’ 교수가 저의 주치의가 되어 1인 무균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주치의는 부모님께 “생존율은 40%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죽을듯한 고통을 느끼며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한 열화상과 약부작용으로 얼굴과 온몸에는 붉은 화상 딱지가 거울을 볼 때마다 흉측하다는 느낌일 정도로 덮이고 눈앞에서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졌습니다. 제가 왜 무균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상당히 혼란스럽고 무서웠는데 옆에서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어 그 두려움과 아픔을 참고 견뎌내려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탈모 때문에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짝 밀게 되었고 그 순간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잊혀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항암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몇 달 동안 항암치료와 통원치료를 계속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항암치료요법이 잘 통해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생겨 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병명은 혈구탐식성립프조직구증후군이었는데 희귀병이라 딱 간단명료한 이름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병은 복무하는 이 순간에도 완치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발병 후 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픈 사람 아닐 꺼라 생각 할 정도로 정상인처럼 잘 지내고 있으며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로희망은 사회복지사

중학교 3학년에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인해 고생이 많았던 해였지만

병으로 인한 유급을 받기 싫어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며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고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반년동안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우관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2학년 때 상담반 동아리를 가입하게 되었는데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저처럼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월 동안은 심리학과 또는 비슷한 전공이 있는 대학교들을 찾아보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학년 2학기 때 속초의 어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촬영해주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말벗활동을 하는 봉사라기 보단 이론 위주의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분들을 보고 ‘아, 심리치료사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듬어 주겠지만 사회복지사는 힘든 사람의 마음을 보살피 주며 말벗도 해주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것저것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 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사회복지를 해야겠다.’ 다짐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는 동안 사회복지학과를 가기 위해 공부를 해서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 나에게는 2년간의 진로체험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받는 기관이 저희 지역은 90%가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저는 배정 기관 명단들을 보고나서 앞으로 어떤 기관에 배정이 되었든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근무생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 근처의 속초노인복지센터로 배정이 되었고 19년 1월 28일날 저는 선복무로 보은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4박 5일간 복무기본교육을 받은 뒤 2월 4일부터 속초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게 된 일은 사무실 사무 보조, 간단 문서작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보조 등인데 복지시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분들이 정말 잘 해주셔서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복지센터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특히 저랑 같이 프로그램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무슨 서비스를 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략 5개월간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꿈인 저로써는 2년간의 복무생활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무생활동안 버리게 된 편견

복무하고 몇 달 동안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2주에 한번 씩 어르신들 이불빨래 서비스를 도와드리러 가는 일이 있었었는데, 이 서비스는 이불같이 무거운 빨래들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세탁하기 많이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대상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세탁이 필요한 이불 빨래를 수거하여 지역 내 연계되어있는 기업에 빨래를 맡기고, 빨래가 완료된 세탁물들을 수거한 집에 다시 배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분담하여 이불빨래 한 것을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드리면 감사해하며 받아 주실 때 배달 해드리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면서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있었던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기분이랄까, 사실 노인복지센터에 들어오고 나서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같은

또래거나 어린친구들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작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만나봤던 ‘꼰대’ 마인드를 가진 어르신들이 저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분명 모든 어르신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어르신들이 대화를 걸면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어르신들 때문에 상대하기 불편할거란 편견이 이 센터에 들어와서 사회복무요원 활동을 하다 보니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노인복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을 만큼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고 보니 외롭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 속초가 제 생각에는 진짜 많이 발전한 동네고 잘 사는 동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할머니 할아버님 댁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생각이 짝 사라지게 만드는 집이 한둘이 아니구나,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구나, 특히나 거동이 불편하시던지, 눈이 잘 안 보이신다던지, 귀가 잘 안 들리시던지, 그럴 때 독거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드실까 ‘고독사’라는 게 참 딱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지원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에 대한 다짐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점으로 복무기간이 앞으로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로써 성실히 임할 것이며 또한 저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들어 온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들을 얻어가고 많이 배우고 값진 경험으로 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비전을 향한 디딤돌

안 준 | 울산과학기술원

● 니가 사회복무요원 이라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20대의 약 2년이라는 시간, 한 번 다녀올 거, 해병대 수색대로 자원입대해서 당당하고 용감한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20살 여름,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는 4급 보충역 판정이었다.

선척적 척추분리증이 초등학교 때부터 20살까지 축구부 생활로 인해 전방전위증까지 발생시킨 것이 원인이었다. 담당의사와 면담도 했지만 결과는 “입대 해봤자 바로 퇴소 당한다.”라는 충격적인 답변뿐이었다. 같은 시기에 친구들은 모두 현역판정을 받았다. 친구들도 “특전사를 가도 남을 놈이?”라며 질타아닌 질타와 부러움을 샀지만, 나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공헌한 사례들을 뉴스에서 보기도하고 주위에 복무하는 동안

보람차게 시간을 보내어 목표를 달성하거나 스스로 발전한 사람들을 보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무원으로써 복무하는 동안 내 스스로가 마음가짐과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재정비의 시간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20살까지 축구부였다. 만성적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요통 때문에 훈련을 강도 높게 한 날에는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고 다리도 저려왔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근력운동을 하였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강한 근력을 가지고 버텨내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고1, 고2, 고3 총 세 차례의 축구부 해체와 친선경기를 통해 눈에 띄어 진학이 확정 되어 있었던 대학교의 사정으로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남들은 다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나는 20살이 되어서도 정처 없이 실업팀 테스트를 전전하며 떠돌았다.

그러나 기회는 오지 않았고 결국 축구선수라는 꿈이 좌절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신세한탄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에 축구부 시절, 팀 닥터에게 치료를 받으며 관심있었던 재활치료사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1년 남짓한 시간동안 밥 먹고 축구만 했었던 내가, 매일 혼자 도서관에서 독기를 품고 공부하여 우여곡절 끝에 물리치료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남들보다 1년이 늦었기에 나는 더 열심히 했다. 공부만 했던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군 복무도 미루고 2년 동안 정신없이 학과 공부와 학회장으로 활동하며 시간을 보냈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휴학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회복지무원으로 소집이 되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어차피 시작 된 거 뭐든 얻는 게 있을 거야. 이왕 할 거 하나라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꽤 늦은 나이에 훈련소에 왔지만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지금까지 정신 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내게 다시 한 번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 할 수 있는 시간, 가족과 비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며 재정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교 선생님, 수의사, 전직축구선수, 직장인, 카이스트생, 피아노 전공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간접적인 경험도 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에게 어딘가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

나는 팀장을 맡게 되었고 소극적인 팀원들에게 ‘몸은 불편하겠지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자.’고 독려하며 생활하였다. 팀원 모두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훈련과 생활을 하니, 비록 외적인 불편함이 있음에도 모든 팀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었고 훈련과 생활 모두 잘 마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훈련소에서 팀장으로써의 경험은 내게 리더십을 키워준 좋은 시간이었다.

사회복무, 또 하나의 유익한 경험

나는 무작위소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시설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네 개의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의외로 울산과학기술원에 배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런 곳에 사회복지요원이 왜 필요한건지 의문을 가졌지만 실제로 복무를 하며 이곳에도 사회복지요원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의 근무지는 안전팀이다. 주 업무는 안전순찰, 소방관제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연구시설이 많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실용성은

높이는 저차원탄소 사용 개발 연구동, 무게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며 4차 산업의 제품들의 핵심되는 소재들을 개발하는 첨단소재연구동, 암, 뇌손상질환, 수명연장, 안티에이징 등을 줄기세포를 통하여 치료, 개발하는 연구동, 전기차, 수소차의 원동력을 만드는 이차전지 연구동, 지구상에 세 대만 존재하는 고압축기계 등, 한 마디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

그렇기에 순찰을 돌 때에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중요한 시설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수상한 사람이 출입하지는 않는지, 연구실에 화재는 없는지, 도난당한 물품이나 파손될 우려는 없는지 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또한 항상 쉽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장비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화재위험이다. 연구 자료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 시 발빠른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에 소방관제 동안, 늘 주의 깊게 모니터들을 살펴며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통하여 나 또한 사회발전 기여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곳에서의 경험은 나 스스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전문 기술력과 지식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보고 그 분들의 조언을 들으며, 나도 짧지 않은 이 시기에 내 비전을 위해 시간을 보람차게 사용하고 더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는다.

제 2의 도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약 10년 간, 축구선수라는 꿈을 위해 실 새 없이 내달렸다. 그러나 10년 동안 고생한 결과를 실패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때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나는 꿈이 좌절 되고 한 동안 방황했었다. 모든 게 고통스럽게만 느껴지고 다 싫었다. 그러다 불행 중 다행히도, 새로운 목

표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것을 지극히 나의 삶의 영위와 실패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 했었다. 처음엔 그랬다. 그래서 물리치료과에 입학하고 나서도 병원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아픈 부위만을 치료해 주거나, 스포츠팀 닥터가 되어 운동선수들의 부상부위 회복에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신체적인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요인들은 그에 맞는 전문가가 치료하면 되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훈련소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에도 상처를 입은 동기들을 보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불편한 분들이 사회복지무원의 작은 도움에도 기뻐하고 생동감있게 살아나는 모습을 직, 간접적으로 겪어보며,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아픔만이 치료되면 다 해결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내적, 외적으로 모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진심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치료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에게 더 큰 비전이 생겼다. 앞으로 남은 복무 생활을 더 유익하게, 성실하게 보낼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에 귀한 경험을 토대로 훗날, 진심을 다하는 치료사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리라.....



동행, 함께 성장하는 우리

김 건 중 | 동방중학교

대학생의 나

7시, 휴대폰 알람이 귀청을 휘저을 때 내 하루가 시작된다. 떡진 머리에 물 칫을 하고 식탁 위에 계란 프라이 몇 개 집어먹고 버스를 타러 집을 나선다. 봄비는 지하철 안, 자리경쟁에서 밀린 난 손잡이를 잡고 부족한 잠을 청한다. 동아리 활동을 끝으로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전철에 오른다. 평택역에 도착하면 10시, 인스타그램으로 저녁을 때우고 카페에 들러 과제를 한다. 커피만 5잔째다.

훈련소 가기 전 마지막 방학, 휴학 신청서를 내고 그동안의 시간을 되짚어 봤다. 행복하지 않다. 3년 대학생활 만에 깨달은 사실이다. 그것은 인생의 회의감으로 다가왔고 곧 나를 부정적인 사고로 내몰았다. 내 외형, 내면 모두가 싫었다. 바뀌자! 명쾌한 해답이었다. 그렇게 2년간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2년간의 목표 : 아쿠아 슬론 완주, 금연, 자격증 취득하기, VMS, 1356에 봉사활동 500시간 채우기, 행복하기 등

동방학교

근무 첫날, 안개가 유난히 짙었던 날이었다. 이슬비를 맞으며 걸었던 출근길은 상쾌했다. 학교 옆 숲은 나무가 물을 머금어 시원한 바람을 여과시켰고 흐릿한 동방학교의 운동장은 적막의 무게를 더했다. 학교 안, 계단을 올라가면서 앞으로 내 2년의 삶이 담길 곳이기엔 학교 안의 풍경을 유심히 살피며 걸었다.

아이들 등교 전, 담당 선생님을 찾아뵙고 앞으로 주의사항 및 배정받을 받을 공지 받았다. 그리고 학교 내부를 구경하는데 헬스장이 있었다. 훈련소에서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하며 운동에 취미가 생겼는데 교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 그 외에도 강당(예배 시설 구비), 체육관(실내 농구 코트 구비), 음악실, 공예실, 가사실, 사회복무요원실, 감각 훈련실 등 상당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기대감을 자극했다.

또, 동방학교에는 당시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였는데, 모두 처음 온 나와 동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이 동료들은 내가 동방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이 되면서 다 큰 아이들을 상대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편견은 1교시 수업시간에 아이들의 활발한 모습과 쉬는 시간에 반에서 노래를 틀면 춤을 추러 오는 학생들을 보며 사라졌다.

“중간고사는 언제죠?” 동방학교에 와서 담임선생님께 고심 끝에 던진 첫 질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특수학교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의아했다. 경쟁이 없는 환경은 나에게 익숙지 않았다. 동방학교 학생들에게 ‘비교’라는 단어는 불필요했다. 국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자마자 한 학생은 “아그작봐요 아그작!”라고 소리쳤다. 알고 보니 동화 ‘도깨비와 개암’ 얘기였다. 선생님께선 동화를 틀어주시고 인물, 사건 등을 아이들에게 재차 질문하며 내용을 숙지시켰다. 내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이다.

대부분의 수업들은 이러했으며 색종이 접기, 가면 색칠하기, 쿠키 꾸미기, 춤 따라 하기, 비즈공예 만들기 등이었다. 20대가 돼서, 경제학과를 전공하면서 접하기엔 어려운 경험이었다. 어른이 된 나였지만 이런 수업들이 색다르고 재밌었다. 더 잘 만들고 싶고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도 나를 구성원으로 생각해 주었다. 이제 먼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인사해주었다. 만나면 손가락 하트를 해주는 학생, 매일 안부편지를 써주는 학생, 품에 안기는 학생 등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순수함은 내가 동방학교에 근무하면서 찾았던 잃어버린 감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특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내가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사회복지무원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형처럼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있어 다행이라 하시는 것처럼, 학생과 나는 같은 Z세대로서 관심사와 통하는 것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농구이다. 실내 농구 코트가 있듯이 동방학교 학생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나 또한,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점심시간마다 농구를 했을 만큼 농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주말에 농구를 하자는 학생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다. 그렇게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근처 대학교 농구 코트에서 아이들과 공을 던지곤 했다. 업무가 아닌 내 취미로 말이다.

동방학교는 기독교 학교이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주마다 한 반씩 특송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반 차례가 다가왔고, 노래만 부르면 뭔가 심심할 수도 있어서 전 주 주말에 직접 영상을 제작해 무대 분위기를 한 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본인이 나오는 영상을 너무 좋아해줬고 무대가 끝났어도 학생들이 매일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에 준비 기간 동안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부터 성격이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적극적이고 싶었다. 점심 쉬는 시간, 아이들이 TV 앞에 아이돌 무대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거나 아이들의 장난에 맞춰주는 등 이전엔 하지 못했던 행동들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더 성장할 수 있어!

고등부에서 2학급을 지내면서 학생들이 전공과를 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았다. 전공과에 입학하려면 배수관 조립, 도서 분류, 콘센트 조립 등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독립하여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험을 보고 면접도 봐야 한다. 동방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 학교 학생들도 지원을 하여 경쟁률도 높다고 한다. 다행히도 작년 우리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 전원이 합격을 하였다. 선생님들, 사회복무요원들 모두 몇 달 전부터 스피드 연습, 면접 연습 등을 도와가며 아이들의 합격을 기원하였다.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왜 저는 다른 친구들 보다 배수관을 더 빨리 조립하지 못 할까요?” 한 아이가 나에게 와서 한탄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곤 더 연습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론 학생이 걱정이 되었다. 같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의 연습을 도왔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었다. 그리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라도 된 것처럼 너무 기뻐다. 노력의 성과였다. 답답한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며 연습한 아이가 너무 대견해서 합격한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며 합격을 축하해줬다.

모든 아이가 전공과에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아이들은 성인 생활시설, 그룹 홈, 주간보호센터, 취업(보호 작업장 등) 혹은 집에서 지낸다고 한다.

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한다. 그래서 매번 휠체어를 탄 아이 근육을 길러주기 위해 손에 그립 볼을 쥐여 주고 당겨준다. 그리고 색칠 공부를 할 때도 되도록 본인의 힘으로 색연필로 색을 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반에 다운증후군 학생은 등교 때 손을 안 잡아주면 계단을 올라가지 않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올 수 있도록 옆에서 다독여준다. 이렇듯 학교를 떠나더라도 아이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나의 □다.

아이들은 나의 가치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난 행복하지 않았다. 무엇이 행복의 기준인지를 몰랐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난 뒤, 내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난 색칠 공부를 함께 해줄 수 있고, 밥을

먹여줄 수 있고, 농구 경기에 관하여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휠체어를 끌 수 있으며, 요리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아직 행복하다고 단정하진 않지만,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난 어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 봐”

(볼빨간사춘기 - 나의 사춘기에게 中)

앞으로의 나

아직 반도 하지 않았지만 꽤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 같다.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운동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금연도 하는 등 잃었던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다. 그 중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봉사시간 300여 시간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영어교육 봉사, 요양원 봉사, 헌혈 등 많은 봉사를 해도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1년, 긴 여정을 떠나며 동방학교에서 아이들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소음에서 행복을 찾은 이야기

노 선 재 | 춘천동원학교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돌보는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지만 저에겐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잠깐 번거롭고 불편할지는 몰라도 정성으로 대한다면 그보다 큰 행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희생이 따르는 쪽은 학생 쪽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제가 담당할 반의 학생입니다. ○○이도 의사소통의 부재 때문에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의 첫 모습은 ‘소음’ 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점심시간마다 뛰어노는 특수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밝고 착해서 같이 뛰어놀자고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다가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게 장애인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이도 그럴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새 학기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는 이상하게 꺾인 손가락, 턱에는 침방울이 흐르고 바닥을 기는 채 있었습니다. 그냥 그럴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말을 걸어보고 웃어봐도 도통 마음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쉽게 친해지기는 커녕 눈만 마주쳐도 저 멀리 도망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만치 떨어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언제나 소리가 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하루종일 연필깎이를 돌리고 계산기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가져다 줄 때도 무언가를 쉬지 않고 두드렸습니다. 결국 시끄럽다고 혼이 났고 손가락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때마다 제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왜 소리에 집착하는지는 알지 못 한 채, 그저 침을 닦아주거나 소음을 말리면서 이번 학기가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이가 내고 싶었던 소리

음악 시간에 우연히 ○○이가 피아노 앞을 지나갔습니다. 피아노를 슥 훑고 잠깐 멈춰있더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치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소음이 생겨날 뿐이었습니다. 못 치게 하려던 찰나에 ○○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드디어 마주쳐줬다는 놀라움도 있었지만 너무 즐거워하는 눈동자에 한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의 눈은 분명 즐거워서 반짝이기까지 했습니다. 여태껏 두들긴 게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거였나, 너무 강압적으로만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니 나름대로 화음을 맞춰서 젓가락행진곡같이 들을 만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어나서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을 텐데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문득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등장인물처럼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건반을 누를 때마다 ○○이가 짓는 표정은 영화의 몇

배나 더 행복해보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안 쓰는 피아노를 물어물어 교실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피아노를 옮겨오는 저를 ○○이가 신기한 듯이 쳐다봤습니다. 연주하는 ○○이는 언제나 음악실에서의 눈동자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무언가 더 해주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었습니다.

○○이는 클래식 연주곡을 틀 때면 피아니스트처럼 건반에 고개를 떨구고 심각한 표정으로 집중합니다. 직접 연주하는 걸로 아는 걸까요.

특히 가장 좋아하는 동요가 나올 때면 숨조차 멈추고 노래를 감상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진짜로 쳐보면 잇을 수 없는 경험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월급을 받자마자 집에 피아노부터 샀습니다. 피아노라곤 초등학교 때 몇 달 쳐본 게 전부지만 그 기억을 충동원해서 쉬운 동요부터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손을 포개어 잡고 ‘구슬비’를 알려줬을 때 ○○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만큼 쉬운 노래가 아닌데 이제 앞부분 조금 정도는 혼자서도 치는 게 대견하기만 합니다. ○○이 집에서도 깜짝 놀라 전화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못 치더라도 마음과 정성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전보다 자신감도 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같이 피아노를 치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집해제를 하고도 꾸준히 봉사하러 오는 선임 형이 있는데 저도 선임 형처럼 매주 나와서 ○○이와 연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음악 시간의 피아노 사건을 그냥 매일 나는 소음이라고 여겨 지나갔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동안 눈을 마주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후부터는 ○○이의 아주 작은 표현도 주의 깊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피아노로 하는 대화

○○이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물론이고 요새는 점심시간마다 트램펄린을 타러 가자고 제 손을 잡아끌기도 합니다. 심심하면 학교 카페나 정원을 산책하는 등 같이 다닌 곳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 블루베리 농장에 견학을 가서 같이 열매를 따 먹은 일, 떡케이크를 만들다 쌀가루를 쏟아서 한바탕 웃은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안 마주쳐주다가 이제는 종종 웃으며 배꼽인사도 해주는데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둘이 워낙에 딱 붙어서 다니다 보니 어떤 선생님께서는 저를 ‘○○이 형아’라고 부릅니다. 기분 좋은 별명입니다.

말과 글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값진 경험입니다. ○○이는 말도 잘 못하고 연필도 못 쥐지만 저와 대화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피아노를 치는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악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가는 중에 ○○이가 갑자기 멈춰서는 침을 닦으며 벽에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다가 음악실에 손수건을 두고 왔냐고 물어보니 맞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연 만큼 ○○이가 감정을 솔직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끔 창가에서 초록색 화분에 핀 흰 꽃을 가만히 바라보곤 합니다. 학기 초엔 짝만 겨우 트다가 어느새 다 피워낸 꽃이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꽃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소음에서 소리, 대화까지

처음에는 장애인이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물어보고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라면 때로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도 하겠지만 사실 ○○이처럼 말을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와 준다는 명목으로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억누른 셈이 되었습니다. 도움이라는 게 이렇게 어설픈기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표현에 귀 기울여주고 감정을 내 감정처럼 생각해본다면 말입니다. 처음 ○○이의 행동을 그냥 모르고 넘겼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소음이었습시다. 왜 그러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있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아무 쓸모없는 소음에서 피아노의 건반이라는 표현을 잡아냈을 때 비로소 소음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이에게 이 소리는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 의도와 감정을 읽으려 해보니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와 대화를 해보려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꼭 말과 글이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단은 많다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다가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도움이란 응크려있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새싹교실의 새싹 한 줄기

한 경 빈 | 신성종합사회복지관

소집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에서야 익숙해진 호칭이지만, 지금까지 인생 절반을 학생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로 불린다는 건 낯 뜨거운 일이었다.

선생님이라는 건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바르게 가르칠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썩 열심히 하지도 않은 공부를 핑계로 학생이라 불렀다면 아직은 딱히 뭘 가르칠 게 없어도 선생님이라 불리는 것도 괜찮겠지 싶었다.

그렇게 해본 일이라고는 학교생활밖에 없던 공대생인 나는 아동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새싹교실 선생님이 되었다. 학교가 끝나는 점심 즈음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 선생님 소리 들어가며 초등생 새싹들과 부대끼며 놀고 간식을 만들어 먹이고 퇴근길까지 같이 하는 생활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내가 선생님이었는지 학생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오히려 많은 걸 배운 듯하다.

● 누구나 어릴 땐 그랬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대부분인 새싹교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단법석이 제일 어울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먼저 주어진 업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지도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뛰고 땀 흘리고 서로를 놀리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은 나를 자주 황당하게 만들었고 퇴근 후에도 엄마와 저녁을 먹으며 내내 얘기하기 좋은 주제가 되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애들이 이러쿵 저러쿵, 정말 웃기지 않아? 이해가 돼?”

하면 우리 엄마는 기가 찬 듯 이리셨다.

“너도 어릴 때 똑같이 그랬다.”

어쩐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영 새롭지만은 않았던 이유를 엄마에게서 듣다니, 당황한 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황당하기보다는 어떤 노스텔지어로 변해갔다고 할 수 있겠다. 틈만 나면 서로를 놀리며 왁자지껄 놀다가 울면서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웃으며 뛰어놀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몇 시간이고 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마치 내가 논 것처럼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시청각적인 자극은 교묘하게 즐거움을 숨기고 있어서 고스란히 나도 느낄 수 있게 된다.

몇 년 동안을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책 보고 컴퓨터 두들기고 하던 따분한 공대생에게는 꽤 그리운 감정이면서도 활력을 되찾아주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남는 사탕 하나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신나하고 특기 교육 선생님이 오시는 길에 차가 밀리는 바람에 자유시간이 10분 더 생긴 일에 마치 방학이라도 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웃게 만들까, 아니 어떻게 해야 안

웃게 만들까 장난스레 말할 정도로 가끔은 질투까지 유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은 나도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끼어들기도 하고, 놀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쫓겨나기도 하는 법인데 그렇게 놀다 보면 내가 선생이 아니고 아이들이 내게 노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 이렇게 1년이 넘게 지내보니 누구나 아이였던 적이 있고 나도 그랬기에 더 아이들이 잘 놀며 성장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사회복무로도 부족했는지 주말에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되찾아주는 취지의 아동 인권 프로그램 “칠드런”이라는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키다리 아저씨의 보람

아이들은 나에게 여러 별명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경빈샘과 발음이 비슷해 붙여진 변비샘같은 자랑스럽지만은 호칭들에 비하면 키다리 아저씨는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제일 내 맘에 드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기 중엔 저학년 아동들이 원활하게 복지관으로 올 수 있도록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는데 이제 막 신발을 갈아 신고 나오는 저학년 아이들은 마치 그렇게 부르기로 합심이라도 한 듯 나에게 하나같이 키다리 아저씨라고들 소리를 지르곤 했다. 살면서 키 크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키 큰 덕은 본 적 없다고 생각해왔던 나였으나 186의 키가 아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의 간단한 해결, 이를테면 나무 위에 올라간 실내화 따위를 까치발로 꺼내주기 같은 일들이 수많은 아이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걸 이내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야 보이는 그대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여러 방법으로 별명에 썩 어울리는 일을 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매일 간식을 먹이는 것도 새싹교실의 주요한 업무인

데 보통은 떡볶이라든가 빵처럼 사서 주기만 해도 되는 간식이 있는가 하면 계란 토스트, 토마토 파스타같은 조리 식품도 일주일에 두어 번은 직접 한다. 집에서 혼자 해 먹는 라면도 귀찮아하는 나지만 간단하게 만든 요리여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내 입으로 넣는 것보다도 더 포만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장 좋아하는 말은 자연스레 “더 주세요!”가 되었다.

또 어느 날은 인터넷에서 본 어떤 보드게임을 아이들과 너무 하고 싶었으나, 한글판이 단종되어 영문판만 존재한다는 비보를 듣고는 직접 만들기를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쳐 포토샵 작업을 하고 프린트하여 또 며칠에 걸쳐 자르고 붙이고 일 벌인 걸 후회하고 했지만 결국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완성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지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 새싹교실 벽이고 문이고 이곳저곳 손길이 닿는 부분들을 꾸미며 생활하다 보니 내 안에 있던 새로운 모습, 정말로 누군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된 것만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효율과 결과물만을 중요시하던 나에게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어른의 눈으로 볼 때 미미한 이런 활동들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내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듯이 몇 배로 크게 피어난 행복들은 여러 색깔의 물감이 되어 내 마음에 자국을 남겼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새싹교실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다닌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한 친구를 소개할까 한다. 나는 작년 3월부터 새싹교실을 도맡았고 올해 2학년인 ○○이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지금까지 새싹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니 나를 두툼한 신뢰 관계를 형성했을 법하다. 물론 나에게겐 새싹교실 친구들 모두가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다만 ○○이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먼저 같은 늦둥이기도 하고 항상 껌딱지처럼 나를 따라다닌 이유도 있어서다.

혼자서도 친구들이랑도 잘 놀지만 선생님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때 정말 신나 하는 ○○이는 새싹교실뿐만 아니라 퇴근길에까지 나를 쫓아 왔는데 자주 나의 퇴근길에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다. 나는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역까지 가는 길에 쫄래쫄래 쫓아오며 자기네 집도 이쪽으로 가면 나온다는 ○○이는 역 앞에서 나를 붙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끝내지 않아 결국 역지로 도망친 적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네 집에 퇴근하면서 후원 물품을 줄 일이 있어 ○○이한테 앞장서 하고 따라가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먼 곳으로 돌아가는 ○○이를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역에서 꽤 떨어진 ○○이의 집에 물건을 내려주고는 퇴근하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고 다음 날에도 역시 퇴근길을 쫓아오는 ○○이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 오늘부터 쌤이 너희 집 쪽으로 돌아 가줄게.”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도 ○○이와 함께 퇴근하게 되는 날이면 조금 늦을지언정 ○○이의 집이 있는 골목까지 돌아서 가게 된다.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부드러운 중압감을 주는 것만 같다. 요즘 들어 며칠 뒤부터 새싹교실에 안 오냐고 매일같이 물어보는 ○○이에게 어차피 주말 칠드런 활동마다 볼 건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소집 해제하게 되면 나는 ○○이보다 내가 더 아쉬워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이네 골목 앞에서 끝나지 않는 얘기를 듣는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위치

근무를 시작하기 전 누구나 그랬겠지만 나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위치에 회의감이 든 적이 있었다.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면서 기관의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한다니, 자칫 외판 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서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도 아닌 사회초초년생인 나는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꼭 학업적인 지식만 배워야 배움의 장은 아니지 않은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미래를 헤쳐나갈 내면의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고맙게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관은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이었다. 어르신들, 아이들, 학부모님들, 그 외 이용자분들과 또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같이 일하는 복지관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새로운 만남과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으나 점점 사회복지의 마음가짐이 나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선생님들과도 매일같이 웃고 떠들며 즐길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일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다가 같이 숙제도 하고, 학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며 지낸 시간은 나를 단순히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 아닌 이 복지관과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게 했다. 나는 ‘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은 상상 이상의 힘이 되어 앞으로의 나를 도와 줄 것이다. 복무 기간동안 나와 스쳐 간 모든 사람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고, 나도 그들에게 자그마할지언정 도움을 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는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겠지만 사회복지원으로 지낸 순간순간은 언제나처럼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줄 것만 같다. 새짜교실 선생님으로 지냈던 2년이지만 나 역시 새짜교실의 새짜한 즐거웠다고 느낀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매일매일이 설레는 날이다.



특별한 자리

김 하 연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가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곳은 춘천에 있는 강원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다.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2주간 경험한 곳은 자립지원 팀의 주간보호소이다. 주간보호소는 성인 장애인 분들이 낮 동안 이곳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 주변에는 장애인이 있었기에 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나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무원으로 소집 직전만 해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일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종이에 이용인들의 이름과 성격 등을 적고 외우는 등 정말 열심히 복무하려 했다.

그리고 나는 예정대로 원래 근무하게 될 상담사례지원팀으로 이동을 했다. 상담사례지원팀에는 청소년과 어린이 위주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나는 싫지 않았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적응을 금방 했다.

그중엔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꿈드림은 단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신체 능력도 향상하면서 집단생활에 적응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꿈드림1, 2는 각각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 있고 꿈드림3은 다른 팀의 사회복무요원이 맡아서 했다. 그 후 상담사례팀에선 6개월을 복무했고 기관내에서 재배치가 되었다. 자립지원팀 주간보호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꿈드림 아이들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다. 그런데 한 요원이 소집해제를 해서 꿈드림3 프로그램은 공석이 되었다. 원래는 시설 담당 요원이 꿈드림3을 맡도록 되어있는데 상담사례팀 측에서 내가 맡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다며 꿈드림3을 겸해서 맡게 된 것이다.

총 7명의 중학생이 있었고 다들 개성넘치고 재미있는 학생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이는 지체장애가 조금 있는 편이었다. 조금 산만했고 근육도 발달이 덜 되었고 발음도 명확하진 않아 의사소통이 확실하지 않지만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하루는 ○○이가 수업 도중에 체육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에게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니까 판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장난을 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며 얼버무렸고 내가 다가갔고 ○○이가 실수로 내 팔을 한 대 때리게 되었다. 실수라기엔 감정과 힘이 좀 실려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지금 뭐 하는 거니?”라고 물었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인상을 쓰면서 더 세게 때렸다. 황당한 표정으로 나는 ○○이를 바라봤고 그사이

그 아이는 자기 잘못을 이해했는지 체육관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다.

체육활동이 재개되었고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 기분 때문이었을까 그날따라 ○○이의 기분과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끝났다. 체육선생님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는 인사하자마자 밖으로 도망을 갔다.

나는 ○○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께 직접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이는 이미 차에 올라타서 이동 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은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감정적이 되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있었다. 수업 이후 선생님께 이야기를 잘 드렸고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렇게 다음 주가 되었고 그 아이도 출석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사를 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허탈했다. 물론 시간이 흐른 만큼 나도 기억은 많이 희석되었고 그 부분에 별생각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이는 나오질 않았다. 그 날 오후 알게 된 사실은 ○○이가 집에서 쓰러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날은 쓰러지고 일어나지를 못했고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이라 했다.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하여 몇몇 선생님들과 같이 병원에 찾아갔다.

잠들어있는 ○○이를 보니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기도도 해줬다. 집에 가서도 기도를 했다.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복지관에서 충

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다. 중환자실에 있던 ○○이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상담사례 지원팀에서 주간보호소로 이동을 했기에 소식을 직접 듣지는 못하고 건너건너로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얼른 장례식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퇴근 후 차를 타고 빨리 가봤다. 다행히 많이 늦지는 않았다.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조문을 해야 할지 생각이 들지를 않았다.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이용인의 부모님들을 만났다. ○○이 부모님의 요청으로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이의 부모님이 계셨다. 조문 후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나를 보는 ○○이 어머니께서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아마도 서로 초면이고 나 혼자 찾아가서 모르셨나 보다. 나는 사회복지무원이고 ○○이가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 못까지 다른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로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바쁜 일이 있어 금방 나왔다.

○○이에게 보여준 마지막 내 모습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다. 그리고 후회됐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히 계속 흘러만 갔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요원 배치가 조금 바뀌면서 꿈드림3은 다른 요원의 몫이 되었다. 주간보호소와 꿈드림을 같이 하다 보니 몸도 정신도 매우 피곤한 2개월을 보냈다. 하지만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이를

만난 것은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가졌던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생각은 군대보다 편하거나 쉬울거란 것이었다. 아마 다른 사회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한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사회복지요원을 했기에 복지관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군생활하고는 또 다른 삶의 교훈이라 생각을 한다.

다사다난한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지금, 나는 여전히 주간보호소에서 근무 중이다. 나는 13명의 이용인, 4명의 선생님과 같이 지낸다. 이용인의 반절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각각의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이를 바라본다. 순수한 그분들을 보면 나도 즐거워진다. 웃으면서 다닌다. 몸이 힘들지만 마음은 즐겁다. ○○이와 지냈던 날들을 생각하며, ○○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아마 소집해제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난 지금의 여기가 좋다.



창신화랑경(創新花郎境)

손 호 영 | 경주시청

새롭게 만들어가는 화랑의 세계

 **창신(創新) : 새롭게 만든다.**

- 내 발목을 잡았던 심장, 사회복지무요원 근무지에서 다시 뛰다!

“사회복무요원 ”

나에게는 의미가 깊은 단어이다. 이 단어는 내 생각을 변화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13년 간호대학을 입학하여 평소 원했던 간호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군대를 의무병으로 가기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여 2014년에 해군으로 드디어 입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들이 맞는 것 같았다.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심장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 타의로 퇴소를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남들과 같았으며 미래 또한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질병의 발견은 충격과 불안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에 친구와 동기들은 입대를 하고 군복무를 시작하였으나, 나는 죽음이 한층 가깝게 있었다는 불안과 인생 계획들이 실행되지 않는 좌절감에 큰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더 깊이 나를 돌아보게 되었으며 청춘과 인생이 가지는 의미, 인간의 삶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가며 학업에 열중하여 2013년도 간호대를 졸업하였으며, 또 다른 도전으로 간호학부 때 실습을 나갔던 정신재활센터로 사회복지요원 신청을 하였다. 평소 정신간호에 관심이 많았으며 전공과 병역이행 두 가지를 가장 의미 있게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신청은 그 해에 허가되지 않았고, 조금은 실망하였으나, 1년을 기다려 화랑마을로 재지원하게 되었다. 결국 2018년 화랑마을로 복무가 확정이 되었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훈련소로 당당히 입소를 하였다.

경주시 화랑마을은 경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었다. 화랑마을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수련원이다. 대지 282,462㎡ 면적에 대형 한옥 건물들이 위치해있으며,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매우 활동적이며 역동적인 복무지였다. 건물사이를 헤매어가며 찾아가 사무실에서는 여러 주무관님들이 환영해주셨고 나의 역사적인 사회복지요원으로서의 첫 근무가 시작되었다.

나는 화랑마을 수련지도팀으로 배치되어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과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심장이 새롭게 두근거렸다. 내 심장은 늘 불안하게 두근거리는 게 아닌

지 불안했었는데, 화랑마을에서 내 심장은 너무나 건강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힘차게 두근거림을 느꼈다.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껏 간호학만 공부하고, 병원에서 긴박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생활을 하던 나에게 전과 다른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활동과 깊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화랑마을의 청소년수련활동은 화랑의 수련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복무생활을 화랑의 수련방법 세 가지로 나누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를 돌아보고자 한다.

산수유오(山水遊娛) : 몸과 마음을 단련

첫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산수유오이다. 옛 화랑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즐기며 수련한다는 의미이다. 나도 많은 장소와 상황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내 마음은 현역의 어느 부대로 향하기도 했고, 좌절감의 강을 건너가기도 했으며, 정신재활센터에도 기대감으로 머물렀던 것 같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업무들의 연속이었고, 그 경험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화랑마을에 첫 업무는 청소년을 위한 보건실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나도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탬이 되고 싶었고 사회복무요원이긴 하지만 사회인으로 나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의상마(道義相磨) : 자아실현/심성계발

화랑은 청소년 무리의 리더였으며, 리더에게 요구되는 성숙한 인성을 수련하였다고 한다. 내가 화랑마을에 복무를 시작했을 때는 화랑마을이 준공이 된 시기였다. 그 후 많은 주무관님들이 발령을 받아 팀원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곧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들 손에서 만들어졌다.

나는 궁금해졌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경험했던 여러 수련활동의 좋지만은 않았던 기억을 준 수련활동들의 의미들이 궁금해졌다. 참가자로서의 수련활동과 제공자로서의 수련활동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곳 화랑마을에서 배워가는 것과 내가 배운 것은 차이가 있을까. 여러 고민들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활동들로 우리청소년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다.

화랑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완수하는 ‘미션엔터어링’, 프로그램, 도전모험시설인 짚라인과 에코 어드벤처 시설을 체험하는 ‘풍월도 전대’, 양궁을 이용한 서바이벌 게임인 ‘편아처리’ 등이 가장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화랑마을에서는 지난 1년간 실행이 되었고 나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모습이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

청소년들 중에는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매우 닫힌 마음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때로는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도자의 의도를 오해하고 반항하기도 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1박2일, 2박3일의 수련활동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오히려 표정이 환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버스를 출발하는 모습을 나는 매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서 내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며 많은 부분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그동안 나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에 임했었던 모습, 그 사이에 있었을 나도 모를 실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내 젊은 날의 ‘사회복무요원’의 시간은 이전까지의 내 삶을 성

찰하며 새로운 성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악상열(歌樂相悅) : 정서함양

화랑들이 매일 힘든 수련과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동료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수련활동도 있다는 것은 화랑마을에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화랑마을은 즐거운 일들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내 발걸음은 힘차고 아침공기는 상쾌하게만 느껴진다. 출근하며 많은 주무관님들께 인사하는 내 목소리는 경쾌하게 노래하고 있고 업무시작 전 커피한잔의 향기는 달콤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일상의 기쁨은 학창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고 위계질서가 확실했던 병원 근무 때도 경험하지 못했다.

물론 때로는 사회인으로 복귀할 때를 대비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한 마음이 떠오를 때도 있다. 그럴 때 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은 관찰을 하였다. 업무에 바빠 보이는 주무관님들의 인생이야기를 틈틈이 여쭙보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배우게 된다. 여기에 와서야 깊은 의미의 ‘공동체’라는 단어를 몸으로 체득하고 어른들에게 다양하게 배우는 것 같았다. 화랑마을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는 나의 감정이 매우 풍요로워짐은 느낀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무원의 삶을 즐기고 있다.

사회복지무원이라는 복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고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다. 이 부족함을 알고 매일 이 흠을 메꾸려고 뛰어다닌다. 어제의 꿈을 꾸던 나와 똑같은 꿈을 꾸는 내일의 나는 발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언젠가 커가는 나를 바라보며 꿈꾸던 모습을 이루어지기를 도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 약한 나의 마음은 그 훗날 돌사탕 같은 마음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군복무를 위해 5여 년 동안 굵이굵이 돌아 다녔다. 훈련소도 2번 가보고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 여러 검사도 해보고, 어린 나이에 병 진단도 받아보고, 저와 같이 병을 진단 받고 우울한 날을 보내는 환자들을 위해 일도 해보고, 인생은 항상 굴뚝에서 피어나는 검은 연기 같은 삶만 있지 않다, 저 넘어 푸루른 하늘같은 인생도 있다. 사회복지가 때로 나를 옥죄는 의무로 생각 되었었다. 하지만 요즘은 한 평생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느끼게 되었다.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며 이 즐거움을 느끼고 눈이 부시게 하루를 보낸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즐거움을 넘어 보람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창신희영경(創新花郎境→創新鎬永境)

- 새롭게 만들어가는 호영이의 세계

병역이행은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어둠, 별 빛 조차 없는 길로 느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어두운 길 넘어 밝은 햇살의 길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길이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하다. 때론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은 꼬부라진 길이다. 하지만 믿고 있다 이 길은 언젠가는 끝이 날것이고 맑은 물살이 흐르는 강가에 누워 쉴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루어고 만들어야할 일이 많은 복무이다. 때론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하다고 보면 맞으면 흥터지지 않지만 아픈 말들을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번 해보고 싶고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심장을 뛰게 하였다. 저는 끝을 알고 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아스팔트 같은 길은

걷지 않고 있지만. 조금 돌아가는

울퉁불퉁한 흙길이지만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소집해제 이후 나에게 맞는 병원에 들어가 간호사로서 사는 것.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삶이 나에게서는 너무 부담이 되고 싫어 졌다. 문득 별똥별이 지나가듯이 생각이 스쳐 갔다. 일생의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사로서의 삶 말고 마음이 설레어지는 일을 여러 분야에서 찾아보고 싶어졌다.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 같은 아픔을 숨기지 말고 혼자 아닌 것을 지도하고, 상쾌한 아침에 차가운 바깥공기와 차를 마시며 다도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화랑마을에서 복무를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 미래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미래의 나에게 배웠노라. 후회하지 않고 잊지 않게 배웠노라 라고. 좀 더 배우고 알아 가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랑마을에서 복무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심폐소생술 자격증(BLS, 응급처치일반과정)을 시간 내어 따로 이수하였다.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혼났었던 아픔이 어른이 되어 깊이 깨우친 것처럼 화랑마을 한 주무관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창신화랑경(새롭게 만들어 가는 화랑의 세계)”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와 닿았지 않았다. 그냥 저보다 먼저 살아본 선생님이 살아오셨던 30년 길을 한자성어로 말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다. 그리고 화랑마을에서는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더위에 찌는 여름이 가고 마음 한편이 그리워지는 가을을 견뎌내며, 모두가 숨죽여 지나가길 바랬던 겨울이 지나갔다. 이젠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맴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구절이 나에게 화살같이 마음에 박혔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호영이의 세계. 화랑마을 복무를 떠나 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선 새롭게 만들어가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해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웰컴 투 효자4동

이 종 우 | 전주완산구청 효자4동

해외의 반응

“So what will you be doing?” ‘그럼 무엇을 하게 되는 거야?’라고 내 복무 사실을 밝혔을 때, 주변해서 했던 말이다. 학생의 거의 절반이 복무를 하게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 있는 내 대학교에서는 징병으로 휴학하게 된 나는, 한적한 소도시에 있는 작은 대학교에서는 학생에게도, 교수님들에게도 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육군이야? 해군이야?’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이 제도에 다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 표정을 뒤로하고 무더운 여름날, 훈련소에 들어가며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소문이 잘못 전해져 옛 명칭의 약칭인 ‘공익’이 와전되어 내가 ‘공군’에 갔다고 생각한 중국인 친구들도 있었다는 걸 안 것은 나중이지만.

이심전심이 연민을 싹틔우다

전주의 주민 센터에서 복무를 시작하게 된 나는 곧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에 꽤 많은 원룸단지를 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방문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투른 외국인들이 주민 센터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내가 미국의 관공서에서 겪은 어려움을 겹쳐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기 위해 방문한 미국의 관공서에서 겪은 경험은 나에게 있어, 내 나라인 한국의 주민 센터를 방문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갔었기에 비록 말은 통하였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 행정 체계, 제도, 외국이라는 압박감이 마음을 옥죄어왔다. ‘말은 통했지만’ 보다는 ‘말만 통했다’라고 말하는 게 나를 정도로. 낯선 부서들의 이름과, 건물 밖에서 펠릭스는 성조기는 나에게 지금 나는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업무가 다 끝나 사회보장번호가 적혀있는 카드를 손에 쥐고 건물을 나와서 일행의 자동차에 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주민 센터에서 복무하면서 외국인 민원인들을 볼 때마다 미국의 관공서에서 쫓겨했던 나를 겹쳐 보게 되었고, 이는 나로 하여금 ‘도와주자’, ‘외국인 거주자들도 전주, 나아가서 이 나라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중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외국인들을 도와주게 했다.

연민의 싹은 도움의 즐거움을 뻗다

처음으로 도와주게 된 건 어느 중국인 아저씨였다. 민원실에 오시자마자 한국어가 서투러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중국어로 우선 앉으시라고 말씀 드렸다. 처음에 자신이 정말로 중국어를 들은 것이 맞는지 반신반의하시다가 몇 초 뒤 안심하고 웃으며 벤치에 앉는 모습

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이후 그분의 차례가 되자 옆에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나하나 도와드렸다. 민원 처리가 끝나자 원어민 같은 중국어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도와준 나에게 그 아저씨는 몇 번이나 쉼쉼(谢谢)을 말하며 악수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무력감을 느꼈었던 나를 겹쳐 보게 된 대상을 내 손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다. 이 뿌듯함을 느끼며 이를 되돌아볼 때, 나는 그 아저씨를 도와드리면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지시 사항이 외국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한국이라는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 사회화되어 여러 맥락을 학습한 사람들이 쓴 서류의 지시사항들은 그 맥락이 부재하는 외부인들에게는 한없이 배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성’과 ‘이름’ 칸마저도 채울 때 나에게 어떻게 기입해야 할 지 다시 묻던 그 아저씨가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나에게 행정의 포용성(inclusiveness)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는 내 특기를 살려서 적어도 이 주민센터에서라도 엄연한 이 동의 주민인 외국인들에게도 이곳이 열려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졌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 계속 외국인들을 도와주면서 그것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알게 된 것은 바로 언어의 장벽은 민원실 입구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집 대문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표준 계약서에 집 주인이 임의로 볼펜으로 짹짹 그어 이름이나 날짜를 바꿔놓아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계약서를 가지고 오거나, 행정구역에 변동이 있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해 엉뚱한 민원 처리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로 임의로 실 거주자를 변경하는 등의 실수로 이 외국인들은, 어렵게 찾아온 주민 센터에서 허탕치고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우연히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주민센터에 오게 되어 일일이 통역을 하는 표상적인

해결 방법 보다는 나의 복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내가 모르는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와도 도움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적인(systemic)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2년 내로 이 주민센터를 떠난다는 것이 단편적인(piecemeal) 도움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는 계기였다.

체계로서 뿌리내리다

한두 달 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주민 센터를 방문하는지 봤더니 근처의 대학교에 유학하거나 교환교수로 오게 된 사람이 많아서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카자흐스탄이 이었다. 이를 취합해서 외국인용 통합신고서를 중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다. 모르는 언어는 기존의 아는 언어들로 번역기를 사용해 결과가 일치할 때 까지 다듬고 마지막으로 해당 모국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검수를 받았다. 러시아사람은 온 적이 없지만,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가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 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또 다른 공용어인 러시아어를 골랐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전에는 외국인이 올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15분 이상은 너끈히 걸려 대기하는 민원인 수가 금방 많아졌다면, 번역본 비치 후 외국인들의 거주지 변경 민원은 처리시간 5분 이내로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특히 유학생들의 주소 이전이 잦은 신학기에도 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외국인 민원인들의 반응

내가 처음 복무를 시작했을 때나, 다국어로 된 서류 작성 예제 및 안내를 뿌리내리게 했을 때나 외국인 민원인들이 내 도움이 필요했던 경우 직접 도와드리곤 했다. 내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대개는 주민 센터를 찾아올 때,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을 묻히고 온다.

그 두려움을 닦아 줄 때 나오는 반응들은 나로 하여금 도움을 주기로운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하며, 내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한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언어를 들었을 때 몇 초 정도 자각하지 못하다가 한껏 풀어진 얼굴로 반갑게 얘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가끔 거주지 변경 등 통합신고서를 사용하는 민원이 아닌 다른 일로 방문한 외국인 민원인들도 있었는데, 그 때에는 내가 바로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다. 굳은 표정으로 주민 센터에 온 방글라데시인 부부는 내가 영어로 안내를 시작하자 그제야 배시시 웃으며 자동차 등록원부를 신청했던 것과, 일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본어로 문화누리카드 재발급을 도와드렸을 때 처음에 자신이 일본어로 안내를 들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일본어로 질문 드린 걸 한국어로 대답하곤 몇 초 뒤에 놀라셨던 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니 어느덧 나를 ‘주민 센터의 어느 직원’이 아닌, ‘나에게 다가와 도와준 사람’으로 마음에 남기 시작한 것 같다. 어느 새 민원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 자리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날 어느 베트남 학생이 내게 다가와 “형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던 것과 주민 센터 외부에서 무거운 물품들을 옮기고 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 날 도와주었던 전주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을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내 행동이 그들에게 주민 센터가 갖는 심적 위치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그 사실이 복무 중 제일 보람찼던 것 같다. 가장 낮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그 성취감이 마치 국적을 초월해서, 그냥 마땅히 이웃을 도와주는 것처럼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자연스레 그들의 도움이 나에게 왔던 것이다.

이웃 간의 정이요, 사랑이다. 그리고 보니 주민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아이린(Irene)아파트다. 아이린은 중국어(爱邻)로도, 일본어(あいりん)로도, 이웃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르면 다를수록

박 현 우 | 밀알복지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었고, 대학에서는 기초과 학인 생물학을 전공하던 나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장애인 복지관에서 24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말 뻘하게 업무를 통한 나의 성장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존감을 드높이고 싶지는 않다. 1년 3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한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더불어 현장 속에서 사회복지요원의 역할과 이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의 전공과 관련지어 같이 해보려 한다.

복무이자 도전의 시작

대학을 다니며 주변 친구들이 모두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러 가고, 그들보다는 조금 늦게 병역의 의무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사실 4급 판

정을 받은 후 주변인들을 통해 사회복지무원의 업무에 관해서는 많이 접했다. 예를 들면 행정 계열이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다 해봤다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무원이 되면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만 보면서 근무지 업무를 보조하기만 할 것 같았다. 실제로도 내 주변의 사회복지원은 모두 행정 계열에서 근무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계열에서 근무하면 어떤 일을 할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설령 된다고 해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복무 기관이 배정되는 순간을 기다렸고, ‘밀알복지관’에 배정되었다. 가장 최근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때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교실을 쓴 것이 전부다. 그 후로는 직접 대면할 일도 없었고, 나의 앞길 하나 챙기기 바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 때문에 24개월의 복무 기간이 큰 도전처럼 느껴졌고, 어쩌다 보니 그 도전이 벌써 시작되었다.

현장 속으로 : 직업을 통한 인생의 전환점

이곳에서 나에게 준 주된 업무는 성인 지적장애인 13명을 장애인 재활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맡아 직업 재활을 하는 직업훈련반 업무다. 이곳은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인식 교육, 기능학습,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는 곳이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단순 노무밖에 없는 줄 알았다. 실제로 집계조립 등 단순 노무훈련을 해도 직업이 그것으로 한정되진 않는다.

그중 ○○○ 훈련생은 바리스타 2급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험 전 바리스타 학원에서 실습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복지관에서 내가 실습 준비를 도와주게 되었다. 종이에 에스프레소 추출법과 라떼 제조법이 적혀있었고, 그 순서만 외워서 제조 후 심사위원에게 서빙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 훈련생에게는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안 되

는 것이다. 처음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일단 이면지에 제조법을 몇 번이고 적으면서 무조건 외워보라고 해봤다. 몇 시간 정도 지난 후 다 외웠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 훈련생은 “선생님, 쓰기만 하니깐 손만 아프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실제로 기구를 가지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나도 1시간 정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내 자리에 마시다 남은 아메리카노가 눈에 들어왔고, 교실에 있는 캐비닛을 전부 뒤져 컵과 온갖 잡동사니를 꺼내 실전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플라스틱 컵 2개를 쥐여주며 “이건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잔”, 내 텀블러를 쥐여주며 “이건 라떼 만들 때 사용할 우유라고 합시다.” 커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해 주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리고 ○○○ 훈련생에게 다시 외웠는지 되물었을 때 완벽하진 않아도 전보다는 확실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감만 심어줘도 큰 성공이다. 복지관에 있는 카페에 양해를 구해 이미지 트레이닝한 대로 실제 제조해 보니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 훈련생은 바리스타 2급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꿈을 위한 노력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가슴 뛰는 일이다. 나의 꿈을 위한 노력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다. 그러나 남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과정에 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큰 성취감이 되었다. 그 상대가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타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업훈련생들에게 직업 인식 교육도 해보면서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본 많은 사람은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 중 장애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그들의 직업 활동이 인생에서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땡동~ 반찬 배달 왔습니다!

밀알복지관은 관내 서비스도 하지만, 관외 직접서비스도 한다. 그중의 하나가 반찬 배달 서비스이다. 1주일에 1회 복지관 식당에서 봉사자들의 손길로 만든 맛있는 반찬을 포장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해준다. 약 20가정을 돌면서 반찬을 직접 드린다. 물론 처음엔 반찬 배달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육체적으로 힘만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다양함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시다가 본인의 집에서 아예 장애인 분들과 생활하시는 가정, 뇌전증과 지체 장애로 거동과 생활이 불편한 가정, 장애인 부부가 갓난아이와 함께 사는 가정 등 장애가 아니어도 온갖 것들로 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어찌다가 다른 일이 있어 한 주 못 나가게 되면 그다음 주에 항상 내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꼭 물어보곤 하신다. 땀을 많이 흘리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은 갖고 다니는지 매일 보는 사람처럼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중에는 우리 동네에 사는 분들도 많았다. 언덕 하나만 건너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둘러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대개 반찬을 한분 한분께 드리면 꼭 감사 인사가 돌아오고, 감사선물을 받기도 한다. 사탕이라던가, 드링크라던가.

배달하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1주일 동안 기다려온 마음이 감사 인사가 담겨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고, 소소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는 집에서 먹는 도시락 김 한 장에도 그 분들에게서 받은 감사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등 좀 밀어드릴게요!

반찬 배달 서비스와 함께 맡은 서비스는 목욕 서비스이다.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서 대중목욕탕에서 씻겨드리는 서비스이다. 모시는 남성분은 네분이다. 한 분은 뇌병변장애와 뇌전증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시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고, 나머지 두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다. 처음 언급한 분은 집에서부터 들어서 차로 모시고 와서 목욕탕 안까지 휠체어로 모시고 들어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들어서 간이침대에 모셔서 씻겨드려야 한다.

그중 시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는 어디든 모셔다만 드리면 혼자 세면까지 알아서 다 하신다. 다만 앞이 안 보이시다 보니 다른 감각에 매우 민감하신 듯하다. “다 하셨으면 등 좀 밀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면 껍딱껍딱 놀라곤 하신다. 생각해보니 시각장애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만 줘야 한다는 편견과 다른 감각이 민감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나의 무지가 할아버지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옆에 붙어 이야기하다 보면 배울 것이 많다. 예컨대 다른 이용자분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고 명령조로 이야기하면 그걸 들으시고 “자기보다 어리다고 막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하며 연신 존댓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할아버지는 시각장애를 얻은 뒤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항상 감사해하신다고 한다. 남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로도 많은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남을 어떻게 대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할아버지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남을 씻겨준다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일이다. 그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것이 설령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의 등을 밀어드리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목욕탕에 갔을 때 그 향수를 느낄 수 있었고, 연신 감사해하는 분들의 마음에서 내가

못 씻었어도 씻은 듯한 개운한 보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다.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알다.

장애인을 대하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큰 배려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평소 친구들과 야구 이야기를 할 때면 “어제 류현진 던지는 거 봤냐?”라고 한다. 그러나 목욕하며 모시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류현진 경기 보셨어요?”라고 여쭙니 할아버지께서 “어제 중계 들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라고 답을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듣는 것이 일상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최근에 내가 보고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고, 본 것보다는 들은 것 위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할아버지께 “류현진 중계 들으셨어요? 해설이 뭐라 뭐라 말하던데 진짜 그렇더라고요.”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말하는 것도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복무하며 상대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말하는 것 하나라도 한 번 더 배려하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매일 복지관에서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는 많이 생각해 봤다. 그러나 관외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린 몇 가지 제약을 해결해보고 싶었다. 복지관 건물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복지관 밖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잠재적 이용자들에게는 어떻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 또 그 속에서 사회복지원은 어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그만큼 돌발상황과 변수가 많아 아직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올 때 쓰레받기까지 같이 들고 오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장에서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항상 바라고 있다.

① 세상은 다르면 다를수록 강해진다.

나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생물학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이제까지 어떻게 생존했는지 배우고 고찰했다. 그것은 바로 생물의 다양성이다. 한때 서구사회에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우수한 개체만 남기고 열등한 개체는 모조리 없애버리려 했던 시도가 ‘우생학’이라고 불리는 아픈 역사의 시초다. 우수한 개체임은 누가 판단하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열등한 개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질병 영화나 좀비 영화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감염되어 죽어 가는데 꼭 한 사람이 감염되지 않는 면역을 가져서 그로 인해 세상은 평화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던 이유이다. 만약 면역이 있는 사람이 우수하지 않은 개체라고 판단되어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면? 다양성이 사라져서 서로가 다 비슷하고, 똑같다면 이 세상은 애초에 전염병 한방에 말살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판단하는 근거는 있을지언정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 서로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다양성’이라는 것이다. 달랐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생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모든 개체의 모든 기회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취업할 기회는 존중한다는 것이다. 만약 장애인을 밀알복지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

면 나는 그들을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난 여러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달랐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그 자체가 책 밖에서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곳에서 생물학의 근본이 되는 ‘다양성’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세상은 다른 것들이 섞일수록, 다르면 다를수록 강해진다. 세상이 다 똑같다면 배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 다양성을 배척하지 않듯이 우리 개개인도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사회의 약자를 있는 그대로 다양성을 인정하면 이상적인 사회복지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 세상을 위해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편견에서 새로운 이해

윤 운 상 | 전주사랑의집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사랑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윤운 상입니다.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은 총 55명 정도 되며,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저는 이분들과 하루하루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딱딱한 명칭 대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하루하루 출근하기가 힘들지 않고, 나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즐거운 추억을 남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전까지의 삶

저는 어려서부터 나서는 걸 싫어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학창시절에는 특출 난 것이 없었고, 땀나는 운동도 싫어했고, 그냥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서 쉬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전까지 국밥집에서 서빙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단순히 돈만 버는게 아니라 성격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현재는 쾌활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일이 서비스직이다 보니 사람들을 응대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제 성격 또한 거기에 맞춰 바뀌게 된 결과인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로나 공부보다 제 성격을 바꾼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만일 예전 성격 그대로 사회복지요원이 되었다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능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사회복지요원(Social Service Agent)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요원을 하면서 군복무를 한다는 생각 대신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소집해제까지 일해 볼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첫 시작

저는 2019년 1월 28일에 선복무로 사회복지요원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시청에 모여서 각 시설 담당자님과 첫 만남을 가진 후, 배정받은 시설로 인솔해주셨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한건 ‘아, 일이 힘들겠구나’, ‘주위에서 들은 것처럼 기저귀 갈고, 휠체어 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긴장 반, 설렘 반, 걱정 반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에게 첫 인사드리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시는 생활동으로 이동했고, 여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 부대시설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처음 만난 후 생각이 든게 ‘어르신들이랑 어떻게 친해지고, 이름을 어떻게 외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첫날은 아무 일도 안한 채 시설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모두가 사회에서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풀어주고자 항상 웃으면서 화답하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고,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처음 근무지에서 며칠

안됐을 때 어떤 생활인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예요? 새로 오셨어요?”라고 저는 그때마다 “네, 이곳에 새로 온 사회복지무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생활인분들이 웅성거리시더니 “이 분이 새로 오신 사회복지무원이래”라며 절 가리키셨습니다. 그 뒤로 최대한 어르신들이 빨리 제 얼굴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시설 내 프로그램인 노래교실, 생활체육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무한 지 1개월~2개월이 될 무렵 많은 어르신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시고, 먼저 인사드리면 같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은 수고하신다고 과자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토마토 주스를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옆에 있어주면서 고생했다고,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분들에게 뭘 바라고 도와드린 것도 아닌데도 “학생, 수고 많았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사소한 따뜻한 말에 저는 힘이 더 나는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제 부모님 포레이신분이 많으셔서 항상 부모님한테 대하듯이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공서를 가고 싶었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관공서보다 사회복지시설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더 좋은 이유는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보다는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사무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배정이후에 제 친구들은 관공서에 가고, 저 혼자 사회복지시설로 왔는데 항상 볼 때 마다 “너는 진짜 운도 없다, 어떻게 사회복지시설로 혼자 가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는 “그러게 말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아냐,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다는 행복보다 어르신들과 함께해서 하루가 지났다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장애인들과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요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복무로 이곳 시설이 걸렸을 때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다보니 관공서보다 이곳이 저에게 적성이 맞는 것 같고, 한 치의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 가졌던 장애인과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도 이곳에서 일하다보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됐거나,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됐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가 있었고, 노숙자 분들은 회사 사장이었다가 부도나서 빚에 시달리다가 노숙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셔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결국 장애인분들이나 노숙인분들이나 자신이 이렇게 될지 몰랐던 일인데 단순한 편견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편견을 없애 버려주게 된 이유

항상 출근 할 때마다 반갑게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어르신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곳 시설에 생활하신지 오래되셨고, 항상 제가 밖에 걸어 다니고 있을 때마다 뒤에서 따라다니시기 바쁘십니다. 제가 뒤에 쳐다보면 웃으시고, 저에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제 앞에서 드시고, 제가 손가락 부상으로 병치레 이후 오랜만에 출근했을 때 처음으로 한일이 그분과 같이 병원에 가는 거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분에게 친절하게 대했더니 이분도 절 좋아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만약 사회복지요원이기 전 편견

을 가지고 이분을 대했다면 절대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서 힘든 점과 갑갑함도 여럿 계실 텐데 과연 이분들은 행복이란 걸 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곳에 계시는 생활인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편견은 존재한다.

저의 주 업무는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생활인들을 모시고 병원에 안내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생활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어떤 분은 신기하듯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생활인분들을 모시고 ○○랜드로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2명의 생활인을 모시고 놀이기구도 타고 예쁜 꽃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꿈

저는 학창시절 때 두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환경쪽이고 하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쪽으로 가고 싶어서 환경쪽 관련 대학교 학과로 갔지만, 공부하다보니 전혀 다른 쪽이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채 곰곰이 생각에 빠진 찰나에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게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때마침 사회복지무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어 그 분야에 대해 일을 해보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점점 일에 대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일이 나한테 맞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항상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릴 때 어떤 어르신이 하신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면서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도 사회복지사로 정한 이유도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사회복지사가 제일 적격이겠다 생각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장애인활동 보조인을 하시며, 고모도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힘드냐고 여쭙보면 “힘들지,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단순히 일만하고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면서 돈도 벌고 행복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소집해제 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69,000m 마라톤

정 형 두 | 새힘지역아동센터

4번 레인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라는 문자가 왔다. 할머니도 내가 명절에 놀러 가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얼른 문자가 오길 바랬지만 막상 오니 다시 문자를 보내고 싶었다. 그래도 남자라면 당연히 1급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신검을 받으러 갔다. 시작부터 나는 일이 꼬여버리기 시작했다.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장소를 잘못 선택하여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담당자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나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시력은 그 누구보다도 높게 나왔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1급으로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본적인 검사를 다 끝나고 이제 1대1로 건강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심장이 아팠던 것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1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웬지 모르게 상담이 끝나갈 때쯤에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과거의 나에게 너무 감사하게 느낀다. 나는 4번 레인에 서게 되었다.

준비운동

대학교에 군 휴학을 내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사회복지요원은 어디서 일을 하는 지 알아 보았다.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현역과 달리 우리들은 공공기관, 복지시설들을 총이 아닌 등불을 들고 밝게 비추고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사회복지를 부끄러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어느 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도 했다. 복무지 선택과정에서 본인선택은 떨어지게 되었고, 선 복무에 당첨되어 지역아동센터로 배치 받았다. 군복무를 하기 전에 배치 받은 근무지는 어떨지 어떤 아동들이 있을지 출근 날이 매우 기다려졌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시작이 반이다

총성을 듣고 근무지에 뛰어들었다. 마라톤 대회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얘기하곤 한다. “뛰다가 다치면 어찌려고 그러냐.”, “많이 힘들 수 있다.”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하듯 나도 주변에서 사회복지요원이 겪어야 하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와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하였다. 근무시작과 동시에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물 흐르듯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려가고 있었다. 사회복지요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여기서는 상호간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수직적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는 선후임이 확실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서로 존댓

말을 사용하며 선후임이 존재하지 않고 상호존중을 해준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센터장님과 선생님들도 너무 다 친절하시고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도 말도 잘 듣고 내가 더 열심히 아동센터에서 근무하여 많은 힘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예비 사회복지무원들도 부정적인 말들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복무일을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페이스메이커

초/중/고 아동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아동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보조 역할을 하고, 청소와 급식배식을 하며 초등학교 교사 같은 느낌이 든다. 아동들이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아동들에게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불리는 만큼 내가 더 아동들에게 그에 맞는 언행을 하자고 다짐했고, 지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를 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많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 중 제일 존경하던 선생님들을 생각하였고, 아동심리 책들을 도서관에서 읽어보면서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발 짝 더 다가가고 도움이 되고 싶어 노력을 하고 있다. 존경하던 선생님들 언행과 아동에 관련된 책들이 내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오아시스

달리기를 하면서도 몸이 지치고 힘든 것을 잊게 해주는 것은 시원한 물이다. 사회복지무원의 오아시스는 ‘주말과 공휴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이 현역들이다. 같이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군대 얘기를 하는데 현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를 무시하는 말들도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이유로 고개를

속이고 있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군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다.

근육통

뒤편서 무리를 하면 근육통을 경험한다. 복무를 하면서 누구나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나는 아동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왜 그렇게 기대치를 높게 잡으셨는지 등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잔소리들을 내가 아동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묘했다. 선생님으로써 아동들을 가르치다보니 점점 나도 모르게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직 많이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잠시 잊고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아직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나이인데 말이다.

책에서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어른들의 잔소리는 어른들의 후회라고 한다. 나 또한 더 좋은 성적과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후회를 아동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기도 했다. 선생님인 내 자신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시 한 번 크게 느꼈다. 근육통이 근육이 찢어지면 다시 더 튼튼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복무생활을 하며 기분 좋은 근육통을 느낄 수 있기에 많은 것을 배워가고 더 성장해가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결승점을 향해

나의 복무일 690일. 하루에 계속 100m씩 페이스조절을 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약 22,000m뒤는 결승점이 기다리고 있다. ‘결승점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한다. 2020년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가오니 한명 한명의 아동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잘해주고 많은 것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든다.

중학생들이 영어수업을 하기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준비하여 영어수업을 진행한다. 영어문법이라서 많이 힘들어해도 웃으면서 나의 수업을 잘 따라와 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초등학생들 중 몇몇은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준 문제가 학교 시험지에 출제되어 함께 풀었던 문제를 맞춰서 해맴고 당당하게 시험지를 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아동들이 다양하고 좋은 기회들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마 남지 않은 결승점 까지 페이스 조절을 하며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사회를 밝게 빛내주는 사회복지요원들과 앞으로 새로운 사회의 등불 예비 사회복지요원들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며, 항상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자
심
음
향
기
로
피
어
나
라

2019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복무관리담당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ww.mma.go.kr



나의 김승, 나의 Dream

임 경 식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태양의 후예는 사회복지무원과 달린다.-

복무기관에서 나의 명칭은 ‘태양의 후예’라 불린다. 상·하반기 사회복지무원 담당자교육, 기관의 요청에 의한 교육, 실태조사 이후 면담시 등 항상 나를 소개시 ‘태양의 후예’로 소개한다. 1993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년 여간 군 생활을 마치고 2014년 전역 하였다. 군 생활간 2회에 걸친 해외파병(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은 나의 삶에 큰 변화와 충격을 주었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굶주림과 나무하나 풀 한포기 없는 열악한 환경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하였다. 또한 전쟁터에서 살아서 귀국할 수 있어 ‘감사’가 넘쳤던 소중한 기억이 있다. 전역 이후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면서 나는 ‘청소년’이란 단어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걸기로 다짐을 하고 이후 관련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꾸준한 준비를 하였다. 군생활 20년 경험과 청소년에 관련된 자격을 구비하여(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복

지학 석사) 준비 하던 중 병무청에 복무지도관 직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전·후방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장병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며 함께 하고자 했었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직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니 ‘가정환경·신체·정신적·학력·수형’ 등 사유로 각종 기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지무요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복무지도관’ 직책은 나의 召命이며 숙명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2014년 11월 24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으로 임용 이후 현재까지 5년간 감사함과 행복으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무지도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도 하였고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만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무요원들과 함께 하면서 5년 동안 나의 정신과 감정의 근육은 아주 다부지게 단단해졌다.

체험수기를 작성 하면서 2014년 11월 임용이후 현재까지 복무지도관 직무를 해온 5년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임용 초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 즐거움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것 같다. 2015년 2월 어느 날 무단결근으로 고발되어 법정구속, 출소 이후 재복무 개시 하는 사회복지무요원과 만남이 있었다. 이미 과내 지도관들 사이에서는 복무자세가 극히 불량하고 복무부실로 문제아로 낙인 되어 있어 모두들 어떻게 재복무를 시켜야 할 지 걱정 해 줄 정도였다.

당일 사회복지무요원과 일과 후 만나기로 저녁약속을 하였다. 일과 이후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만나 소주 한 잔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고생과 심적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요원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하며 소통을 하였다. 출소 이후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며 처음으로 식사 대접받는 순간이라며 눈물을 흘리던 요원이 생각이 난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있고 집안의 숨기고 싶은 가정사 까지 속마음을 표현했다. 요원과 헤어지기 전 제과점에 들러 롤케익을 구입하여 어머니

게 갖다 드리라고 선물을 주며 포옹을 해주며 힘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 지속되어 멘토-멘티 사이로 친밀해져 수시로 문자 및 전화와 격려를 통해 무사히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쳤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희망의 등불로 살고 있는 요원을 위해 기도해 본다. 누군가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눈 빛, 소통과 공감의 힘이 힘들고 어려웠던 요원에게 희망의 빛을 밝혀주어 성공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삶의 긍정의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소중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임용 초기(2015년) 지금까지 주변에서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요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 명, 한 명 요원들과 상담 결과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심한 결과 바로 ‘복무부적합 제도’가 최선의 방안임을 깨달았다. 2015년 한해 복무기관 및 지도관들의 복무관리 사각지대에서 복무관리 부실, 사고위험 가능성 있는 요원들을 기관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해 찾아 다녔다. 복무부적합제도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리는’ 소중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이 된다.

부모와 사회복지요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부모님의 눈물과 하소연, 소중한 젊음을 포기한 청년, 패배자 모습에 젖어 있는 젊은 사회복지요원들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복무부적합자를 발굴하여 소집해제 시키는 것을 나의 핵심업무로 선정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한해 20명의 사회복지요원을 소집해제 시켰다. 부모님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하였고 기관에서도 복무관리 부담 해소로 병무청의 역할과 책임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다. 복무부적합 대상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돌봄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사례이다.

○○학교에서 1년 여간 복무를 하였으나 담당교사, 돌봄 장애학생과 전혀 소통과 공감없이 항상 검정색 모자, 검생색 자켓을 착용하고 다니며 교사들의 지휘통제가 어려운 상황 이었다. 수회 걸쳐 전화상담 결과

상호간 약속하여 요원, 모친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상담 당일 학교정문에서 왜? 모친을 나오라고 했냐? 하면서 지도관에게 반말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손자(사회복무요원)의 장래 사회생활을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할머니께서 치료를 시키지 않고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은 정신과 치료가 방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모친과 사회복무요원을 수회 걸쳐 만나 설득하고 치료를 유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하는 한편, 복무부적합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였다. 가끔은 복무지도관 직책수행에 대한 회의를 느껴 아내에게 하소연 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기억이 난다.

돌이켜보면 임용이후 현재까지(5년 여간) 복무지도관 업무는 보람도, 어려움도, 회의감도 있었다. 이 시간 복무지도의 치열한 현장의 창끝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성공적인 병역이행과 복무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열정과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복무지도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병무청 입사 전 가졌던 ‘감사, 열정, 소명감’ 초심이 생각난다. 이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끈을 다시 단단하게 묶을 시기가 왔다. 긍정의 모습과 감사한 마음으로 무장하여 나를 통해 단 한명의 사회복무요원 이라도 변화하고 삶의 방향이 도전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바뀐 모습만 생각하고 현장으로 달려 갈 것이다.

모두가 ‘내 아들이고 조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 할 것이다.

군생활 20년 청년과 함께 하면서 터득한 공감의 리더십, 소통과 배려, 전쟁터에서 살아온 태양의 후예로 인생의 후반전은 ‘사회 희망의 등불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의 등불이 국가와 개인의 삶에 환하게 활활 타오를 때까지 함께 전진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박 민 규 | 경기북부병무지청 복무지도관

행복한 순간

복무지도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면서 시간은 짧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기억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뿌듯하고 보람된 기억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 “해냈다!” 라는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예전에 사회복무요원 중 한 요원은 근무지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복무를 힘들어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수많은 민원신청과 근무지변경도 했지만 변화되는 건 없었다. 더 이상 다른 근무지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내가 맡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계속 근무지를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계속해서 본인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에 대해 진정성 있게 듣고 공감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하지 않고 충분하게 시간을 두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에 성실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했다. 때로는 복무지도관이라는 직책을 떠나서 인생의 선배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지금 하고 있는 복무가 그냥 복무가 아니고 사회생활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복무를 한다기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해 본다.’ 라는 마음으로 해보라고 하였다. 분명, 자신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복무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큰 밑바탕이 될 것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혹시나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되어 지도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편하게 공감대를 형성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자 해당 요원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복무지도관을 신뢰하면서 “잘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해당 근무지 담당자 선생님께도 인정받으면서 잘 근무를 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다보니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요원이 고마워하고 잘 복무하겠다고 이야기 할 때 복무지도관으로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마음가짐

난 주말에 별다른 일정이 없을 땐 항상 영화를 본다. 소파에 앉아서 과자봉지 하나 뜯어놓고 영화를 보면 재미있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많게는 하루에 영화를 2~3편 까지도 봤는데, 복무지도관을 하면서 예전에 본 영화 중 ‘역린’이라는 영화가 문득 생각났다. ‘역린’ 명대사로 이러한 대사가 나온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길에 베어나고, 길으로 들어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기고,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세상에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예전에는 이 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는데, 복무

지도관을 하면서 내가 정말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말 중의 하나다. 사회복지요원의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복무지도관으로서 귀 기울여 듣고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주려 하면 사회복지요원도 감동을 받아서 더욱 복무에 성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았다. 항상 복무지도관을 하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다. 처음에 전화로 상담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근무를 하겠다고 한 요원이 있었다. 그러나 자주 전화 상담을 하고 진정어리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요원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 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그 요원은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였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복무지도관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문제해결에 앞서 복무요원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초청하며 면담도 하고 기관에도 찾아가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며 요원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요원이 ‘아, 우리 복무지도관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작은 감동을 느끼는 순간, 요원들의 복무태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웃과 함께하는 든든한 나눔 천사

‘사회복지요원’이라는 명칭에 ‘요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뜻이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요원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보면 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 미담사례 보도 내용 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들이 많다. 내가 직접 실태 조사를 나가보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일을 참 잘해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회복지무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회복지무원, 아이들과 함께 학습지도를 해주고 체육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보람을 느낀다는 사회복지무원까지. 뿐만 아니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한 요원은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잘 근무를 하여서 소집해제 후 해당 근무지에 취업을 한 사례도 있다.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믿음직한 요원을 소집해제 후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지역신문에도 나온 이 사회복지요원은 지금도 해당 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요원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요원들의 사회적 일탈로 인해서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의 평가마저 좋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나는 사회복지요원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복무요원들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사회복지요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원들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작은 소망이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회복지요원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 더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나 또한 복무지도관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정말 괜찮아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처음 복무지도관으로 임무수행을 하고나서 자주 듣던 말이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질문들의 의미를 잘 몰랐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에 마주치는 분들마다 이렇게

물어봐주시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복무지도관은 쉽지 않은 직책이라는 것을. 사회복지무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복무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신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요원에서부터 근무지 내 대인관계 혹은 개인적인 가사사정 등 많은 경우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개인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대다수의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 물론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가끔은 사회복지무원과 근무지 담당자분들과의 중간자 입장에서 난처한 경우도 많고 힘들 때도 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꺼내 먹는다. 나는 과일 중에 감을 좋아한다. 말랑말랑한 껍감, 달콤한 단감도 좋지만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은 바로 사명감이다. 항상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항상 찾는 과일은 바로 사명감이다. 사명감은 말랑말랑 하지도 그리 달콤하지도 않다. 하지만 사명감이야말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힘을 주고 약해지려고 하는 정신을 다시금 잡아주는 중요한 열쇠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난 이 열쇠를 통해 망설임 없이 열어낼 것이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40여 년 동안 군복을 입으시고 전역하신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의 인생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 평생 복무지도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며 내가 소속된 병무청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의 사회복지무원 복무지도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내 사회복지목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사친소)

윤 형 준 | 대구달성소방서 복무관리담당

● 始 : 첫 만남

2018년 1월 1일 소방서내 인사이동으로 소방행정과에 동지를 틀게 되면서 사회복지목친구들과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근행정직 업무 이전 현장교대근무를 할 때는 3주마다 돌아오는 주간 주에만 사회복지목친구와 근무를 하다 보니 그들과 대화를 할 시간적 여유도 심리적 여유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갓 소방서에 들어온 신입소방공무원에게는 사회복지목친구보다 다른 부분에 더 시선이 가고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 나가는 사고현장,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 공기호흡기 면체 속 거친 호흡 소리 등을 들으면 머릿속은 온통 출동에 관한 생각과 화염이 보여주는 광적인 흥분들로 가득하다. 사회복지목친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기존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 혹은 삶에 대해선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다. 작년 1월 인사이동을 통해 비로소 그들의 이야기와 삶에

귀를 기울이고 정면으로 응시하게 된 내 자신에 대한 자아성찰과 반성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波 : 물결이 일다

2018년 1월 인사이동으로 시작한 소방행정과 업무는 뜨거운 열기가 주는 현장근무만큼 치열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사실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가 주는 열기가 이렇게나 뜨겁고 머리를 복잡하게 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위기에 봉착해있던 나에게 한 줄기 빛과 소금 같았던 존재는 뜻밖에도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무원 ○○이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이는 나에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 엑셀함수를 척척 풀어내던 알파고였다. 그 외 과내 업무에도 해박했고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는 직원들의 일을 도와서 척척 해내곤 했다. 전임자로부터 완벽하게 받지 못한 인수인계를 사회복지무원을 통해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비록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던 터라 같이 오래 근무를 하지 못했지만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기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다른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의 소집해제를 맞이하여 소집해제 기념패를 제작·수여하고 기념촬영과 기념식도 진행했다. 소방보조인력으로 의무소방이 있었을 시기엔 기념패 제작 및 기념행사가 종종 있었다는 이야길 들었지만 사회복지무원의 기념패 제작과 기념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사회복지무원의 소집해제 기념행사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이와의 시간이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

動 : 마음을 움직이다

염동설한의 추위가 누그러지고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부는 계절, ○○이를 보내고 우리 소방행정과에 새로운 사회복지무원 △△이가 들어왔다. 덩치는 설악산만큼 크지만 꽃밭의 나비보다 섬세한 친구였다.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부탁하는 일을 싫은 내색 한번 없이 늘 웃으면서 해서 직원들도 좋아하고 이래저래 많은 이쁨을 받았다. 사회복지무원이라 하면 모두들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들 생각을 했고 나 역시도 그러했다. 특히 소방서는 직원의 약 90퍼센트가 남자이고 대부분이 군필자들이다 보니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회복지무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검 결과 비만 혹은 과거의 병력 등으로 현역이 아닌 사회복지복무를 판정받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선입견을 깨준 것이 ○○이었고 깨진 선입견을 완전히 용해시킨 친구들이 앞서 이야기한 △△이와 지금부터 이야기 할 ○○이와 □□이다. 우선 구급대에서 근무했던 ○○이의 경우 구급대장님의 양아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총애를 받던 사회복지무원이었다. 직원들이 휴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이가 대신하곤 했다. 물론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나 기타 현장활동은 할 수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장비들을 챙겨서 보조역할을 해주었다. 세상일이 참 드라마틱하고 신기하다 생각했던 부분은 ○○이가 구급대 보조인력으로 출동을 나갔을 때 교통사고 현장의 요구조자가 바로 ○○이의 어머니였던 일이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사고현장으로 출동을 나간 ○○이의 눈 앞에는 낮익은 차와 낮선 모습의 어머니가 있었다. 현장의 직원들이 놀라고 패닉에 빠진 ○○이를 다독이고 안전하게 어머니를 구조한 그 일은 ○○이에게 앞으로의 복무생활에 있어 큰 방향성을 제시한 사건이라 하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큰 문제없이 퇴원하셨고 ○○이는 그 일 이후 구급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도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비록 이 일이 세계의 역사에 한 획을 긋거나 국내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어느 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로인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위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응구조과에서 복무했던 □□이 역시 직원들의 인식을 바꾼 점이 비슷했다. △△에 취업했던 □□이는 다른 사회복지요원들과는 다르게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복무생활을 더 원활히 했다. 알게 모르게 수동적인 면이 있는 다른 복무요원들과는 달리 능동적이었고 한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 부서에 비해 야외에서 하는 업무와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많았지만 능숙하게 맡은 업무를 해내었다. 이런 모습들은 직원들에게 있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철옹성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간 허물어지듯 그들의 변함없는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新 : 새바람이 불다

달큰하고 시끌시끌했던 한여름 밤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올 무렵 달성소방서에서 복무하던 사회복지요원들을 모두 떠나보냈다. 모두들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소집해제 해주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 아쉬기도 하고 그 빈자리가 쓸쓸하게 느껴졌다.

사회복지요원의 빈자리가 어느새 익숙해져가던 늦가을 지금 소방행정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를 필두로 달성소방서에는 다시 사회복지요원들이 들어왔다. 지난 1년간 사회복지요원 담당자로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요원들은 현역병들에 비해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점을 바로잡아주고 우리 소방서, 우리 부서 등으로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 머물다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닌 평생의 기억에 남을만한 장소로 만들어 주고 싶었다.

특히 ◇◇이의 경우는 지금까지 왔던 사회복지요원들에 비해 특별한 점이 많았다. 나이도 가장 많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동생과 단둘이 거창에서 대구로 상경하여 일한 급여로 거창의 부모님을 봉양하는

요즘 시대 보기 드문 청년이었다. ◇◇이를 포함하여 현재 달성소방서에는 총 8명의 사회복지요원이 복무 중에 있다. 든든한 만형 아래 다들 형·동생으로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요원들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모여서 피시방에서 게임도 하고 술도 한잔하는 소소한 친목모임도 가졌다. 여느 그 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요원이라는 이유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① 終 : 마치며

사람의 인식은 한번 형성된 가치관과 인식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다. 첫인상이 주는 느낌은 때론 인간관계의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의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학생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모든 사회복지요원들이 문제없이 다 성실히 복무에 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판단은 잘 지도하고 많이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달성소방서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복무기관들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의 복무요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조금 더 인간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사회복지요원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을 업무로만 바라본다면 복무요원들은 언제나 문제를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20대 초·중반의 그 나이 또래 복무요원들은 업무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그들을 더 올바르게 선도하고 복무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복무요원들에게 우리 기관, 우리 부서라는 소속감을 심어주어 스스로 그 생활터전인 울타리를 지키고 방관하는 외부인이 아닌 달성소방서라는 조직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눈길을 주었으면 한다.



같이 걸을래?

최 은 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복무관리담당

뇌병변장애 1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생활이 불가능한 1학년 학생 ‘○○’와 사회복지요원이 만나면서 생겼던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무표정에 말수가 적은 사회복지요원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잘 지내실 수 있을까? 언어장애 학생이 오면 한마디라도 먼저 말 걸어줘야 하는데 말수가 적으셔서...’

일반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이라는 특수적인 환경인지라 특수교사인 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특성과 사회복지요원의 특성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1학년으로 처음 입학하게 될 학생 중에 뇌병변장애 1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기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학생은 병설유치원의 경험이 1년 밖에 없고 그 외의 시간은 가정에서 부모님과과의 보육 경험 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에서의 경험이 1년 외에는 전무해서 학생의 부모님도 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에 적잖이 걱정하시며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이 경직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오로지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고 대소변 처리도 교사가 안아서 변기에 앉힌 뒤 뒤처리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식사 시에도 혼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 옆에서 밥을 떠서 먹여줘야 했고 양치질도 당연히 교사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특성의 학생인지라 학교에서는 교사 외에 실무사나 사회복지요원이 이 학생과 일대일로 전담을 맡아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강직형의 장애이기 때문에 대소변 처리나 양치질을 위해 세면대 앞에 학생을 세울 때 자칫 세면대 잡은 학생의 손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옆으로 넘어져서 손쓸 새도 없이 머리부터 온몸이 무방비 상태로 다칠 우려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저의 반에 뇌병변 학생이 입학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말씀드릴게요.”

학생 입학 전에 모든 사항을 전달하고 이야기 하자 사회복지요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경력이 많은 특수교사들도 힘들어하는 학생이므로 요원 선생님도 당연히 힘드시리라 염두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특히나 나이가 어리고 다른 사람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탄 학생들을 길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생활을 하거나 차로 이동을 하고 그 가족들도 편하게 길을 다니는 것을 꺼려해 일반 시민들이 보이는 곳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과 만나고 특히 얘기를

나눈다는 경험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내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원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교사인 나도 요원 선생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입학 첫날 ○○는 조그만한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고 하얗고 왜소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건네는 인사를 받고 저는 더 밝은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야 나는 특수학급 교사고 여기는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이야. 앞으로 서선생님 이라고 부르면 되.” 이야기를 해주자 아이의 눈이 사회복지무원 선생님께 향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이 인사를 하자 ○○는 호기심 반 반가움 반의 얼굴로 마주대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상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도와줄게.

사회복지무원 선생님과 ○○는 조용히 서로를 파악해가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작년에 다니던 병설 유치원에도 사회복지무원이 있었던 터라 ○○도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이 자신의 옆에서 글씨 쓰는 것이나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새로 친구를 사귄 때 파악을 해나가듯 서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무원 선생님도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가지 일들을 해나가며 학생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3교시 특수학급에서 ○○의 국어 시간이 되었고 사회복지무원 선생님과 ○○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실에서 특수학급으로 내려와 공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하나 지시를 하고 있었던터라 저는 “선생님 사물함에서 ○○ 국어책 꺼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선생님은 얼른 책을 꺼내

○○ 앞에 놓았습니다. ○○의 뒤를 이어 특수학급에 소속된 다른 학년의 학생도 들어왔습니다. 종이 울리고 책을 펴 공부를 시작하는 찰나 다른 학년의 장애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였습니다. 즉각적인 지도가 필요했으므로 저는 ○○를 신경쓰지 못하고 그 학생에게 문제행동지도를 하고 교과서를 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그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아차’하는 생각에 ○○를 바라보자 ○○ 옆에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이 오셔서 공부할 곳은 짚어주며 손으로 글씨 쓰는 것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는 낮가림이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여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스스럼없이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사회복지무원이 ○○와 친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여기 써봐.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말수가 적은 성품이시라 평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먼저 말 걸어주고 도와주겠다고 손내밀어 주는 모습에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 선생님의 말씀에 웃는 모습으로 대답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같이 걸을래?

○○랑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은 서로 친해져서 제법 이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깔깔 거리고 웃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로 맺어진 결과인 것을 알고 무척 감사했습니다. 아동과의 친분을 쌓는 부분은 선생님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선생님 업무 영역 이상의 노력을 요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동과 친해지자 아동의 학교생활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학교적응이 빨라졌습니다. ○○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선생님과 관계가 편해지고 둘이 게임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반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며 같이 놀고 싶어 했습니다. 일반학급에서의 특수아동들을 아이들이 같이 놀기 꺼려하거나 본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선생님이 아동에게 대하는 친절한 모습과 재미있게 지내는 행동들이 반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후 ○○의 양치질을 돕고 사회복지무원 선생님과 ○○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학급 정리를 한 후 ○○를 보고자 일반학급으로 올라갔는데 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한참을 지나도 오지 않아서 교실 종이 끈 칠 것만 같은 생각에 찾으러 나섰습니다. 이쪽 저쪽 교실을 둘러보고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은 ○○를 번쩍 안고 여기저기 학교를 둘러보면서 시설을 소개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큰 휠체어를 끌고 이동하면서 곳곳의 학급과 시설들을 세세하게 보여주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러한 제약없이 ○○에게 마음껏 학교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에 5층이나 되는 학교를 휠체어 없이 아이만 번쩍 안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힘이 들었는지 얼굴이 상기된 선생님에게 고마움과 감동이 섞인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점심시간 내내 아이안고 학교 둘러보신 거예요?”

“네! ○○가 다른 층에 무슨 반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불편해서 안고 다녀왔어요.”

“선생님! 사회복지무원 선생님이 저 안고 학교 다 구경시켜주셨어요.

같이 걸어보자고 하셔서 따라 나왔어요.”

○○의 대답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이 걸어보자는 사회복지요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학문적인 특수교육과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특수교육의 화두는 장애를 개인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인은 ‘신체적 요소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제한을 받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변해왔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요원 선생님의 행동이야말로 ○○의 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를 둘러보지 못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라는 환경적 제약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선생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한다면 사회복지요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배경과 경험들을 초월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걸어볼까요?



기도 막힌 어린이 사회복무요원이 구해

김 제 훈 | 창원시 상남동동행정복지센터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담동행정복지센터에 한 주민이 달려와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며 다급히 알려왔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김제훈 사회복무요원은 급히 놀이터로 달려가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뭔가가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감지한 김제훈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알고 있었던 하임리히요법을 시작했고, 흉부압박을 번갈아 실시하자 어린이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임리히요법은 기도가 이물질로 폐쇄되었을 때 환자의 뒤에서 안듯이 손으로 명치 아래를 힘껏 끌어올리거나, 등을 세계 두드려 자극하는 응급 처치다.

그리고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제훈 사회복무요원은 “아이를 숨쉬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되어 행복할 뿐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적장애인 보살핀 사회복지무원

이 한 빈 | 벨엘타운

지난 12월3일 오후 요양시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이한빈 사회복지무원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휘청거리며 위험하게 차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을 우연히 발견했다.

한낮 기온도 영하로 떨어진 무척 추운 날씨였던 당일, 이 남성은 군데 군데 흠이 묻어있는 환자복만 입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무릎에 난 상처에는 피까지 흐르고 있었으나,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은 이 남성을 못 본 척 지나치고 있었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하면서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한 이한빈 사회복지무원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112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한빈 사회복지무원은 차분하게 해당 남성을 안심시켰으며, 경찰 차량에 동승해 병원까지 이동한 후 남성이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 귀가 하였다.

이한빈 사회복지무원은 “소집해제 돼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랑스러운 청년이 되고 싶다”고 전하였다.



화재속 숨은 영웅 사회복지무원

조영흠 | 천안차암초등학교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경 충남 천안차암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 하였다. 학교 교실의 외벽에 불이 붙어 수업이 한창이던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피하는 중 사회복지무원의 활약상으로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하고 한명의 피해자도 없이 910여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대피하는데는 평소 익혔던 재난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무원들의 빠른 판단과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천안차암초등학교에는 2명의 사회복지무원의 복무하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하자 사회복지무원들은 4층에서 부터 계단을 통해 차분하게 학생들을 대피 시켰다.

또한, 조영흠 사회복지무원은 대피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상황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 큰 재난으로 변질 뻔한 화재가 사회복지무원에 활약으로 한명의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발생 40여분 만에 진화 되었다.



지하철 몰카범 제압한 사회복무요원



최 정 우 · 곽 명 섭 | 광운대역

사건은 지난 2월16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역무실로 한 여성이 황급히 뛰어 들어와 역사 안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이 다른 칸을 몰래 훑쳐보고 있다고 신고했다.

역무실에 있던 역무원은 두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여자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 칸을 확인하던 중 이 남성이 달아나려고 하자 최정우, 곽명섭 사회복무요원이 붙잡았다.

불법촬영범으로 의심되는 남성은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이과정에서 두 사회복무요원과 남성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남성을 붙잡다두는 데 성공했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할 수 있었다.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정우 사회복무요원은 늑골에 금이 가는 부상으로 4주 진단을 받았고, 곽명섭 사회복무요원 또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은 10여분간 여성 화장실에 머물러 있었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불법촬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불법촬영범을 잡다가 다친 두 사회복무요원들은 치료를 마치고 최근 건강하게 근무지로 복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생명나눔 실천한 사회복지무원

윤 용 근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헌혈의집에서 근무중인 윤용근 사회복지무원은 2017년5월 복무를 시작한지 3일 만에 첫 헌혈을 시작하였고 지난해 8월에는 ‘조혈모세포기증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2018년12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증을 결정하였다.

지난 2월19일 윤용근 사회복지무원은 병원에 입원하여 이틀간의 힘든 과정을 거쳐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2주에 한번씩 총 26회의 헌혈로 생명 나눔에 동참하여 대한적십자에서 혈액사업에 공적이 있는 다회 헌혈자에게 수여하는 유공장(30회 이상 헌혈 시 은장) 수상을 앞두고 있다.

윤용근 사회복지무원은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면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자들을 보며 나도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여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라톤 도중 쓰러진 시민 생명 구한 사회복지무원

배 병 윤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지난 4월28일 오전 9시께 서울 한강 일대에서 진행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20대 남성이 여의도 공원을 통과할 무렵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배병윤 사회복지무원은 막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던 중 한 남성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마라톤 참가자들은 이 남성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누워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심코 지나쳤다. 배병윤 사회복지무원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남성에게 달려갔다.

남성은 의식을 잃은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배병윤 사회복지무원은 남성의 어깨를 꼬집듯 움켜쥐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 곧바로 119대응 센터에 전화를 걸어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배병윤 사회복지무원은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행술을 시도했다. 그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6~7분가량이 지났고 더 지체했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배병윤 사회복지무원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AED를 가져와 쓰러진 남성의 심장 쪽에 충격을 가해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때마침 도착한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마터면 큰 화를 당할 뻔 했던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내 승객 안전지킨 사회복무요원

류 동 은 | 한국철도공사수도권운동본부

5월19일 삼동역에서 경기광주역으로 운행 중이던 경강선 열차에서 두 남성의 주먹다짐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운동본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온몸으로 막아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다.

두 남성은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로를 주먹으로 때려 다쳤고 같은 칸에 있는 승객들도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승객들은 비상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신고 했지만 아무도 제지를 못 했고, 결국 일부 승객은 옆 칸으로 대피하는 등 열차 내가 혼란스러워졌다.

류동은 사회복무요원은 당시 공무로 다른 역으로 이동하던 중 바로 옆에서 이들의 싸움을 목격하게 됐다. 본인이 폭행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혼자서 이들의 싸움을 가로막았다.

류동은 사회복무요원은 열차가 경기광주역에 도착할 때까지 싸움을 말렸고,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폭행을 한 남성들을 하차시키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싸움이 이어지지 않도록 남성들을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적극적으로 저지했다.

류동은 사회복무요원의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다른 승객들도 부상의 위험에빠질수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처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류동은 사회복무요원은 “이런일이 또 일어나도 다시 나설 것”이라며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로 뛰어든 남성 구한 사회복무요원

오 윤 상 | 서울교통공사

지난 3월22일 이른 아침시간, 지하철 신림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열차가 역내로 진입하기 전 갑자기 선로에 뛰어 들었다.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만 당시 신림역은 스크린도어가 노후돼 재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들이 배치됐지만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남성의 돌발 행동을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다.

당시 역에서 근무하던 오윤상 사회복무요원은 이를 목격하고, 열차가 이전 역을 출발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소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비상SOS”를 이용해 역무실에 긴급 신고를 하였다.

이어 오윤상 사회복무요원은 선로로 내려가 다른 안전요원들과 함께 투신한 남성을 승강장 위로 끌어 올렸다. 오윤상 사회복무요원의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신속하게 관제조치가 이뤄지면서 신림역을 향해 오고 있던 열차는 승강장 내로 진입하기 전 멈췄다.

승강장에 올라온 남성이 또다시 선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며,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무사히 신변을 인계하여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오윤상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안전사고 매뉴얼 교육을 받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대피시키고, 화재진압까지

구 교 돈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7월5일 오후 신정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건물 1층에는 카페가 2,3층에는 학원과 독서실이 위치하고 있어 카페에 있던 손님과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 및 어린이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건물 내부에 있는 상황이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구교돈 사회복지무요원은 퇴근길에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가까이 있던 주민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한 후 화재 사실을 모르던 건물 내부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화재가 발생했으니 어서 대피하라”고 외치며 신속하게 대피를 도왔다.

구교돈 사회복지무요원은 이후 지하 1~2층에 위치한 수영장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떠올리곤 지하로 향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빠르게 대피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이내 건물 2~3층에 위치한 학원으로 뛰어올라가 학원 강의실 문을 두드리며 학생들의 대피를 도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 소방차가 올 때까지 소화기로 직접 초기 진화에 나서기도 하였다. 구교돈 사회복지무요원의 신속한 대응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명피해 없이 불은 30여분 만에 진압됐다.



경찰 도와 보이сп이스싱 전달책 검거



김기수 · 정의연 | 서울양천경찰서

6월20일 오후 1시20분경 신월4치안센터로 신월4동주민센터 직원이 급히 달려왔다. 한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сп이스싱 범죄에 노출된 것 같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치안센터장은 이 남성의 말을 듣는 순간 보이сп이스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양천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사회복지무원과 함께 보이сп이스싱 조직원 검거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된 장소로 한 외국인 남성이 나타났지만 주위에 있던 사회복지무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택배함을 열어보았다.

김기수, 정의연 사회복지무원은 침착하게 외국인 남성이 돈 봉치를 가져가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다. 이어 잠복해 있던 경찰이 현장에서 외국인 남성을 검거하는 것을 도왔다.

검거된 외국인 남성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한국말을 못했다. 정의연 사회복지무원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 원칙을 영어로 고지하는 등 통역을 자처해 수사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기수, 정의연 사회복지무원은 “예상치 못한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근무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치안과 안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었던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남은 복무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9 사회복지요원 체험수기집

발행인 병무청장 기찬수

편집인 사회복지국장 홍승미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처 병무청 사회복지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Tel. 042)481-3043 Fax. 042)481-3040
www.mma.go.kr

디자인 및 인쇄 디자인문영 Tel. 042)472-5081

발간등록번호 11-1300000-000143-10